

2003 연구보고서 260-4

# **국제여성발전전략으로서의 평화문화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정 순 영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영 혜 (연구위원)

 **한국여성개발원**

## 발 간 사

세계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수립 및 이행활동은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세계여성대회 과정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서 여성개발(Women in Development: WID) 전략을 도입하였고, WID를 성 관점(Gender and Development: GAD)에서 개선하는 성 주류화 전략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주도로 평화문화 전략이 진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유엔의 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여성지위 향상에 역점을 두고 본격화 한 정책 추진은 특히 법적 개혁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북경대회 후에는 정책의 주류에 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선행한 두 가지 전략과 평화문화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여성정책에 대한 우리의 전략사고를 풍부하게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접근으로는 본 연구가 최초이므로 정책당국에 의하여 크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팀의 시의성 있는 노력을 치하하며 자문 및 평가를 통하여 적실성 있게 분석의 제고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03년 12월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장 하 진

## 연구요약

### I. 서론

평화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법과 현실 간 괴리’문제로부터 제기된다. 한국은 80년대 후반 이래 여성발전을 위한 법적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가부장적 문화와 의식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풍토에서 이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에 내재하는 갈등의 의식구조를 근본적으로 통합의 상태로 바꾸어야 한다. 개인이거나 집단이거나 갈등은 궁극적으로 통합된 정신상태인 평화문화 속에서 해소된다. 남녀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평화를 일구어 내는 정신으로서 평화문화는 양성적 통합의 전제조건이다. 본 연구는 의식변화의 요구와 관련하여 평화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특히 국제협력의 효과적 수행에 기여한다. 1995년 북경대회를 전후로 평화문화는 성 주류화와 함께 21세기 여성발전 전략의 기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구조는 육체적 분업의 경직성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이 같은 맥락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평화문화 프로그램의 현실성을 높이는 주요 배경이다. 한국여성정책의 상당부분이 국제협력 체제와의 공동보조 속에서 진전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제여성발전 전략의 새로운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평화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긴요한 의의를 지닌다.

### II. 평화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평화에 대한 이론적 전개

##### 가. 평화학의 패러다임 전환

평화의 문제가 하나의 학문분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다. 전통시대에서는 평화란 단지 항구적인 전시상태 속의 일시적인 전투 중지를 의미할 뿐이었다. 독립적 목표로서의 평화는 산업문명 이후에야 사고될 수 있었으며 산업화는 교역심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쟁의 영구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점까지 등장시켰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의 참화는 장기적인 전망보다 당장의 전쟁방지를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으며 특히 대전 후의 핵 공포는 전쟁에 대하여 본원적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평화학의 태동은 전 후의 이 같은 맥락 속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하였고 이에 따라 초기 패러다임은 주로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힘의 관계에 초점이 두어졌다.

1960년대의 개도국 독립, 남북갈등, 신좌파운동을 배경으로 60년대 말 갈통에 의하여 형성된 구조적 폭력론은 전쟁이란 폭력은 모든 갈등구조의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평화의 문제는 갈등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폭력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구현되고 보전되는 진정한 발전을 향한 적극적 개혁의 정신을 내포하였다.

평화문화의 관념은 평화학에서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과 연관되어 파생하였다. 그것은 광의의 폭력을 문제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폭력론과 궤를 같이 한다. 평화이론의 진전에서 문화적 접근이 현실적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식기반문명의 도래로 육체적 힘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의 독립변수로서 문화는 육체적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 나. 전쟁과 성 차이

평화는 전쟁의 반대만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가 하면 폭력의 부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전쟁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폭력을 또한 야기한다. 따라서 전쟁의 부재는 곧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부재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정의, 평등,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향유 속에서 달성된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며 전쟁과 평화의 문

제에 대한 주도적 결정권은 전적으로 남성의 수중에 있다. 평화학의 초기 패러다임 단계에서 여성의제의 기본쟁점은 남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전쟁에서 피해는 여성이 더 많이 당한다는 사실에 있었다. 가부장적 의사결정은 여성배제적이므로 이러한 전쟁의 성 차이는 차별적인 것이다.

#### 다. 군사안보와 인간안보

2차대전 후 평화에 대한 초기 관심은 곧 전쟁의 부재로 통하였고 무력적 측면에서 군사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군사안보라는 이러한 협의의 소극적 평화 개념은 높은 수준의 군사적 방위를 가진 상태로 규정되었다.

군사안보는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전쟁은 인간이 개입된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폭력이므로 경우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수단에 의해서라도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차선의 논리로서 합리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적 사회생활에서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은 지속적인 것임으로 해서 전쟁보다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고통은 군사안보와는 무관한 것이며 무력적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구조적 폭력은 무력적 경우와 달리 제도를 통한 억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빈곤, 기아, 질병, 문맹, 실업 등과 같이 인간의 삶을 저해하는 요인은 갈등을 촉발하기도 하지만 전쟁의 경우와 같이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 그것은 제도적 편견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더욱이 이 같은 구조적 폭력은 체제의 정상적 운용 속에 은폐됨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뚜렷이 쟁점화 하지 않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인간안보는 사회의 제도적 편견에 의한 폭력을 폐기함으로써 실현된다. 안보는 소극적으로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전쟁의 억지로써 성립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인간적 삶을 창조하는 광의의 평화적 조건을 정립한다. 소극적 평화와 소극적 안보는 파괴적인 본질을 억제하려는 열망에 의존하는 반면에 적극적 평화는 건설적인 본질을 창조하려는 열망을 갖게 한다.

## 2. 평화에 대한 문화적 접근

### 가. 폭력문화와 남성성

구조적 폭력론은 평화를 인간안보적 통합의 쟁점으로 만든다. 평화의 제도적 억압의 문제와 연관되면서 성 갈등은 단순히 전쟁의 성 차이로서가 아니라 통합의 평화의제로서 인식된다. 평화와 문화가 하나의 전략적 관점으로 접합될 수 있었던 것은 구조적 폭력론과 인간안보적 통합의 관점을 매개로 한 데에서 가능하였다. 인간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문제의식은 구조의 대칭개념으로서 문화를 인간의 안보로서 평화와 연결시킨 관념을 형성시킨 것이다. 그러나 평화의 문화적 측면은 구조결정론의 사고가 지배하는 가운데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80년대 말에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이 유엔체제 내에 도입되었지만 유네스코 주도의 평화문화 프로그램이 본격화 한 것은 90년대 후반기 들어서였다.

유네스코사업이 평화의 문화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고의 변화를 초래한 주요한 이론적 영향은 폭력적 남성성의 문화결정론에서 발견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구조적 폭력의 주요 부분으로서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관용되고 있다. 가부장적 성 이데올로기는 갈등의 원인을 폭력적인 행위로 바꾸어 놓는다. 즉 구조적 폭력은 성 폭력을 조장하며 이러한 기제는 가부장제 하의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평화의 문제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이론적 배경은 폭력적 남성성이 생물학적 원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은 폭력의 원인으로서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폭력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가부장주의는 남성의 폭력성을 부추기며 성 문화는 폭력문화의 한 요인으로서 남성성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평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 문화를 독립변수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 나. 평화문화의 대두

평화문화는 직접적으로는 유네스코가 1980년대 말 세계여성대회과정을 통하여 유엔체제 내에 수용된 평화의 광의적 목적을 문화사업과 연관시키

면서 생성된 전략개념이다. 그것의 독립변수적 현실성이 제고된 것은 폭력적 남성성의 문화결정론으로부터 영향 받은 바 컸다. 그러나 평화문화를 부상시킨 근원적 배경은 평화학이 전쟁의 방지라는 문제의식에 그치지 않고 인간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폭력의 제거에 목적을 두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은 1989년 유네스코 주도로 코티브아에서 열린 인간정신에서의 평화에 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Peace in the Minds of Men)에서 공식 도입되었고 이 후 유엔체제 내에서 평화문화 프로그램은 유네스코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유엔의 결의안은 평화문화를 발전에서 폭력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을 제거 함으로써 폭력을 거부하고 개인, 집단 및 국가 간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적 대화를 통하여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이룩하는 가치, 태도, 행동양식, 생활방식의 총 집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평화문화에 대한 이러한 유엔의 정의는 구조적 폭력론이 제기한 광의의 평화를 향한 인간안보적 관점과 개혁의지를 반영한다.

평화문화전략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만 기반을 둔 현재의 개발개념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같은 폭력성, 안보를 군사력과 동일시하여 인간안보 대신에 군사력의 증강을 우선시 하는 일련의 관념에 도전하며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국가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부와 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경제사회적 박탈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다. 평화문화에의 성 관점 통합

평화는 소극적 개념의 군사안보로 규정되는 한 성 관점과 연관 지워지는 어렵다. 평화문화는 인간안보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것은 보편적 통합의 정신을 발현한다. 그러므로 양성적 통합의 정신을 실현하는 성 평등은 평화문화에 내포되는 목표로 된다.

1975년의 멕시코 세계여성 행동계획과 1980년의 코펜하겐 행동프로그램은 주로 무력갈등을 극복하기위한 국제평화구축에의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세계여성대회 과정에서 구조적 폭력론이 반영되어 평화에 인간안보의 관점이 통합된 것은 1985년의 나이로비대회에서였다. 나이로비 미래

전략은 평화를 단순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쟁의 부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야기하는 근원인 가난, 부정의, 불평등, 인권유린, 착취적 억압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여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폭력의 제거, 즉 인간안보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평화문화에의 성 관점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북경대회 준비과정에서 성 주류화와 평화문화가 접목되면서부터였다. 북경대회 준비과정에서 성 주류화가 논의의 기본 의제로 됨에 따라 정책과 프로그램에의 성 관점 통합에 미치는 의식의 측면과 연관되는 주제로서 평화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통합적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평화문화는 세계대회과정에서 주요 전략과제로 부상하였다.

### III. 평화문화 전략의 전개

#### 1. 유네스코 주도

유네스코의 평화문화전략이 종합화 된 '1996-2001 중기전략'은 인간안보의 관점에 입각하여 평화문화를 발전 및 평등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발전을 경제성장 등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주변화를 포함한 불평등의 시정, 환경보호 등을 통한 인간안보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활동이 중점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1995년 4월 유네스코는 유엔여성향상국과 협력하여 '평화문화를 향한 여성의 기여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였다. 북경에서 열릴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 회의는 성 관점을 평화문화전략에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회의의 결과는 유네스코가 북경대회에 공식문서로 제출한 '평화문화를 향한 여성의 기여에 관한 성명서'에 반영되었다.

유네스코는 '평화문화 관점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남성성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1997년 9월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개최하였다. 90년대 중반을 통하여 더욱 높아진 폭력문화와 남성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배경으로



유네스코는 평화문화의 관점에서 남성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회의는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남성성의 문화결정론을 평화문화전략에 연결시킴으로써 문화적 접근의 현실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유엔총회는 1999년 10월 6일 평화문화에 관한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A/RES/53/243)을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중기전략 1996-2001’에 입각하여 유네스코가 실행한 ‘평화문화를 향하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화문화 관점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남성성’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평화문화에 대한 정의와 행동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유네스코는 유엔결의 52/15에 따라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로, 2001-2010년을 ‘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문화와 비폭력10년’으로 선포하였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2000년 선언’은 2000년 평화문화의 해 동안 약 7400만명(세계인구의 1%)의 서명을 받았다.

유네스코는 평화문화의 해를 위하여 국가위원회와 조정센타를 설립하고 평화문화10년의 맥락에서 지역과 국제수준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평화문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2.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주도

유엔여성향상국은 1994년 12월 뉴욕에서 ‘성과 평화의제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북경대회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나이로비여성발전미래전략 제1차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권고와 결의가 촉구하고 있는 “여성을 평화와 무장해제와 관련한 국제협상에 대표의 일원으로 포함할 것을 포함하여 갈등해결과 평화과정에 있어 모든 정책결정수준에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회의는 유네스코와 협력 하에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을 도입하였다.

1995년 9월에 열린 북경대회는 여성향상국과 유네스코 전문가회의, 그리고 유네스코가 공식문서로 제출한 성명서를 반영하여 행동강령의 평화의제에 평화문화전략을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나이로비 미래전략에서 채

택된 인간안보의 관점으로부터 세계여성대회 과정은 평화문화로의 전략적 진전을 이룩하였다.

유엔여성향상국은 1996년 10월 산토도밍고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갈등해결: 성 차이의 영향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북경행동강령에 명시된 평화의제의 전략목표와 행동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제41차 연례회의(1997)의 주요관심분야를 ‘권력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여성,’ 제42차 연례회의(1998)의 주요관심분야를 ‘무력갈등과 여성’으로 채택하였다. 산토도밍고 전문가회의는 이들 두 회의를 위한 준비회의로서 열렸으며 회의결과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배경문서로 제출되었다.

#### IV. 평화문화 실현방안에 관한 권고

유네스코와 여성지위위원회에 의한 전략 전개를 통하여 나타난 평화문화 실현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실행을 통해서 이룩될 규범과 관련한 것이다. 평화문화의 당위적 지향구조로서 포괄적 안보, 인권의 존중, 문화의 다양성,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한 발전, 동반자로의 계약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이러한 지향구조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 훈련, 연구, 배포, 매체, 예술분야에서의 구체적 조치가 포함된다. 이 두 가지 범주 중 전자는 문화로부터 변화를 시동하는, 즉 문화를 독립변수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패턴의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구조 결정주의적으로, 구조를 바꿈으로써 문화의 변화를 이룩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정책수단을 도출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자의 범주는 광의의 총체적 관점에 통합되는 것으로서 문화전략과 연계되는 다른 전략적 측면의 전체를 포괄한 것이다. 광의의 관점은 평화문화전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이나 구체적 전략이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타전략부문과 중복되므로 본 논문은 평화문화전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광의적으로 접근하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정책제언에 있어서는 협의의 범주, 즉 문화적 접근의 교육, 훈련, 연구, 매체, 예술분야에 집중한다. 마찬가지로

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데 관련되는 한국의 현황 파악도 협의적으로 다룬다.

## V. 주요 지역활동과 한국의 현황

### 1. 주요 지역활동

1999년 10월 평화문화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과 2000년 평화문화의 해를 계기로 각 지역 차원에서 국제회의가 조직되고 연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활발한 전개를 보였다. 국제회의로는 1999년 아프리카 지역, 2000년 아시아지역에서의 대규모 국제회의, 2001년 남아시아 지역의 분쟁 해결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연구보고서로는 2001년 카리브 지역의 ‘성, 평화, 발전에 관한 지역연구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들 활동은 지역별 조건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엔의 평화문화전략의 지역수준 확산의 성격을 보여준다.

평화문화에 관한 아시아여성회의는 2000년 12월 6-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 세계 35개국 15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회의로서 주요 논의사항은 1) ‘다름’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학습과 방법으로서의 교육, 훈련, 사회화 및 연구 2) 평화구축을 위한 대중매체 및 커뮤니케이션에의 여성 참여 3) 평화구축 및 정치의사결정에의 성 관점 통합을 다루었다. 회의에서는 ‘평화문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하노이선언 및 아시아여성행동계획’을 채택하여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제시하였다.

평화문화에 관한 범 아프리카여성대회는 1999년 5월 17-20일 탄자니아 잔지바에서 개최되어 아프리카 50개국을 비롯하여 비아프리카 10개국을 합한 총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평화문화를 위한 선언 및 아프리카여성의제’를 채택하였다. 여성의제에서는 평화문화와 여성의 완전한 힘의 증진 및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쟁예방, 분쟁조정 및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역할 촉진, 의사결정과정, 민주적 과정에 여성의 참여, 주류 안보쟁점에 성 관점 통합, 여성단체를 평화문화의 배양근거지로 강화, 매체를 통한 성 정형화와 태도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주도적 조치, 조기경보체제 강화 등 평화구축 과정에 적극적 파트너로서 아프리카 여성

정보서비스 참여, 평화문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갈등해결,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혁신적 방법에 관한 모범사례 연구 및 문서화 촉진과 같은 전략목표를 제시하였다.

카리브지역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유네스코의 지역연구프로젝트로 수행되어 2001년 9월 유네스코와 서인도 대학교의 성 및 발전연구센터 공동으로 발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 성, 평화 및 발전에 대한 요구영역의 규명과 전략프로그램의 제안 (2) 연구기관, 대중, 민간 및 NGO 부문의 잠재적 협력파트너 규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착수되었다. 보고서는 카리브 지역 성, 평화, 발전 사업 관련단체의 전략을 ▶ 평화증진 교육활동 ▶ 인권존중 및 촉진 ▶ 국가의 폭력에 대한 캠페인 ▶ 민주주의(과정) ▶ 사회경제적, 정치적 불평등 및 억압 ▶ 민주주의 및 발전에서의 여성참여 ▶ 가정, 성폭력 및 학대 ▶ 무기실험 및 무장 ▶ 갈등중재 및 갭 전쟁 감소 및 예방 ▶ 청소년의 발전 ▶ 국제협력 등의 11개 갈등영역별로 제시하였다.

남아시아의 평화와 갈등해결에 관한 세미나 및 훈련워크숍은 성 관점에서 본 남아시아의 갈등해결을 주제로 하여 2002년 10월 28-30일 유네스코 후원으로 파키스탄 파티마 지나 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 2. 한국의 현황

한국의 평화운동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80년대 말 이후 반전·반핵, 방위비 삭감, 북한여성돕기, 일본군위안부 해결, 남북여성교류, 군사주의 반대 등 여러 쟁점분야에 걸쳐 평화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통일과 연계시킨 평화교육, 갈등해결 및 관용 교육, 평화심성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은 평화문화 구축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수준에서 여성부는 2001년 5월 7-9일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를 주최하였다.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여성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동북아평화구축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평화에 있

어 한반도의 중요성을 천명한 서울여성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2년 7월 1-4일 제2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하고 평화부문의 주제로 ‘생활속의 평화문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네트워크’를 다루었다. 대회는 세계한민족여성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은 평화의식 기초조사로서 2000년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방향』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2003년 4월 17-18일 ‘여성정책의 새로운 비전: 평등, 발전, 평화’를 주제로 창립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4개 주제중 하나로 ‘평화문화와 인간안보’를 다루었다.

## VI. 정책제언

### 1. 여성정책 3대 전략의 보완적 종합

한국의 여성정책은 여성에 국한한 특별프로그램적 WID전략과 이를 성 관점에서 보완하는 GAD적 주류화전략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는데 평화문화는 이 두 가지 정책방향을 모두 보완하는 전략적 효과를 지닌다. WID 전략에 대한 보완은 법적 개혁의 추진이 낳은 법과 현실 간 괴리문제와 연관된다. 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시도는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풍토 속에서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문화적 조건이 변화함으로써만 법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평화문화전략은 한국의 여성정책이 당면한 최대 장애인 ‘법 따로 사람들의 의식 따로’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평화문화는 또한 성 주류화를 보완한다. 뿐만 아니라 성 주류화와 WID적 특별프로그램 방식도 상호보완적이므로 여성정책의 세 가지 전략은 총체적 접근으로 종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상호보완에 의하여 특별프로그램으로서의 여성정책을 통해서 과거 정책의 산물인 성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고 성 주류화를 통해서 현재 정책에서 발생하는 성 불평등의 (재)생산을 방지함으로써 성 평등 속에 여성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문화전략은 궁극적 목표를 향한 이 같은 양대 전략의

제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여성정책의 총체적 효과성을 증대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WID적 특별프로그램에 이어 GAD적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에 평화문화를 추가함으로써 3대 상호보완적 전략의 종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정책평가에의 평화문화 통합

여성정책의 추진을 유인하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는 평가제이다. 유엔 차원에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이 4년에 한번씩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매년 2회에 걸쳐 심의하고 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도 매년 연례회의 시 각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이행을 평가하였고 행정자치부는 1999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여성정책 평가제를 도입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유인책으로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49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행자부의 평가제는 ‘종합’이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 및 항목을 보면 모두가 WID적 여성정책에 국한되어 있다. 즉 여성정책의 3대 전략 중 성 주류화와 평화문화와 관련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2003년도 평가제의 기타 분야의 기타 수범사례 항목에 정책적 노력으로서 성 주류화나 평화문화의 전략적 주도사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의 배점은 총 500점 중 15점에 불과하다. 즉 행자부의 평가제에서 말하는 종합은 WID적 전략 내에서의 다면적 평가를 의미할 뿐이다. 앞으로 여성정책 평가제가 지자체에서 정부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까지를 상정하여 여성정책 평가제는 3대 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평가에 평화문화분야를 통합한다면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의 실시, 평화문화 관련 연구, 배포, 홍보, 매체 및 예술에서의 폭력문화 추방과 평화문화 창조 조치와 같은 평가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여성단체 주도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 지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

## 진흥원 과정에 평화문화 통합

평화문화전략 이행과 관련한 문화적 접근의 구체적 실행분야로서는 교육, 훈련, 연구 및 배포, 매체, 예술 등이 있다. 평화문화는 폭력적 구조를 철폐함으로써, 즉 구조의 전환에 수반하여 형성될 수도 있고, 교육, 훈련, 연구 및 배포, 매체, 예술 등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 속에 직접적으로 주입될 수도 있다. 후자는 평화문화가 먼저 생성되고 변화된 의식에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조가 바뀌는 경우이다. 구조변화를 일차적 표적으로 하는 전략은 문화자체로부터 시동하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즉 문화를 독립변수로 하는 접근과는 다른 것이다. 군비축소, 여성의 힘 증진과 같은 분야에서 구조개혁이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구조에 대한 정면 돌파는 구조에 얽혀 있는 사회주류의 이해관계 때문에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문화전략의 현실적 대안은 구조가 아니라 문화를 독립변수로 하는 우회적 접근에서 찾아져야 한다. 특히 교육 및 훈련은 사회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또 정부의 통제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화적 접근에서 정책상의 우선순위를 점한다.

2000년 평화문화의 해가 선포되고 평화문화10년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실시된 평화문화교육 및 훈련은 일부 여성단체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전부이다. 평화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은 여성에 의하여 담당되어야 한다. 이 같은 논리에서 볼 때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부 산하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의 경우 여성발전기금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당장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여성단체는 국제연대를 진전시켜왔으므로 재정적 뒷받침만 된다면 유네스코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과정을 여성정책의 3대 전략과 관련지어 분류해보면 성 인지 정책 분석과정과 성 인지력 향상과정은 성 주류화, 여성리더십 향상과정과 성희롱, 폭력, 자원봉사, 직업의식 등에 관한 과정은 WID적 여성향상 특별프로그램, 양성평등의식이나 교원에 대한 과정은 문

화적 접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은 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관련되는 세 번째 부분 과정에 보다 집중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성 주류화 과정에서도 성 분석을 전략적으로 보완하는 평화문화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WID적 여성개발 특별프로그램, GAD적 성 주류화 및 평화문화는 성 평등을 향한 3대 보완적 전략을 구성하므로 이들에 대한 이해는 양성평등교육에 토대적 개념체계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ID적 여성향상을 위한 특정 분야라 할지라도 평화문화가 통합된 3대 전략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과정에 통합시키는 이 같은 방안과 함께 평화문화과정을 맞춤교육의 하나로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및 훈련에의 평화문화 통합은 과정뿐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및 훈련대상자는 여성단체의 여성정책담당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실무 담당 및 관련 공무원, 각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회관장, “성희롱예방 교육 강사”로 여성부에서 위촉을 받은 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자원봉사자, 교원 등으로 되어 있다. 평화문화가 과정에 통합되는 경우 이 과정의 대상에는 평화문화 관련 종사자, 예를 들어 교과서 편찬, 매체 및 예술 담당 공무원, 신문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실무자, 군사, 경찰 및 사회교육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4. 매체 및 예술 분야 위원회에의 여성위원 참여와 평화문화 전문성 제고

여성부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참여율은 1998년 6월 말 10%에서 2002년에는 30.1%로 증가하였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은 4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산하 주요 매체 및 예술분야 위원회에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보면 공연윤리위원회 15명 중 8명(53.5%), 방송평가위원회 9명 중 3명(30%)의 경우에는 30% 이상인데 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4명 중 2명(14.3%)에 불과하다. 정부 산하 위원회는 아니지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11명 중 2명(18.1%)에 그치고 있다.

평화문화를 의사결정과정에 통합하는 세력은 남정보다는 통합과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여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매체 및 예술분야에서 폭력문화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3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있지는 않으나 사회의 공기인 신문과 관련되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와 함께 또한 특히 여성위원에게 평화문화관련 연구결과를 배포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여성위원이라고 하여 모두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위원이 평화문화의 관점을 가지도록 여성부는 평화문화전략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특히 신임위원의 경우 평화문화의 관점을 포함한 여성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 5. 연구 및 배포

2003년 9월 현재까지 평화문화와 관련되는 연구로는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방향』이 유일하다. 1989년에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이 탄생하고 90년대 들어서 평화문화가 세계여성대회 과정에 주요 의제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 평화문화가 전략과제의 하나로 천명되었는데도, 2000년 평화문화의 해가 선포된 시점에 와서야 평화운동에 대한 의식조사가 겨우 이루어졌을 뿐이다.

평화문화전략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매체 및 예술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남성성이 폭력문화를 부추기는 측면을 분석해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 편견은 근원적으로 가부장적 남성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교과서 등의 성 효과를 판별해 내는 이 같은 분석은 성 분석의 한 형태로서 교육정책에 성 관점을 통합하는 주류화전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연구결과는 정책제언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육자, 언론인, 방송작가, PD를 포함하는 예술인, 교육, 매체 등 관련 위

원회, 사회교육 기관, NGO, 지역사회 등에 배포되어 평화문화의 전략적 조치 및 홍보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 6. 동북아 평화문화공동체

여성부는 2001년에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의제의 하나로 평화구축을 다룸으로써 동북아 평화를 향한 여성의 노력을 주도한 바 있다. 이 회의는 연례행사로서 기획되었으나 1회에 그치고 말았다. 여성부는 또한 같은 해에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2002년도 연례회의에서는 평화네트워크를 주요 전략과제로 채택하였다. 이들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와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를 ‘동북아 평화문화공동체’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부 지원 하에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여성단체와 평화단체가 주도하고 북한 및 재외동포, 중국, 일본의 여성단체와 평화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여성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엔이 권고한 각종 평화문화사업을 소지역 수준에서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가능하면 창립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4
3. 연구방법 .....	7
II. 평화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9
1. 평화에 대한 이론적 전개 .....	11
가. 평화학의 패러다임 전환 .....	11
나. 전쟁과 성 차이 .....	13
다. 군사안보와 인간안보 .....	20
2. 평화에 대한 문화적 접근 .....	23
가. 폭력문화와 남성성 .....	23
나. 평화문화의 대두 .....	28
다. 평화문화에의 성 관점 통합 .....	32
III. 평화문화전략의 전개 .....	39
1. 유네스코 주도 .....	42
가. 1996-2001 중기전략 .....	42
나. 평화문화를 향한 여성의 기여에 관한 전문가회의 .....	48
다. 평화문화를 향한 여성기여에 관한 성명서 .....	55
라. 평화문화 관점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남성성에 관한 전문가 회의 .....	58
마. 유엔 평화문화에 관한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 .....	66
바. 평화문화의 해와 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문화와 비폭력10년 (2001-2010) .....	76
사. 2000년 선언 .....	77
아. 평화문화 웹사이트(Culture of Peace Website) 운영 .....	78

2.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주도 .....	81
가. 성과 평화의제에 관한 전문가회의 .....	81
나. 북경행동강령 평화의제 .....	84
다.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갈등해결: 성 차이의 영향에 관한 전문가회의 .....	92
IV. 평화문화 실현방안에 대한 권고 .....	95
1. 평화문화의 지향구조 관련 사항 .....	98
가. 포괄적 안보 .....	98
나. 인권 존중 .....	98
다. 문화의 다양성 .....	99
라.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한 발전 .....	100
마. 동반자로의 계약 .....	101
2. 문화적 접근의 구체적 조치 .....	102
가. 교육 및 훈련 .....	102
나. 매체 및 예술 .....	104
다. 연구 및 배포 .....	105
V. 주요 지역활동과 한국의 현황 .....	107
1. 주요 지역활동 .....	109
가. 평화문화에 관한 아시아여성회의 .....	109
나. 평화문화에 관한 범 아프리카여성대회 .....	115
다. 카리브지역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연구 보고서 .....	119
라. 남아시아의 평화와 갈등 해결에 관한 세미나 및 훈련 워크숍 .....	127
2. 한국의 현황 .....	129
가. 반전·반핵 평화운동 .....	130
나. 방위비 삭감운동 .....	132
다. 북한여성돕기 .....	133
라. 일본군위안부해결운동 .....	134
마. 남북여성교류 .....	135
바. 군사주의 반대운동 .....	136

사. 평화교육 .....	137
아. 정부수준 사업과 정책연구 .....	146
VI. 정책제언 .....	149
1. 여성정책 3대 전략의 보완적 종합 .....	151
2. 정책평가에의 평화문화 통합 .....	157
3. 여성단체 주도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 지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과정에 평화문화 통합 .....	165
4. 매체 및 예술분야 위원회에의 여성위원 참여와 평화문화 전문성 제고 .....	169
5. 연구 및 배포 .....	170
6. 동북아 평화문화공동체 .....	171
참고문헌 .....	173

## 표 목 차

<표 II-1> 피난민과 병력 .....	19
<표 V-1> 카리브지역 성, 평화 및 발전관련 단체의 전략 .....	123
<표 V-2> 여성평화아카데미: 2002 평화감수성 훈련 .....	138
<표 V-3> 갈등해결 전문가훈련프로그램 .....	140
<표 V-4> 갈등해결을 통한 민주적 조직운영 워크숍 .....	141
<표 V-5> 갈등중재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숍 .....	142
<표 V-6> 2002년 평화심성 훈련 프로그램 .....	143
<표 V-7> 분단사회에서의 평화교육 .....	146
<표 VI-1>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에서의 콘텐츠 전환 .....	166

## 그 림 목 차

<그림 II-1> 여성국회의원 비율 .....	16
<그림 II-2> HIV/AIDS 사례 폭등 .....	18
<그림 II-3> HIV/AIDS로 인한 기대수명의 손실 .....	18
<그림 II-4> 공공지출부문의 우선순위 (1998/2000) .....	20
<그림 V-1> 평화교육의 전체적 구조 .....	144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평화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는 정책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법과 현실 간 괴리’문제로부터 제기된다. 한국은 80년대 후반 이래 전통사회로부터 내려 온 여성차별적 법 조항을 시정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성 평등을 향한 법적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는 정부, 시민사회와 여성단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여성협력이 다같이 이루어 낸 결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개혁은 불행하게도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풍토 속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 현실 간 괴리라는 이 같은 문제가 보여 주는 것은 문화적 풍토가 변화하지 않는 한 진정한 성 평등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즉 법적 개혁 후에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문화적 장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에 내재하는 갈등의 의식구조를 근본적으로 통합의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 평화문화의 과제가 있다. 개인이거나 집단이거나 갈등은 궁극적으로 통합된 정신상태인 평화문화 속에서 해소된다. 남녀문제도 이에서 예외가 아니다. 평화를 일구어 내는 정신으로서 평화문화는 양성적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 본 연구는 의식변화의 요구와 관련하여 평화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다. 국내 정책연구에서 평화의식에 대한 기초조사 등<sup>1)</sup>은 있으나 평화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으로서는 본 연구가 최초이다.

본 연구는 특히 국제협력의 효과적 수행에 기여한다. 평화를 3대 의제의 하나로 채택한 70년대 이후의 세계여성대회 과정은 북경대회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평화의제를 인간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의 문제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평화문화는 성 주류화와 함께 21세기 여성발전전략

1) 김양희 외(2000),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 방향』,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의 기본축으로 부상하고 있다.<sup>2)</sup> 평화문화가 이와 같이 21세기의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식기반문명과 연관된다. 전통시기나 산업시대에서는 남녀사이의 육체적 조건의 차이가 성 역할에 편견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지식의 힘이 주도하는 정보화문명에서는 지식경쟁의 성 중립성으로 인하여 성 역할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 혁명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마침내 인류문명은 성 차별을 강요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소위 제3의 물결은 구조와 문화의 상호작용에서 후자의 독립변수적 잠재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구조는 육체적 분업의 경직성에서 근원적으로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과거와는 달리 구조는 문화적 접근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같은 맥락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평화문화 프로그램의 현실성을 높이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여성정책이 상당 부분 국제협력체제와의 공동보조 속에서 진전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엔여성활동에서 새로운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평화문화에 대하여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긴요한 의의를 지닌다.

## 2. 연구내용

### 가. 평화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평화에 대한 이론적 전개

평화이론의 배경적 맥락과 전개과정을 개관함으로써 평화의 개념과 평화논의의 쟁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해답을 구한다. 평화학의 탄생은 20세기 후반의 일로서 그것의 패러다임적 전개는 초

---

2) 정순영 외(2001), 『『동북아 여성지도자회의』를 통한 여성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부, pp. 15-29.

점에 있어 전쟁으로부터 폭력으로 광의화 하고 이 같은 광의화는 평화의 개념을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따라 평화이론은 인간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의 제거가 평화실현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제도상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을 본원적으로 문제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 2) 평화에 대한 문화적 접근

평화문화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한다. 첫 번째, 폭력문화와 남성성에 관한 부분은 사회가 남성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격적 남성성이 폭력문화의 주요 요인이며 남성성이 폭력적인 것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폭력에 대한 이 같은 문화결정론이 평화문화전략의 현실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 평화문화의 대두에 관한 부분은 인간안보적 광의의 평화개념을 배경으로 유네스코에 의하여 평화문화의 전략적 개념이 형성된 맥락을 추적한다. 세 번째, 평화문화에의 성 관점 통합에 관한 부분은 세계여성대회 과정이 평화의제를 인간안보의 총체적 접근으로 적극화 함으로써 평화문화전략에 성 관점을 제공한 측면을 분석한다.

## 나. 평화문화전략의 전개

### 1) 유네스코 주도

유엔이 유네스코를 평화문화 전담기구로 지정한 이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전문가회의, 중기전략 1996-2001, 평화문화에 대한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 평화문화의 해 선포, 평화문화10년, 2000년 선언, 평화문화 웹사이트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전개된 전략의 주요내용을 파악한다.

## 2) 여성지위위원회 주도

북경대회를 전후하여 세계여성대회 과정이 전문가회의 및 행동강령을 통하여 성 관점에 평화문화전략을 통합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3) 평화문화 실행방안에 대한 권고사항

유네스코와 여성지위위원회에 의하여 전개된 평화문화전략에서 권고된 실행방안을 당위적 지향구조와 관련한 사항과 문화적 접근의 조치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그리하여 구조가 아니라 문화를 독립변수로 하는 접근으로서 평화문화전략은 후자에 새로운 실행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규명한다.

## 다. 주요 지역활동과 한국의 현황

유엔이 평화문화를 새로운 전략개념으로 도입한 이후 동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 등 지역별로 이루어진 주요 관련활동의 내용을 소개하고 국가수준에서 한국의 현황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 라. 정책제언

평화문화의 이론, 전략, 실행방안을 적실한 한국의 현황에 적용하여 기본 방향과 구체적 사항에 있어 요구되는 정책을 제언한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 및 비교분석

주제에 관한 문헌 연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론 및 전략의 전개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천착해 낸 당위적 요구를 우리의 현실과 적실하게 비교함으로써 정책함의를 도출한다.

####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실무자 심층면담

관련 정부부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학계, NGO,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평화문화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평화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내용, 방법 및 방향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보고서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는다. 또한 그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문헌 및 인터넷자료에 없는 정보를 수집한다.

#### 다. 국제심포지움 개최

한국여성개발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정책의 새로운 비전: 평등, 발전, 평화』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향후 여성정책의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제시할 목적으로 본 과제 연구팀이 조직실무를 담당하고 유엔여성향상국, UNDP,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유네스코, 관련 한국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평화문화와 인간안보,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파트너십과 지구적 공치, 성 주류화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평화문화와 인간안보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서 평화문화활동 및 성 관점 통합을 주도해 온 전문가가 초청되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평

## 8 국제여성발전전략으로서의 평화문화에 관한 연구

화문화의 개념, 평화문화 활동, 평화문화에의 성 관점 통합 등에 관하여 발제하고 이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심포지움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Ⅱ



# 평화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평화에 대한 이론적 전개	11
2. 평화에 대한 문화적 접근	23

## 1. 평화에 대한 이론적 전개

### 가. 평화학의 패러다임 전환

인류역사에서 평화의 문제가 하나의 학문분야로 부상하게 될 만큼 보편적 관심사로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산업혁명 전의 전통시대에서는 전쟁은 국가의 존재목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토지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영토의 확장은 곧 국력의 신장으로 생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복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sup>3)</sup> 평화란 전쟁준비를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 단지 항구적인 전시상태 속의 일시적인 전투중지를 의미할 뿐이었다. 따라서 평화가 그 자체로서 목적가치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토대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독립적 목표로서의 평화는 산업문명 이후에야 사고될 수 있었다. 산업생산력의 혁명적 제고는 평화적 국력신장이라는 대안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이 평화와 정의 함수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전쟁의 영구적 종식은 역사의 필연이라는 전망까지 등장하게 된다. 전쟁은 산업발전과 교역의 심화를 파괴하므로 평화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것이었다.<sup>4)</sup>

이러한 낙관론은 산업의 갈등적 측면을 무시한 것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 전통시대와 산업시대를 비교한 논리로서 나름대로 근거를 지닌 것이었다. 실제로 산업화의 선진단계에서 경제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진전을 보인 유럽통합의 심화는 산업문명의 평화적 발전 논리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의 참화는 장기적인 전망보다 당장의 전쟁방지를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으며 특히 2차대전 후의 핵 공포는 전쟁에 대하여 본원적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

3) Anthony Giddens(1989),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Chapters 11 & 12.

4) Immanuel Kant(1999), "Toward Perpetual Peace(1795)," in Kant, *Practical Philosophy*, Mary J. Gregor,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다. 평화는 이제 모든 것을 떠나서 지구공멸을 막기 위한 초미의 문제로 되었다. 평화학의 태동은 전 후의 이 같은 맥락 속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하였고<sup>5)</sup> 이에 따라 초기 이론은 주로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힘의 관계에 초점이 두어졌다. 세력균형, 세력이행, 분극, 지위의 부정합, 군비경쟁, 억지, 국내와 대외적 폭력의 연계 등 분쟁에 관한 이론은 모두 힘의 분포와 전쟁발발의 상관성을 찾아내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다.<sup>6)</sup>

전쟁의 억제를 관심사로 하는 이와 같은 평화학의 초기 패러다임은 평화를 단순히 전쟁의 부재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1960년대 말 이후 전개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여 제한적인 것으로 비판 받는다. 1960년대의 개도국 독립과 유엔진출을 계기로 부각된 남북갈등, 그리고 베트남 반전과 함께 진행된 신 좌파운동을 배경으로 갈등에 의하여 형성된 구조적 폭력론은 이미 제국주의론이나 종속이론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구조적 갈등의 관점에 입각하여 전쟁이란 폭력은 모든 갈등구조의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평화의 문제는 갈등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유동적일 수 있는 힘의 상황논리에서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폭력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러한 방향에서 구패러다임과 달리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라 폭력의 전면적 철폐라는 광의의 목적의식을 가짐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구현되고 보전되는 진정한 발전을 향한 적극적 개혁의 정신을 내포하였다.<sup>7)</sup>

평화문화의 관념은 평화학에서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과 연관되어 파생하였다. 그것은 광의의 폭력을 문제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폭

5) 김명섭(2002),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p. 135.

6) 臼井久和(1987), “분쟁이론과 분쟁의 해결,”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편, 『평화학 - 이론과 과제』, 이경희 역, 서울: 문우사, pp. 63-72.

7) J. Galtung(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3, pp.167-191; 박주식(1996), “탈현실주의 평화학,” 한국정치학회, 『평화연구: 이론과 실제』(학술회의자료집), pp. 9-10.



력론과 궤를 같이 한다. 즉 논리적으로 그것은 전쟁에서 폭력으로 문제의식을 광의화 한 구조적 폭력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구조적 폭력론에서는 문화는 구조를 반영하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즉 구조가 개혁되면 문화는 그에 수반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 같은 구조결정주의는 육체적 힘을 중심으로 한 전통사회나 산업경제의 분업적 경직성을 전제로 한다.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분업이 경직된 조건 하에서는 문화주도의 변화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평화이론의 진전에서 문화적 접근이 현실적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식기반문명의 도래로 분업에 있어 육체적 힘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이 힘이 되는 소프트웨어문명에서는 농업이나 굴뚝산업이 강요하는 것과 같은 구조경직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전의 독립변수로서 문화는 육체적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sup>8)</sup>

#### 나. 전쟁과 성 차이

평화학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평화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반대만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가 하면 폭력의 부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 관점이 다를 때는 평화의 개념에 대한 보편적 합의란 불가능하다. 즉 평화에 대한 이해는 상이한 관점을 파생시키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수 있는 것이다. 50년대에서 60년대 말로의 맥락과 관점의 변화로 평화학의 이론적 전개는 패러다임을 광의적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평화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평화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부터 이미 제기된다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태가 진정한 평화로 되려면 그것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보편적 정당성이 결여할 때는 통합의 인간관계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평화를 가져 오려면 정당한

8) 분업과 성 역할에 관해서는 Linda J. Nicholson(1986), *Gender and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hapter 4 참조.

합의에 기초한 갈등제거의 전반적 개혁이 요청되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전쟁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폭력을 또한 야기한다. 그러므로 전쟁의 부재는 곧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갈등이 말한 것처럼 광의의 평화는 폭력의 전면적 제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구조적 폭력론을 수용한 나이로비선언이 적절히 규정하듯이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라는 협의의 폭력이 부재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정의, 평등, 모든 범위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향유” 속에서 달성된다.<sup>9)</sup> 즉 그것의 가능성은 갈등을 통합의 정신으로 해소하는 인간관계에서 발견된다. 리어던에 따르면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의지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공동미래, 상호의존적 제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본적 요구, 완전한 인간존엄성과 모든 인권의 향유, 그리고 지구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sup>10)</sup>라는 전면적 통합의 정신세계를 지향한다. 통합의지로서 적극적 평화의 문제의식은 성 쟁점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양성적 통합은 인간관계의 통합에 한 부분으로서 내포되기 때문이다. 즉 평화의 개념이 광의화 하면 성 갈등은 평화논의에서 통합의 쟁점으로 부각된다. 유엔여성활동에서 평화의제는 구조적 폭력론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1985년의 나이로비대회에 와서 통합의 쟁점으로 진전하는데 이는 평화의 성 함의가 광의화 한 데에 따른 것이다.

평화논의에서 폭력구조의 전체가 문제시 되고 그것의 철폐라는 광의적 목적의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통합의지를 고리로 하여 평화에 성 관점이 통합된다. 그러나 구조적 폭력의 문제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평화학의 초기 패러다임 단계에서는 평화에 대한 여성의 관심은 전쟁과 관련한 쟁점에 국한되었다.<sup>11)</sup> 초기 패러다임의 전쟁에 대한 초점으로 인하여 여성활동의 평화의제는 자연히 전쟁을 문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전쟁에의 관심집중으로 초기 패러다임에 바탕한 여성의 평화의제에서 주된 쟁점은 무

9) 한국여성개발원(1986), 『유엔여성10년관련자료집』,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 146.

10) Betty A. Reardon(1993), *Women and Peace: Feminist Visions of Global Security*,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4-5.

11) 위의 책, p. 39.

엇보다도 전쟁에 관련된 활동은 남성이 주도하는데 전쟁이 파생하는 피해는 여성의 경우에 더 막심하다는 사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평화문제에 대한 세계여성대회 과정 초기의 관심을 유발시킨 기본요인이었다. 1975년 이후 유엔여성10년 당시 선언이나 강령의 평화의제를 보면 전쟁을 방지하는 데 있어 여성의 역할증진과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와 관련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12)</sup> 이는 물론 전쟁방지라는 평화학 초기 패러다임의 목적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나 여성의 관심에서는 전쟁에서 여성이 당하는 불공평한 희생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1995년 현재 세계적으로 여성장관은 7%에 불과하며 이들 중에서도 외교부, 국방부, 내무부, 재무부와 같이 막강한 부처를 대표하는 여성장관은 거의 없다. 최고위급 정치권력의 99%는 남성의 손에 있고 세계자원의 99%도 남성의 수중에 있다. 여성의 힘 증진을 강조하는 유엔에서조차 1995년 현재 체제 전반을 통해서 여성은 모든 직위의 28.2%를 차지하고 있을 뿐 이어서<sup>13)</sup> 사무국내 여성지위향상을 위하여 2002년까지 정책결정 및 관리직, 특히 전문직(P-level)이상 직급에서 남녀 비율을 50 : 50으로 할 것을 결의<sup>14)</sup>하고 각 유엔기구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단지 11%에 불과하다(그림 II-1 참조).<sup>15)</sup> 1995년 현재 국가의 최고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나 내각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국가가 세계의 34%나 된다.<sup>16)</sup> 이와 같은 데이터는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주도적 결정권은 전적으로 남성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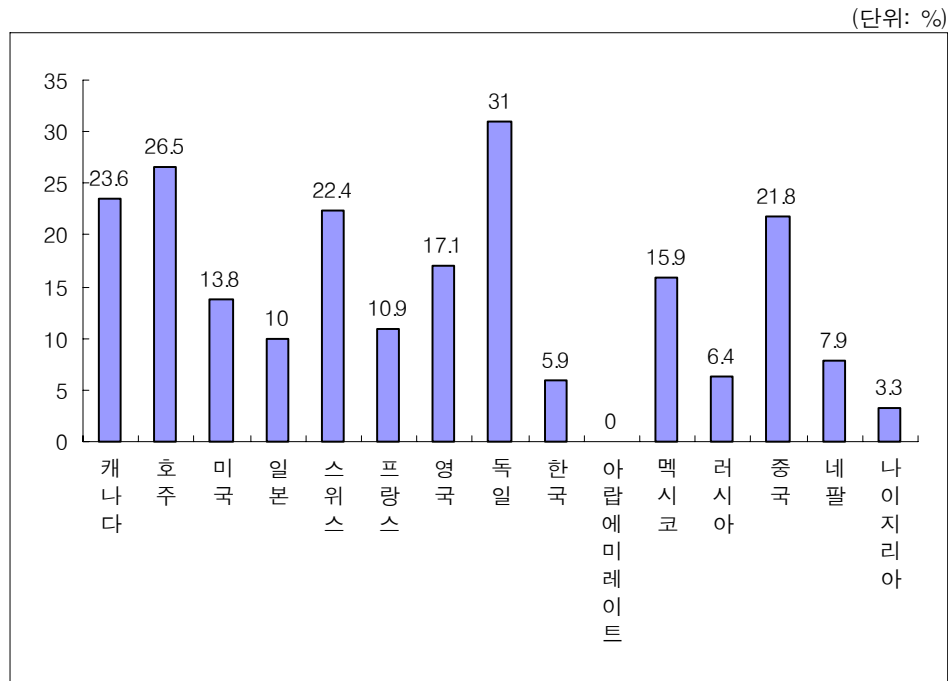
12) 한국여성개발원(1986), 앞의 책, pp. 30, 88-89.

13) UNDP(1995),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38.

14) 유엔총회결의안 A/RES/55/69, [www.un.org/document/resga.htm](http://www.un.org/document/resga.htm).

15) UNDP(2003),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327-329.

16) Ruth L. Sivard(1995), *Women: a World Survey* [2nd Edition], Washington, D. C.: World Priorities, p. 5.



<그림 II-1> 여성국회의원 비율<sup>17)</sup>

정치적 권력부문뿐 아니라 전투와 직결되는 군사활동 분야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1990년대의 현황을 보면 세계군인의 2%만이 여성이며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같이 여성이 군대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남성에 비하여 제한적이다.<sup>18)</sup> 미국에서 1992년 여성 배치위원회(Commission on the Assignment of Women)가 미군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은 직접적인 전투역할을 금지당하고 있었다. 4만 명의 미국여군이 걸프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한 후에야 여성에 대한 이 같은 금지가 완화되어 군함과 잠수함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활동이 허용되었다. 전투와 관련한 제한이 없는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만

17) UNDP(2003), 앞의 책, pp. 327-329.

18) Dan Smith(1997), "Women, War and Peace," a briefing paper for the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PRIO), p. 10.

이 징집된다는 것 외에는 남녀군인은 똑 같이 훈련받고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미국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 경향은 남성은 전투를 위하여 여성은 지원하는 역할을 위하여 훈련받는 것이 보통이다.<sup>19)</sup>

남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전쟁에서 피해는 여성이 더 당한다는 사실은 단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에서 나타난다. 1983년 핀란드에서 개최된 어린이와 전쟁에 관한 국제심포지움(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ldren and War)을 위하여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사상자의 5%가 민간인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50%로 증가하였으며 1983년 현재 그 비율은 80%를 능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20)</sup> 199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100회 이상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20세기 전체로는 1억 명 이상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중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다.<sup>21)</sup> 사망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더욱 더 커지는 것은 강간, HIV/AIDS, 난민 등의 고통이 성 차이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이다. 남성과 달리 갈등상황 하에서 여성의 위치는 성 착취와 같은 폭력에 취약하다. 강간은 종종 교전상태에서 발생하는 통합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비록 남성도 강간을 당할 수 있지만 주로 여성이 강간의 대상이 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무력갈등기간 중 매 100번째의 임신은 강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sup>22)</sup> 그러나 임신으로 연결되지 않은 강간, 유산으로 이어진 강간, 살해와 사망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강간의 수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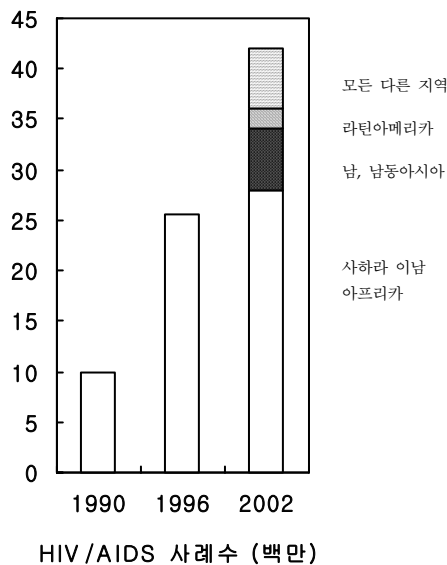
19) Cynthia Enloe(1993), *The Morning After: Sexual Politic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01-227.

20) *UN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83-92, One in Ten*, Vol. 10, Issue 2-3, 1991, p.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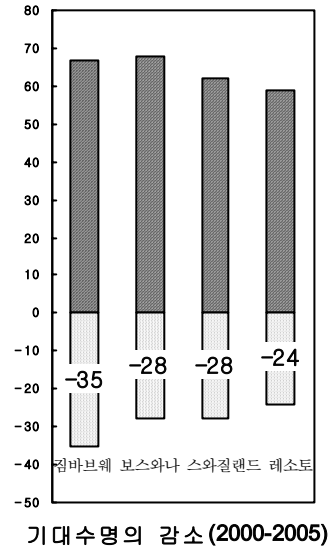
21) Ingeborg Breines, Robert Connell and Ingrid Eide, "Introduction," in Breines, Connell and Eide, ed. (2000), *Male Roles, Masculinities and Violence: A Culture of Peace Perspective*, Paris: UNESCO Publishing, p. 14.

22) Catherine Bonnet(1995), "Rwanda's Time of Rape Return to Haunt Thousands?" *The Observer*(London Weekly, 26 February).

전쟁 과정이 파생하는 가장 심각한 사태 중의 하나는 HIV/AIDS이다. 1980년대에 처음으로 발견된 이 질병은 1990년에 이미 1000만 명이 감염되었다. 2002년 현재 피해자는 4배 이상 증가하여 약 4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질병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만도 2200만 명이 넘으며 이로 인하여 1300만 명이 고아로 남게 되었다. HIV감염은 여성에게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쟁 중에 발생하는 성 폭력이 이러한 사태진전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sup>23)</sup> 전쟁 시 성 착취가 여성의 HIV/AIDS감염 증가를 가져오는 새로운 양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그림 II-2, II-3 참조).



<그림 II-2> HIV/AIDS 사례 폭등<sup>24)</sup>



<그림 II-3> HIV/AIDS로 인한 기대수명의 손실<sup>25)</sup>

난민으로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성 차이적이다. 여성은 난민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의하면 2003년 현재 난민의

23) UNDP(2003), 앞의 책, p. 43.

24) UNDP(2003), 앞의 책, p. 43.

25) 위의 책.

70-80%가 여성과 어린이이다. 난민 중 특히 여성은 경제적, 성적 착취에 남성보다 취약하다. 여성난민은 남성보다 타국으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여성에게 생계의 해결방법은 그들의 몸을 파는 것이다. 여성난민은 또한 가정폭력의 대상이 된다. 남성난민은 가족을 돌볼 수 없고 가족의 일원이 강간, 고문,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난민일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표 II-1 참조).<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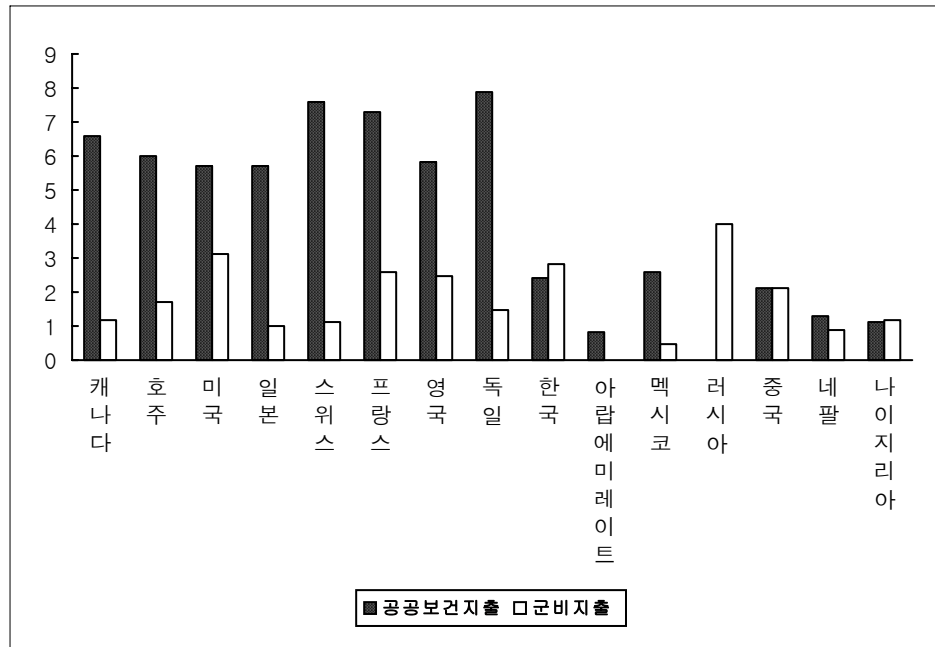
<표 II-1> 피난민과 병력<sup>27)</sup>

	국내 난민 (천)	국제 난민		관습적 무기이동 (1990 가격)				총 군사력	
		난민 수용국 (천)	난민 발생국 (천)	수입 (미화 백만 달러)		수출			
						미화 백만 달러	배당 (%)		
				1992	2002			2002	1998 -2002
	2001	2001	2001	1992	2002	2002	1998 -2002	2001	2001
네델란드		152		143	236	260	1.6	50	47
미국		516		198	346	3941	40.8	1414	66
일본		3		1523	154			240	99
아일랜드		4			20			10	76
영국		149		1166	575	719	5.2	210	63
룩셈부르크		1						1	129
독일		903		969			5.4	296	62
스페인		7		187	132	65	0.3	178	56
러시아	443	18	45	86	170	5941	22.4	988	19
콜롬비아	720		18	32	119			158	239
이란		1868	92	386	298			520	85
베트남		16	353		69			484	47
방글라데시		22	6	63	21			137	150
파키스탄		2199	12	261	1278	8		620	128

26) Anny R. Friedman(1992), "Rape and Domestic Violence: The Experience of Refugee Women?" *Women and Therapy*, vol. 13, no. 1/2, pp. 65-68.

27) UNDP(2003), 앞의 책, pp. 304-307.

전쟁으로 인한 성 차이적 피해는 전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군비지출의 면에서도 발견된다. 군비지출은 성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복지지출을 제한한다. 복지지출의 제한은 성 차별에 따른 여성의 빈곤, 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적 장애요인이 된다. 즉 전쟁준비를 위한 예산지출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그림 II-4 참조).<sup>28)</sup>



<그림 II-4> 공공지출부문의 우선순위 (1998/2000)<sup>29)</sup>

#### 다. 군사안보와 인간안보

전쟁과 관련한 성 차이적 현실은 그 연원이 가부장제에 있으므로 차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 권력 하에서 의사결정은 여성배제적으

28) 한국여성개발원(1986), 앞의 책, p. 77.

29) UNDP(2003), 앞의 책, p. 295.



로 이루어진다. 이로부터 전쟁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은 그들의 성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가부장적 결정권이 존재하는 한 여성은 전쟁이 차별적으로 가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무력할 수밖에 없다. 즉 가부장제 하의 전쟁은 여성차별이라는 성 쟁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인하여 세계여성대회 과정의 초기에서 평화의제의 쟁점은 전쟁의 가부장적 강제에 따른 여성차별적 피해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이로비를 기점으로 평화와 여성의 문제는 전쟁으로부터 통합의 시각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평화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세계여성운동에 반영된 결과였다. 평화학의 초기 패러다임은 전쟁방지를 기본목표로 함으로써 군사안보의 개념에 입각하였다. 전쟁의 방지가 곧 안보라는 관점에서 안보를 군사적으로만 규정한 이 같은 관념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60년대 말의 구조적 폭력론을 계기로 하였다. 인간관계에 있어 제도적 억압을 문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구 패러다임의 군사적 초점을 탈피하여 안보의 관심을 인간으로 전진시켰다. 인간안보로의 이 같은 시야확장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는 보편적 정당성 없이는 진정한 통합의 평화란 없다는 논리의 필연적 귀결에 따른 것이다. 보편적 통합의 평화는 전쟁의 부재만으로써는 달성될 수 없다. 그것은 군사안보적 제한성을 넘어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합을 가져오는 인간안보로 나아감으로써 이룩된다. 평화학의 패러다임 전환은 안보개념의 초점에 있어 이와 같은 군사에서 인간으로의 지평확대를 토대로 하였으며 인간안보의 관점은 평화에 대한 관념을 광의화 함으로써 세계여성대회 과정에서 평화의제의 쟁점을 전쟁의 여성차별성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적극적 평화를 통한 양성적 통합의 방향으로 진전시켰다.<sup>30)</sup>

전쟁의 방지를 활동의 3대 기본목적 중 첫 번째로 선언한 유엔헌장의 서문이 보여 주듯이 전 후 평화에 대한 초기 관심은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화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평화는 곧 전쟁의 부재로 통하였고 전쟁의 부재로서 정의된 평화는 무력적 측

30) 정순영 외(2001), 앞의 책, p. 22.

면에서 군사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여기에서 군사안보란 당시 국제관계이론을 지배하던 현실주의의 영향으로 무력수단을 가지고 무력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군사안보라는 이러한 협의의 소극적 평화 개념은 힘의 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억지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므로 군사안보에서 평화는 당면할 수도 있는 어떤 군사적 위협을 반격하는 수단을 가진 상태, 즉 높은 수준의 군사적 방위를 가진 상태로 규정되었다.<sup>31)</sup>

군사안보는 무력에 의한 평화임으로 해서 부당한 세력에 의한 힘의 평화와 같은 경우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보편적 정당성에 토대를 둔 진정한 통합의 평화와는 괴리가 있다. 그것은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현상유지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기만 하면 평화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문제의식에 머문다는 점에서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전쟁은 인간이 개입된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폭력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하지 않은 수단에 의해서라도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차선의 논리로서 합리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적 사회생활에서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은 전쟁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쟁보다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고통은 군사안보와는 무관한 것이며 무력적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으로 물리력이 행사되는 무력적 경우와 달리 제도를 통한 억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억압적 사회경제구조는 인간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 빈곤, 기아, 질병, 문맹, 실업 등과 같이 인간의 삶을 저해하는 요인은 갈등을 촉발하기도 하지만 전쟁의 경우와 같이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갈등에 따르면 사실에 있어 그것은 제도적 편견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더욱이 이 같은 구조적 폭력은 체제의 정상적 운용 속에 은폐됨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뚜렷이

31) Maria Stern(1991), *Security Policy in Transition*, Stockholm: Padriger, pp. 26-28.

쟁점화 하지 않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sup>32)</sup>

인간안보는 사회의 제도적 편견에 의한 폭력을 폐기함으로써 실현된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구조적 억압을 극복하려는 건설적 지향성을 지닌다. 안보는 소극적으로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전쟁의 억지로써 성립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인간적 삶을 창조하는 광의의 평화적 조건을 정립한다. 스텐의 말대로 “소극적 평화와 소극적 안보는 파괴적인 본질을 억제하려는 열망에 의존하는 반면에 적극적 평화는 건설적인 본질을 창조하려는 열망을 갖게 한다.”<sup>33)</sup> 평화의 문제를 단순히 전쟁에 국한시켜 보지 않고 인간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 범주를 총체화 하고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근원적 제거를 겨냥하는 인간안보적 평화는 발전의제에 통합되어 1994년 UNDP가 발행한 『인간개발보고서 1994』에서 “인간이 안전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환경”으로 정의되었다<sup>34)</sup>.

## 2. 평화에 대한 문화적 접근

### 가. 폭력문화와 남성성

구조적 폭력론은 평화를 인간안보적 통합의 쟁점으로 만든다. 인간안보의 관념에 의하여 평화가 제도적 억압의 문제와 연관되면서 성 갈등은 통합의 평화의제로서 인식된다. 인간안보의 관점이 나이로비에서 유엔여성활동의 평화의제에 통합된 것은 평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나이로비는 평화에 대한 유엔의 사고를 광의화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이 유엔체제 내에서 태동하도록 만든

32) Johan Galtung(1971),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reprinted in (1980), *Essays in Peace Research*, Volume IV, Copenhagen: Christian Eagers, pp. 437-481.

33) Stern(1991), 앞의 책, pp. 27-28.

34) UNDP(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2.

배경이 되었다. 즉 평화가 문화적 접근의 유엔 의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1985년의 나이로비대회에서 적극적 평화개념이 여성의 노력에 의하여 유엔체제 내에 도입된 맥락과 관련되었다. 80년대 말 베를린 장벽 붕괴 등 냉전종식의 분위기 속에서 유네스코 주도로 평화를 향한 문화적 접근이 시동하였는데 여기에서 평화와 문화가 하나의 전략적 관점으로 접합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안보의 관점을 매개로 한 데에서 가능하였다. 평화의 문제는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광의적으로 이해할 때 보다 선명하게 문화적 시각에서 파악된다. 전쟁만을 문제 삼는 경우 평화는 무력의 쟁점으로 협의화 되기 쉽다.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은 직접적으로는 나이로비를 계기로 높아진 인간안보의 문제의식을 문화사업과 연결시킨 유네스코의 프로젝트 속에서 탄생하였다. 즉 인간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문제의식은 구조의 대칭개념으로서 문화를 폭력의 반대인 평화와 연결시키는 관념을 형성시킨 것이다. 그러나 평화의 문화적 측면은 구조결정론의 사고가 지배하는 가운데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80년대 말에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이 유엔체제 내에 도입되었지만<sup>35)</sup> 유네스코 프로그램이 본격화 한 것은 90년대 후반기 들어서였다. 유네스코사업의 적극화를 가져 오는 데 있어 평화의 문화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고의 변화를 초래한 주요한 이론적 영향은 폭력적 남성성의 문화결정론에서 발견된다.

구조적 폭력론은 70년대와 80년대 전반을 통하여 성 문제에 적용되었다. 구조적 폭력의 성적 측면을 다룬 일련의 연구는 나이로비로 가는 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였다. 성 관점으로부터 이들 연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구조적 폭력의 주요 부분으로서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관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sup>36)</sup> 이들 연구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가부

35) 평화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페루에서 개발된 한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으로서 사용된 바 있다. 그것은 유네스코 내에서 인간안보적 광의의 평화와 문화사업을 연결하는 전략구상이 형성될 때 유용하게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www.unesco.org/cp](http://www.unesco.org/cp).

36) Susan Brownmiller(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Penguin Books; C. Spretnak(1983), "Naming the Cultural Forces That Push Us Toward War,"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Summer); 그리고 Betty A. Reardon(1985), *Sexism and the War Syste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장적 성 이데올로기는 갈등의 원인을 폭력적인 행위로 바꾸어 놓는다. 그런데 이는 폭력적인 제도가 남성의 수중에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즉 구조적 폭력은 성 폭력을 조장하며 이러한 기제는 가부장제 하의 성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sup>37)</sup> 예컨대 비록 가정 내에서 여성에 의한 폭력도 존재하지만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폭력의 한 형태로서 여성이 남성에 의하여 강제로 성 관계를 가진 경험은 남성의 6배에 달한다.<sup>38)</sup>

성과 폭력에 대한 이러한 7, 80년대의 연구는 90년대에 본격화 한 폭력적 남성성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탕이 된다. 평화의 문제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이론적 배경은 폭력적 남성성이 생물학적 원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폭력의 문화결정론이라 할 수 있는 이 같은 관점은 폭력의 원인으로서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그것은 평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 문화를 독립변수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통적인 남성성은 폭력성을 띤다. 1980년부터 1994년에 걸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 총기산업체가 여성도 총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총기소지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4배가 높았고 미국 남성의 40%가 총기를 소지하였으며 살인의 91%가 남성에 의하여 자행되었다.<sup>39)</sup> 폭력적 남성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강탈, 빈곤, 탐욕, 국가주의, 인종주의, 환경파괴와 같은 다양한 폭력은 공격성을 남성에게 ‘자연스러운 것,’ 즉 남성성으로 규정 짓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다. 공격적인 남성성은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sup>40)</sup> 전통적인 생물학적 본질주의는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며 이는 남성호르몬

37) Reardon(1993), 앞의 책, p. 41.

38) Robert Connell(2000), "Arms and the Man: Using the New Research on Masculinity to Understand Violence and Promote Peace in the Contemporary World," Breines 외 (2000), 앞의 책, p. 22.

39) 위의 논문, p. 21.

40) 위의 논문, p. 22.

에 의한 것으로 변화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폭력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이러한 본질주의가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sup>41)</sup> 폭력적 남성성은 남성호르몬의 수준과 관련 없으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생산된다는 문화결정론이 대두하였다. 폭력성이 생물학적 본성이 아니라 문화적 생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은 모든 남성이 다 폭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입증된다. 대부분의 살인자가 남성이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살인은커녕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sup>42)</sup> 폭력성의 원천은 제도화된 문화적 생산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조직적인 군사문화는 대단히 성 편견적이다. 독일<sup>43)</sup>과 미국<sup>44)</sup>에서 실시된 사회조사에 따르면 군사조직은 폭력적 남성성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강력한 노력을 기울인다. 마찬가지로 운동조직에서도 특별한 형태의 남성성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다.<sup>45)</sup> 즉 남성성은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sup>46)</sup>

남성성의 문화적 생산론은 초기에 사회화에 있어 성 역할에 주목하였다. 성 역할이론에 따르면 소년은 남성적이게 사회화 된다. 소년은 성 역할의 사회화과정에서 가정, 학교, 매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고정화 된 남성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화 된 남성역할에 의한 결정론은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불평등, 권력, 다양성, 변화과정 등과 관련한 문화적 개입

41) 1986년 전 세계로부터 온 과학자들은 폭력에 대한 세빌성명서(the Seville Statement on Violence)를 통하여 폭력은 생물학적으로 숙명 지워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고 밝혔다. [www.unesco.org/cpp/uk/declarations/seville.pdf](http://www.unesco.org/cpp/uk/declarations/seville.pdf). 또한 Spretnak(1983), 앞의 논문 참조.

42) Theodore Kemper(1990), *Social Structure and Testosteron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p. 22.

43) Ruth Seifert(1993), "War and Peace: A Preliminary Analysis?" in Alexandria Stiglmeier, ed., *Mass Rape: The War Against Women in Bosnia-Herzegovina*, Lincoln, N. 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p. 54-62.

44) Frank J. Barrett(1996), "The Organizational Construc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The Case of the U. S. Navy,"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Vol. 3, No. 3, pp. 129-142.

45) Robert Morrell(1994), "Boys, Gangs, and the Making of Masculinity in the White Secondary Schools of Natal, 1880-1930," *Masculinities*, Vol. 2, No. 2, pp. 56-82.

46) Connell(2000), 앞의 논문, p. 23.

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성성에 대한 이론은 문화적 결정요인을 사회제도와 인간관계의 총체 속에서 인식하는 방향으로 진전하였다.<sup>47)</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성성은 총체적 문화의 성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폭력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가부장주의는 남성의 폭력성을 부추긴다. 즉 성 문화는 폭력문화의 한 요인으로서 남성성을 생산하는 것이다.

코넬은 남성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종합하여 남성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성의 생산이 단순히 고정화 된 성 역할의 사회화로써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문화의 총체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상이한 문화와 상이한 역사의 시점은 상이한 성을 만든다. 다문화사회에서는 남성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비록 같이 주어진 문화나 학교나 직장 같은 단일 기구 안에서도 하나 이상의 남성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형태의 남성성은 상이성으로 말미암은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 상이한 남성성은 지배와 피지배와 같이 서로가 분명히 다른 입장에 있을 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형태의 남성성이 성 권력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적인 형태가 남성성의 공통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 많은 수의 남성과 소년이 지배적인 남성성과 분리, 긴장,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남성그룹은 성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개인적인 자극을 받지 않지만 다른 그룹은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동기를 지닐 수 있다.
- 남성성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제도, 대중매체와 같은 집단적인 형태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남성성의 제도화는 기업, 직장, 자발적 조직, 국가와 같은 공동의 차원과 틀 속에서 진행된다.

47) Myra Marx Ferreze, Judith Lorber, and Beth B. Hess, ed.(1998), *Revisioning Gender*, Thousand Oaks: Sage.

- 남성의 신체가 남성성의 형태를 고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체는 남성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끊임없이 신체적 경험, 신체적 즐거움, 신체의 취약성 등과 연결된다. 남성성의 정체는 너무 ‘머리’에 비중을 두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건강, 운동, 생물학적 성 등은 남성성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이다.
- 남성성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성성은 주어진 환경에서 가능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남성성이 생산되어진 마지막 상태보다는 남성성을 생산해 나가는 과정이 폭력의 근원일지도 모른다. 남성적인 폭력의 형태가 고정된 것은 없으며 사회적인 개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성 개혁이 전복되고 더 폭력적인 형태의 남성성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 남성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으로 분화 되어 있다. 남성의 삶은 종종 욕망과 실천 간에 상반되는 긴장 속에서 구체화 한다. 어떠한 형태의 남성성도 변화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남성집단도 복잡하고 모순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좀 더 평화적인 성 형태를 향한 변화를 지지할 수 있다.
- 남성성은 특별한 역사적 환경의 산물이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힘은 사회적 조건과 성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성 관계 내에서의 상반되는 작용도 포함한다. 남성성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학습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어떠한 의제도 특정집단의 기대와 상반되거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48)

#### 나. 평화문화의 대두

평화문화는 유네스코가 1980년대 말 냉전해체라는 급진적 사태로 평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미 세계여성대회과정을 통하여 유엔

48) Connell(2000), 앞의 논문, p. 25.



체제 내에 수용된 평화의 광의적 목적을 문화사업과 연관시키면서 생성된 전략개념이다. 그리고 그것의 독립변수적 현실성이 제고된 것은 폭력적 남성성의 문화결정론으로부터 영향 받은 바 컸다. 평화문화를 부상시킨 직접적인 맥락은 이와 같이 유네스코주도와 90년대 이론전개에 있지만 그것의 보다 근원적 배경은 평화학이 전쟁의 방지라는 문제의식에 그치지 않고 인간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폭력의 제거에 목적을 두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폭력의 전면적 철폐라는 광의의 목적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통합의 정신세계로서 평화문화적 측면의 문제의식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은 1989년 유네스코 주도로 코티브아에서 열린 인간정신에서의 평화에 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Peace in the Minds of Men)에서 공식 도입되었고 이 회의가 유네스코에 평화문화의 과제 수행을 위임함에 따라 이 후 유엔체제 내에서 평화문화 프로그램은 유네스코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평화문화에 대한 정의는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중기전략(1996-2001)에서 제시된 기본관념에 입각하여 평화문화를 향한 범부문적 프로젝트(Transdisciplinary Project toward a Culture of Peace)의 일환으로 작성되어 1999년의 유엔총회결의안으로 채택된 평화문화에 대한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n a Culture of Peace)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종합화 되었다.

평화문화의 대두는 전쟁의 재앙을 막기 위한 데 우선적 목표가 있었던 유엔의 기본임무를 폭력의 전면적 철폐라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유엔의 결의안은 평화문화를 발전에서 폭력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폭력을 거부하고 개인, 집단 및 국가 간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적 대화를 통하여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이룩하는 가치, 태도, 행동양식, 생활방식의 총 집산으로 정의하고 있다.<sup>49)</sup> 평화문화에 대한 이러한 유엔의 정의는 구조적 폭력론이 제기한 광의의 평화를 향한 인간안보적

49) 유엔총회결의안 A/RES/53/243, [www.un.org/document/resga.htm](http://www.un.org/document/resga.htm).

관점과 개혁의지를 반영한다. 평화문화를 향한 개혁과정은 유네스코 사무총장 페데리코 마이어의 말대로 인간안보로 가기 위한 “힘과 공포의 논리로부터 이성과 사랑의 힘으로 탈바꿈하는 과도기”<sup>50)</sup> 라고 할 수 있다.

총회 결의안을 비롯한 유엔의 주요 관련 문서에 의하면 평화문화전략은 기본목적을 대화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폭력을 대신하고 문화간의 이해와 유대가 적대를 대신하고 정보의 공유와 자유로운 유통이 비밀을 대신하고 파트너십과 여성의 완전한 힘의 증진이 남성의 지배를 대신하도록 만드는데 두고 있으며 이로부터 어떻게 엄청난 폭력과 복지비용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차이를 있게 하는 평화문화의 주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폭력문화로부터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 어떻게 상호적 관용의 가치를 배울 것인가, 어떻게 어린이를 협력하고, 나누고 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진정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배우게 할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그리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공격적인 행동과 반사작용, 매체를 통한 폭력의 만연화, 고정화된 적대 이미지의 사용, 역사교육의 전쟁영웅 찬사 등과 같은 것을 문제의 대상으로 삼으며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일상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차별관행과 파괴적인 생산, 매매춘 및 무기와 마약의 사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만 기반을 둔 현재의 개발개념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같은 폭력성, 안보를 군사력과 동일시하여 인간안보 대신에 군사력의 증강을 우선시 하는 일련의 관념에 도전하며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국가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부와 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경제사회적 박탈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sup>51)</sup>

유네스코 주도에 의한 평화문화 프로젝트의 부상을 목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52)</sup>

50) Ingeborg Breines(1999), "A Gender Perspective on a Culture of Peace," in Breines, Dorota Gierycz and Betty Reardon ed., *Towards a Women's Agenda for a Culture of Peace*, Paris: UNESCO Publishing, p. 34.

51) Breines(1999), 앞의 논문, p. 35.

52) <http://www.unesco.org/cp>.

새로운 개념의 전개: 평화문화	
1989	평화문화의 개념이 코티브아에서 개최된 ‘인간정신에서의 평화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공식화 됨. 회의는 유네스코로 하여금 생명, 자유, 정의, 유대, 관용, 인권의 존중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및 남녀 간의 평등에 기초한 평화문화를 개발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일을 지원하도록 함. 이러한 주도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과 냉전의 긴장이 사라진 것에 영향을 받은 국제적인 맥락에 뿌리를 둠.
1992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유엔평화유지활동 노력에 대한 기여로서 평화문화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유엔 총회에 요청함. 이와 함께 또한 갈등 후 평화구축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몇 나라와 필리핀에서 평화문화 국가프로그램이 착수됨.
1994	엘살바도르의 산 살바도르에서 제1차 평화문화에 관한 국제포럼이 개최됨.
1995	제2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1996-2001년(28 C/4)을 위한 중기전략에서 평화문화의 개념을 소개함.
1996-2001	유네스코 프로젝트, ‘평화문화를 향하여’(Towards a Culture of Peace)가 28 C/4문서에 따라 이행됨. 비정부기구, 협회, 청소년과 성인, 매체네트워크, 지역방송과 평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종교지도자, 비폭력과 관용 관련 단체 등이 이 프로젝트에 따라 세계평화문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함.
1997	평화문화에 대한 유네스코 경험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유엔은 제52차 총회에서 ‘평화문화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별도의제를 도입함. 총회는 또한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로 선포할 것을 요청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임.
1998	제53차 유엔총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제안에 기초하여 2001-2010년을 ‘세계아동을 위한 평화문화와 비폭력 10년’으로 선포함(결의 A/53/25).

새로운 개념의 전개: 평화문화	
1999	유엔총회는 평화문화에 대한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결의A/53/243)을 채택하고 평화문화와 비폭력의 개념을 통하여 하나의 일관된 접근으로 연결된 8개의 행동부문을 규정함.
2000	유엔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바와 같이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로 정하고 유네스코를 거점기구로 지명함. 세계평화문화의 해의 결과는 수천의 국가와 지역단체, 7천5백만 이상의 개인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들, 유네스코 현지사무소와 200개의 국제NGO들을 개입시킨 세계적인 운동의 출현임.

#### 다. 평화문화에의 성 관점 통합

평화문화에서는 인간안보의 실현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폭력적 갈등이 근본적으로 극복된다. 평화문화의 증서와도 같은 인간안보는 인간 사이에 어떠한 부당성도 용납하지 않는다. 근원적으로 구조적 폭력은 권력이 공유되지 않은 데서 오는 부당한 배제로부터 야기된다. 평화문화는 따라서 무엇보다도 평등권력에 기반한 인간안보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것은 정당성의 포용을 통한 보편적 통합의 정신을 발현한다. 그러므로 양성적 통합의 정신을 실현하는 성 평등은 평화문화에 내포되는 목표로 된다.

성 관점은 성 역할의 견지에서 쟁점사항을 보도록 만든다. 이에 따라 그것은 성 쟁점과 관련하여 가부장적 성 역할이 인간안보를 부정하는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평가를 가하고 이로써 양성적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설적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한다. 브레인즈 등은 평화문화가 바로 그러한 목표이며 성 관점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와 가능성 모두를 조명한다고 말한다.<sup>53)</sup> 1995년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평화문화의 성적 측면에 대한 지침문서라고 할 수 있는 평화문화를 향한 여성의 기여에 관한

53) Ingeborg Breines, Gierycz and Reardon, "Introduction," in Breines 외(1999) ed., 앞의 책, p. 10.

성명서(Statement on Women's Contribution to a Culture of Peace)<sup>54)</sup>는 평등·발전·평화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발전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평등 없이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총체적 사고에 입각하여 평화문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 성 평등의 통합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발전의 총체적 맥락 속에서 성 관점을 평화문화에 통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는 소극적 개념의 군사안보로 규정되는 한, 즉 국가간의 군사적 문제로만 인식되는 한 그 자체의 논리로써 성 관점과 연관 지워지기는 어렵다. 평화가 세계여성대회 과정의 등장과 함께 유엔여성활동의 의제로 편입된 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유엔의 기본의제인 평화의 문제를 유엔여성활동에서도 다루어야 한다는 논리에서였다. 1970년 대 '유엔여성10년'과 함께 세계여성대회 과정이 시발된 당시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유엔개발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Development)이 제 2차로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신생독립국의 대거 유엔 진입과 함께 등장한 이와 같은 발전의 쟁점이 여성지위위원회로 하여금 여성과 발전의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 배경이었다. 이러한 배경적 맥락에 따라 세계여성대회 과정의 의제에 대한 당초 구상에는 평등과 발전만이 포함되었었다. 평화는 여성의 해와 세계여성대회를 논의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 유엔총회대표의 제안이 수용되어 평등과 발전에 뒤이어 의제에 추가되었다.<sup>55)</sup> 발전을 중심으로 한 초기의 관심으로 인하여 비록 평화가 평등 및 발전과 더불어 세계여성대회과정의 3대 의제에 포함되었었지만 유엔여성10년이 끝난 1985년 나이로비대회까지는 유엔여성활동의 우선순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평화에 대한 관심은 나이로비대회에서 NGO가 중심이 되어 평화천막을 만들고 평화를 인간안보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본격화 하였다.

54) <http://www.unesco.org/cpp/uk/declarations/wcpbei.htm>.

55) The United Nations(1996), *The United Nations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6*, New York: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p. 33.

평화는 1975년 세계여성대회 과정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는 유엔여성활동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전쟁에 관한 문제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여성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세계여성대회 과정의 출범과 함께 3대 의제 중 마지막으로 추가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나이로비 전까지는 평화는 군사안보의 차원에서 주로 인식됨으로 해서 광의의 인간안보와 연계되지 않았다. 이미 1960년대 말 이후 갈통등에 의하여 구조적 폭력의 철폐를 지향하는 광의의 평화개념이 제시되었지만 1975년의 멕시코 세계여성 행동계획은 군사적 관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목적과 관련해서는 “평화를 유지, 강화하는 기본적 조건은 국가간이나 국내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동등한 조건으로 보호하고 키워주는 것이다”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sup>56)</sup> 인권의 동등한 보호와 육성은 인간의 평등한 실현을 의미하므로 이 언급은 인간안보가 평화의 전제조건임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행동계획은 이 같은 간단한 함의적 언급에 그치고 주로 무력갈등을 극복하기위한 국제평화구축에의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였다.<sup>57)</sup>

1980년의 코펜하겐 행동프로그램은 33항에서 “UN헌장 하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평화스럽게 살 권리를 염두에 두고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고”<sup>58)</sup>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기본적 조건”이라는 말이 빠져서 이는 멕시코 행동계획보다 오히려 인권과 평화를 연결시키는 함의에 있어서 약화를 의미하였다. 코펜하겐 행동프로그램은 “유엔여성10년의 세 가지 주요 목표 - 평등·발전·평화 - 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59)</sup>는 관점으로 나아감으로써 평화와 여성의 연관에 대하여 보다 총체적인 입장을 취하나 이 또한 국가 간의 군사적 폭력에 초점이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여실히 보여 준다.

56) 한국여성개발원(1986), 앞의 책, p. 30.

57) 위의 책, p. 13.

58) 위의 책, p. 77.

59) 위의 책.

세계평화 및 국제안보, 외국의 간섭, 침략, 군사적 점령에 대한 투쟁, 국가의 독립과 주권의 존중, 군비경쟁의 억제, 전반적인 완전 무장해제 및 군비 축소의 목표 달성, 긴장완화의 성취,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확립, 행동을 기초로 한 국가간의 증진된 협력확보는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여성의 상황에도 진보를 가져 올 것이다.<sup>60)</sup>

코펜하겐 대회에서도 멕시코의 경우에서처럼 인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군사안보 차원의 국제평화구축에의 여성의 참여가 주된 강조점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국제관계에서의 긴장완화와 무장해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 국제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투쟁에 전 세계의 여성들은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식민주의, 신 식민주의, 인종차별, 남아프리카의 인종분리정책, 외국통치, 외국의 압박, 외국의 점령 등을 반대하는 투쟁에도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61)</sup> 이와 같이 코펜하겐까지 평화의제는 그 초점이 군사적 측면의 국제관계에 두어졌으며, 이에 따른 협의의 개념으로 인하여 평화를 성 관점으로부터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세계여성대회 과정에서 구조적 폭력론이 반영되어 평화에 성 관점이 통합된 것은 1985년의 나이로비대회에서였다. 나이로비 미래전략에 광의의 적극적 인간안보 시각이 도입된 것은 구조적 폭력론과 이를 성적 측면에 적용한 7, 80년대의 이론적 진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NGO포럼에 의한 평화천막의 상징적 및 내용적 성공에 힘입은 바가 컸다.<sup>62)</sup> 나이로비 미래전략은 평화를 단순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쟁의 부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야기하는 근원인 가난, 부정의, 불평등, 인권유린, 착취적 억압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여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폭력의 제거, 즉 인간안보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60) 위의 책, p. 77.

61) 위의 책, p. 88.

62) Breines 외(1999), "Introduction," p. 10.

평화달성을 위해서는 무력사용 및 위협, 침공, 군사적 점령, 내정간섭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철저한 인권의 대량유린 및 기본자유와 유린을 철폐시켜야 하며 지배, 차별, 억압, 착취 등을 일소해야 한다 [ , ... ] 또한 안전보장에 대하여 보여 주는 모든 관심과 활동은 평화를 바라는 뜻의 표현이고 국가, 개인, 사회집단 관계에 함유되어 있는 신임도 평화라는 범주에 포함된다. 평화란 타인에 대한 선의를 의미하고 한 국민이나 개인의 유, 기본권리, 존엄성을 옹호하는 한편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경제적 불평등, 성적 불평등, 인간의 기본권리 및 근본 자유의 박탈, 대중에 대한 의도적 경제착취, 국가간의 불균형한 발전 및 착취를 일삼는 경제체제와 같은 여건 아래에서 평화는 이룩될 수 없다. 평화와 발전은 상관 관계에 놓여 있고 상호보완적이다. <sup>63)</sup>

인간안보의 개념에서는 평화는 다른 모든 폭력과 함께 성 폭력의 해소를 의미하므로 평화의제는 성 평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나이로비 미래전략은 “모든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구타, 부상, 화상, 성적인 학대 및 강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평화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 국가기구 설치 등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고, <sup>64)</sup> 폭력의 제거는 한편 평등의 조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한 국가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자체가 또 다른 불평등을 가져 오고 따라서 모든 유형의 사회긴장을 조성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sup>65)</sup>

1985년의 나이로비 미래전략에서 채택된 인간안보의 관점은 평화에 성 관점을 통합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배경 때문에 1989년 유네스코가 나이로비적 관념을 토대로 평화를 문화와 연결시켰을 때는 이미 그 속에 성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나이로비적 맥락으로 인하여 평화문화는 성

63) 한국여성개발원(1986), 앞의 책, p. 146.

64) 위의 책, p. 194.

65) 위의 책, pp. 145-146.



관점을 통합한 형태로 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간안보의 관점은 소련해체를 계기로 1992년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평화의제(An Agenda for Peace)를 통하여 전 유엔차원에서 공식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평화와 안보의 구축은 군사적 위협의 해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광의의 의미에서 경제적 절망, 사회 부정의, 정치적 억압과 같은 폭력의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는 인간안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66)</sup> 평화문화에의 성 관점 통합은 유네스코의 태생적 관념에 내재한 것이지만 이와 같이 인간안보가 유엔 전반적으로 강조되는 분위기 하에서, 인간안보적 평화를 통한 성 갈등의 근본적 해소라는 나이로비적 전략사고를 매개로 하여 북경대회 준비과정에서 성 주류화와 평화문화가 접목되면서 보다 확실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북경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성 관점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성 주류화전략을 채택한 데 있다. 북경대회 준비과정에서 성 주류화가 논의의 기본 의제로 됨에 따라 정책과 프로그램에의 성 관점 통합에 미치는 의식의 측면과 연관되는 주제로서 평화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통합적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평화문화는 세계여성대회과정에서 주요 전략과제로 부상하였다.

냉전종식 후 광의의 적극적 안보개념에 대한 설득력이 ‘평화의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높아진 가운데 북경대회를 앞두고 유엔여성향상국과 유네스코는 상호협력 하에 각각 평화를 주제로 전문가회의를 조직하였다. 유엔여성향상국이 조직한 회의는 1994년 12월 성과 평화의제(Gender and the Agenda for Peace)라는 주제로 뉴욕 본부에서, 그리고 유네스코의 경우 1995년 4월 마닐라에서 평화문화에 대한 여성의 기여(Women's Contribution to a Culture of Peace)를 주제로 열렸다. 세계여성대회 과정에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이 도입된 것은 이들 준비회의를 통해서였다. 이들 회의의 결과는

66) UNESCO(1992), "An Agenda for Peace -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pursuant to the statement adopted by the Summit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S/23500) on January 1992, in Breines 외 (1999), 앞의 책, pp. 241-241.

유네스코가 북경대회에 제출한 ‘평화문화에 대한 여성의 기여에 관한 성명서’를 통하여 북경행동강령의 전략 목표 E.4: ‘평화문화 증진에 대한 여성의 기여 촉진’에 반영되었다.<sup>67)</sup> 그리하여 북경행동강령은 유네스코 바깥에서 평화문화 개념을 사용한 최초의 유엔문서가 되었다.<sup>68)</sup> 북경행동강령은 평화의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여성과 무력분쟁’의 두 가지 주제로 나누고 후자에 평화문화를 포함시키고 있다.<sup>69)</sup> 여성과 무력분쟁은 전쟁에 초점이 있었던 세계여성대회과정의 출범과 함께 이미 제기되었던 것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나이로비대회에서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전 단계와 달리 북경대회 과정은 평화문화를 이들 주제로 구성된 평화의제에 통합시켰다는 점에서 인간안보로부터 평화문화라는 새로운 주요 전략과제를 부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7) 정순영 외(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p. 55-75.

68) Breines 외(2000), 앞의 책, p. 14.

69) 위의 책, p. 34.

### Ⅲ



## 평화문화전략의 전개

---

1. 유네스코 주도	42
2.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주도	81

유엔은 헌장의 서문에서 “다음의 세대들을 전쟁의 불행에서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sup>70)</sup> 유엔헌장의 이러한 결의는 평등과 발전을 동시에 기본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사고에 있어 평화를 단지 전쟁의 반대로만 인식하고 있다. 즉 평등과 발전의 문제가 구조적 폭력을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관점에서 평등 및 발전과 총체적으로 연관된다는 광의의 문제의식을 결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이 같은 협의의 전략적 사고는 후에 적극적 개념에 입각하여 평화문화 전략을 주도한 유네스코의 경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네스코헌장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sup>71)</sup>라고 평화와 관련한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평화를 전쟁의 대립 개념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은 평화에 대한 이와 같은 초기의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고의 범주를 광의화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던 것인데 유엔 차원에서 이는 나이로비적 전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유네스코 주도로 출범한 평화문화전략은 이와 같은 광의의 적극적 목표를 가짐에 따라 군사안보적 차원을 넘어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향한 의지를 내포하였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에 의하여, 또한 세계여성대회과정을 통하여 전개된 평화문화전략은 문화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폭력적 요소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70) <http://www.un.org/aboutun/charter/preamble.htm>.

71) <http://www.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55/125590e.pdf#constitution.>, p. 7.

## 1. 유네스코 주도

### 가. 1996-2001 중기전략

(UNESCO Mid-Term Strategy 1996-2001)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은 1989년 코티브와 회의에서 공식화 되었었고 1994년 엘살바도르의 산 살바도르에서 제1차 평화문화에 관한 국제포럼이 열렸었지만 유네스코의 평화문화전략이 종합화 되어 나타난 것은 1995년 11월에 열린 제28차 유네스코총회가 창립50주년을 맞아 21세기를 앞두고 채택한 ‘1996-2001 중기전략’을 통해서였다. 이 전략문서는 평화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담고 있으며 인간안보의 관점에 입각하여 평화문화를 발전 및 평등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총체적 접근에 따라 이 전략문서는 발전을 경제성장 등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주변화를 포함한 불평등의 시정, 환경보호 등을 통한 인간안보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활동이 중점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문화와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평화교육, 인권과 민주주의, 관용과 국제이해의 촉진을 통한 평화구축의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96-2001 평화문화를 향하여: 범 부문 프로젝트(Toward a Culture of Peace: Transdisciplinary Project 1996-2001)의 기본지침이 된 이 전략문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sup>72)</sup>

- 현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의 관용할 수 없는 불평등적 배제, 산업사회 안에서조차 증가하고 있는 빈곤과 실업, 농촌의 저발전, 도시문제, 대량이주, 피난민과 난민 수의 증가, 환경파괴, 젊은 세대와 여성의 주변화, 새로운 유행병, 그리고 핵·생화학무기 및 마약밀매의 확산, 테러리즘과 조직적 범죄 등에 대항하여, 불평

72) UNESCO(1996), *UNESCO Mid-Term Strategy 1996-2001*, Paris: UNESCO Publishing.

등의 시정,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증진, 과학기술의 발전, 농촌개발과 도시복구의 촉진,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 정의와 민주적 원칙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은 특별계획, 목표, 추진일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 유엔체제는 대전 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현재의 도전에 대해서는 준비가 불충분하다.

- 안보는 군사적인 범위를 넘어선다. 갈등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경제적 빈곤, 사회부정의, 정치적 억압, 차별, 배제와 같은 모든 요인을 근절해야 한다. 안보전략은 폭력적 갈등의 예방과 평화구축을 가져오는 더욱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개발의 중심, 즉 인간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인간정신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간자원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인간의 창조성, 개인이나 집단의 힘을 증진하는 과정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타인에게 개방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이고 인간성은 타인과 경험을 공유함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 평화문화란 자유, 정의와 민주주의, 관용과 유대, 인권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화, 폭력을 거부하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문화, 갈등의 근원을 찾아내서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예방의 문화를 말한다.
- 세계화는 경제·상업적인 목적과는 별도로 문화와 교육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식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관용의 정신으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에 대하여 존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원거리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은 세계 전반에 걸쳐 밀집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질적 접촉의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지구적 공치와 조절의 방법을 요구한다.
- 평화와 발전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이다. 인간안보를 해치는 근원을 제거하여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다.

- 폭력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전의 우선순위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퇴치, 생활조건 특히 농촌지역의 생활조건 개선, 국가 간 및 국가 내에 존재하는 불균등의 감소, 공평한 국제 경제 환경의 확립증진, 개발도상국 인구 대부분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부채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담의 경감 등에 두어져야 한다.
- 평화는 단지 전쟁의 부재로만 받아들여질 수 없다. 평화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 간의 평화로 이해되고 있는 평화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국가 내에서 지역사회나 사회집단 사이의 시민평화로 확대되고 있다. 안보의 개념도 군사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안보는 세련된 파괴의 방법 보다는 저개발, 빈곤, 무지 및 배제에 단호하게 맞서는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 전쟁문화에서는 갈등이 신체적이고 상징적인 폭력에 의하여 해결된다. 반대로 평화문화에서는 국가, 지역사회나 사회집단, 또는 남녀관계이거나 간에 대화, 중재, 법 앞에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서의 타자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해결된다. 평화문화는 따라서 삶과 인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 모든 폭력의 거부, 자유, 정의, 유대, 관용 및 이해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이들에 의하여 영감을 받는 모든 가치, 태도 및 생활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평화문화는 부정의, 불평등 또는 억압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적대나 폭력의 중지를 촉구하기만 하는 추상적인 평화주의나 수동적 관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 ‘행동하는’ 도덕률로서 평화문화는 만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는 작업에 대한 확고한 참여를 의미한다. 평화문화는 배제되고, 소외되고, 주변화 된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문화는 빈곤과 빈곤이 수반하는 불행을 철폐하고 번영과 지식을 더욱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며 모두가 교육을 받

거나 교육의 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평화문화는 또한 민주주의만이 법의 통치와 모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과정의 공고화를 의미한다.

- 교육은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기본적 가치, 기술, 지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의 중심이 된다.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인내, 비폭력과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종합적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만인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 교육기관의 실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정책과 전략구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교사 훈련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국가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훌륭한 매개체로 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나 특정 집단에 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재는 교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 이해를 위하여 몇몇 국가간에 공동으로 제작된 교재와 역사지식의 공유, 역사연구를 증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이상이다. 과거에 다언어사용주의가 문화 간 이해를 촉진했던 것을 선례로 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습과정에서 모국어의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관용, 비폭력과 국제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교육기관과 함께, 대중매체는 사고방식, 분별력, 가치의 형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 텔레비전, 전자 게임 등 스크린에서의 폭력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작, 출판, 유포에 관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촉진하고 아동들의 폭력에 대항하는 관점을 고무시키는 목적의 광고와 다양한 문화, 종교와 민족단체에 관한 지식을 촉진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생산을 증진시켜야 한다.



- 평화문화의 주요 토대 중 하나는 인종, 국가,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이다. 차별에 대항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정보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에 관한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이민자,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연약하고 불리한 집단의 상황에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
- 능력 분야와 관련되는 권리의 실제적 보호, 이를 위한 교육에서의 차별에 반대하는 제안과 집회, 지식인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근원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장려되어야 한다. 인권과 윤리의 새로운 관점에 관한 토론을 확장해야 하며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문화권리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문적 자유는 문화권리 촉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 모든 개인과 집단 간 책임과 유대의식을 장려하는 것은 중요하고, 윤리의 협동적 고찰은 이러한 맥락과 상통한다. 윤리위원회의 창설이 장려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가 정당한 경제, 사회발전을 동반하는 한 인권 실천을 위한 자연스러운 구조를 형성하고 영원한 평화의 형성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평화문화의 필수적 차원의 하나인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실천으로의 변화를 가져 오는 민주적 과정의 강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전략의 실행에서 파트너십의 강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현과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 중 하나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실히 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언급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의 강화를 말할 수 없다.
- 평화구축 전략의 필수 요소로서 문화 간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의 생산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요 문화 지역과 다양한 민족 간 뿐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는 다문화적 본성과 관련이 있는 폭 넓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개

별 사회 간의 대화를 강화해야 하는 구조적 요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교환의 국제화와 규범과 행태의 결과적 표준화는 특정 주체의 실제적 자각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세계화와 분화의 이중적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오늘날 주요 문화지역 간의 전통적 접점이 더 유동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복잡성을 띠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지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오직 다양한 주체 속에서 그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한편으로 문화 간의 구조적 통합을 위한 자극을 제공할 수도 있는 동시에 '문명의 충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당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와 개방의 정신이 모든 개인에 의하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문화 간 대화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화 된 주체의 공동체를 향한 문화 다원주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와 소수문화의 표현을 보호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활동은 문화 다원주의의 강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교 연구와 다민족 또는 다문화 사회 안에서 사회 결함을 강화시키는 공공 정책에 관한 경험의 국제적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사회 간 관계 경영에 관한 과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다양한 지역사회 간의 구조적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문화활동과 지역사회 연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간 대화를 위한 새로운 포럼의 창설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문화를 다루는 지구나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구화 과정과 관련 있는 현대 문화 변화와 문화 상호작용의 새로운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도구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1992 평화의제는 갈등예방, 응급조치, 갈등 후 평화 구축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과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 명시된 '인간의 정신에 평화를 건설'하는 임무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갈등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위한 지적이고 도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갈등에

방의 일환으로 분쟁의 조기 발견과 평화로운 정착을 보장하는 연구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평화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센터, 기관 및 기구와 협력해야 하고 '평화문화센터'의 구축을 통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이전해야 할 것이다.

- 응급조치와 관련하여 인도주의적 원조가 단순히 식량, 의료품 및 담요의 보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 구제, 복구 및 장기발전의 개념 간에 긴밀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응급조치는 시작부터 예방훈련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 평화구축, 특히 시민의 평화구축은 오직 참된 합의에 의존한다. 이는 폭력적 갈등 시 파괴된 제도의 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다원적, 참여적 사회의 토대가 동시에 마련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교육은 민주 시민권의 기초를 구축하고 젊은 세대를 위하여 폭력적 갈등 후 심리적인 후유증을 경감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연령이나 성, 인종, 종교 등 때문에 소외되었던 모든 부문의 사람들에게 사회와 직장생활로의 복귀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폭력적 갈등으로 인하여 분열된 시민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필수 도구이고 출판의 자유, 다원주의와 매체의 독립, 지역신문과 라디오 방송국의 개발은 사회적인 유대의 재건과 화해과정에 결정적이다.

#### 나. 평화문화를 향한 여성의 기여(Women's Contribution to a Culture of Peace)에 관한 전문가회의

1995년 4월 유네스코는 유엔여성향상국과 협력하여 '평화문화를 향한 여성의 기여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였다. 북경에서 열릴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유네스코 자문위원회가 특별히 준비하여 평화문화 이론가와 실무자가 함께 참석한 이 회의는 성 관점을 평화문화전략에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회의의 결과는 북경행동강령에

반영되었는데 유네스코 평화문화전략의 전개에 있어 90년대 들어 본격화한 남성성 이론의 수용을 포함하여 성 관점을 통합한 측면을 나타낸다. 이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sup>73)</sup>

- 폭력문화는 권위주의와 강제적 관계에 연원한다. 폭력문화와 관련하여 여성은 성 차별제도와 위계적인 성 분업 때문에 남성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 폭력문화에 대한 전통적 수용은 지양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것은 비윤리적인 것으로서 그에 따른 결정과 행동은 사회적,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양상은 일상적 문화전반 속에 진리와 폭력에 대하여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견해를 확산시킨다. 이 같은 견해는 과학적, 이성적 지식의 방법을 배제하고 폭력문화의 철폐에 대한 여성의 합리적 기여를 평가절하 해버린다. 배제적인 관점의 보편화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일원적 지배주의를 정당화 한다.
- 폭력문화의 가장 분명한 표출은 안보를 내세운 무력갈등과 무기의 유통이며 이는 신체적인 학대와 정치적인 폭력을 심화시키고 고문과 테러행위를 포함하여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전쟁 시의 문화는 민주적이지 않다.
- 군대에서도 비인간적인 기술이 훈련과 엄격한 규율을 핑계로 사용된다. 군대의 경우 특히 그러하지만 여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성성에 입각한 체제문화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과정의 하나로 활용된다. 남성성에 뿌리를 둔 체제문화의 폭력성 속에서 조직적인 강간과 강제 매춘이 군사전략과 교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 폭력문화는 사람들 간에 가치의 위계를 구별해서 지역사회, 문명과 성이 단지 다른 것이 아니고 월등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규정 짓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와 타자를 구별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를 정당화

73) Breines 외(1999), 앞의 책, pp. 209-234.

하는 것이다. 차별적 사회화의 산물인 성 편견은 강압을 수용하고 여성을 남성의 재산으로 간주하게 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문화적 고결성’으로 정당화 시킨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을 사적 소유지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그것이 갖는 공적인 얼굴이 거부되어 정치적인 심각성이 부정되게 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시장경제의 세계화는 그 자체가 폭력의 한 형태이며 여성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오는 폭력의 원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폭력문화의 양상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성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빠르게, 그리고 대폭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성 불평등은 그 자체가 폭력문화의 주된 원인이며 폭력문화를 영속화 시키는 도구이다.
- 남성성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관심사, 희망, 가치, 우선순위, 전통적인 돌봄과 문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습득한 시각 등으로 여성은 평화를 열망하고 평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여성의 이러한 경험은 평화문화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 평화문화를 보급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고려와 조치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 평화문화는 자유의 문화이며 모든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이고 이중표준잣대를 철폐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성 평등의 맥락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 평화문화는 차이를 용인하는 위에 인간의 잠재성을 이루어 내도록 만드는 ‘다양성의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화의 다원성과 ‘타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바탕 하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에 있어 지배, 착취와 차별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의미한다.

- 평화문화는 어떠한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도 모든 세계가 그 책임을 떠맡게 되는 유대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일 것이다. 평화문화에서는 모든 사람은 착취할 수도 소모될 수도 없다. 평화문화는 취약집단의 존엄과 안녕을 보장한다.
- 평화문화는 세계적인 상호의존성, 공통의 인간욕구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문화 속에서만 인간은 성이나 다른 인간정체성으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간적 유대, 상호성과 정의에 가치를 둌으로써 사회적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폭력을 버릴 수 있도록 교육 받는다. 평화문화 하의 가치교육은 지구촌의 맥락에서 추구될 것이다. 지구촌은 경쟁적인 사회들의 단순한 집합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안’에 포용되는 통합적 개체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교육은 이 통합성이 폭력을 저지하도록 하는 의식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평화문화에서의 권력은 공동의 역량과 공동의 책임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권력은 법, 정치, 사회, 윤리적으로 함께하는 정신을 반영하며 남녀 간에 평등하게 공유된다.
- 평화문화 속에서는 갈등은 폭력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 차이는 상호적 통합의 정신에 의하여 완화될 것이고 분쟁은 인간관계를 화해시키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 평화문화는 전통적, 토착적 및 여성의 갈등해결 방법과 집단적 정의의 개념을 복구하고 적용하게 할 것이다. 평화문화에서는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지식이 함께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평화문화가 실현되면 인간이 창조성을 발휘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그 곳은 ‘숲은 신성하고 강도 신성하며 우리 자신들도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성함을 위한 자리이다.

- 정의에 가치를 두고 문화의 존엄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평화문화의 삶은 평등한 인권,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생물체와 생명체제에 대한 경이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일구어 나가게 될 것이다.
- 평화문화를 향한 사회적 변혁은 가부장제와 불평등한 성 관계를 신뢰할만 하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체할 새로운 성 계약을 필요로 한다. 한편 권력에의 접근, 시민사회의 발전과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공치 없이는 평화문화란 존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여성은 평화문화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은 전통적으로 권력과 통치체제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일로부터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 여성은 특히 군사와 무기를 강조해 온 협의의 안보개념에 입각한 정책 결정으로부터 제외되어 왔다. 군사안보적 관점은 무기개발, 무기생산과 무기 확산이라는 고비용의 위험한 순환을 영속화 시켜 왔다.
- 무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갈등해결에 대한 좀 더 신뢰할만한 안보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평화교육이 필요하다. 평화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범위의 인간적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인간성을 형성하고 남녀 모두의 개인적 역량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평화문화는 총체적인 형태의 교육을 요구한다.
- 여성들은 능동적으로 평화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실제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는 평화와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은 전통의식에서 벗어나 정치에 대한 성 평등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여성은 자신들의 역량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러한 자신감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결과에 의하여 얻어지므로 여성은 정치적 참여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교육을 남성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평화문화는 인간의 차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평화문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공존의 논리에 바탕하여 어떠한 형태의 지배도 거부해야 한다.
-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의미하며 이는 인간 과 자연 간 공존의 방향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 다원적 관점에 입각하여 평화문화는 평등, 참여, 민주와 정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창출해야 한다.
- 평화문화의 달성은 주요 사회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의 폭력 제도는 점차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폭력적 갈등의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철폐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평화에 성 관점이 통합 될 때만이 성공적일 수 있다.
- 평화가 강제적일 수 없는 것과 같이 평화문화 또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성들은 평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행동과 결정의 모든 분야에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해야 한다. 평화문화에 반하는 과정은 다양한 기제와 실질적인 폭력제도에서 대중매체, 일상생활언어, 가족관계, 자녀양육과 사회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평화문화는 폭력문화를 영속시키는 이와 같은 무의식적 과정을 지탱하는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 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안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정책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구의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모든 측면이 좀 더 민주적이고 성 균형적이도록 되어야 한다. 안보정책의 주안점은 위기 돌발 시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예방, 평화중재 및 평화구축에 두어 져야 한다.
- 모든 수준, 특히 정책결정수준의 평화와 안보활동에 여성을 평등하게 포함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화문화는 전적인 인권의 존중과 완전한 차별의 종식을 필요로 한다. 유엔헌장,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교육에서의 차별에 대한 유네스코협약과 같은 국제기준에 천명되어 있는 남녀 평등권이 각국 정부, 유엔체제전반, 국가간 기구 및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행동을 주도하는 기타 기관에 의하여 이행되어야만 한다.
- 1993년 비엔나인권선언 및 행동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배포와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1993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에 포함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모든 행위자에 의한 평화와 안보활동의 목적은 모든 형태의 폭력회피, 경감과 철폐에 있어야 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 환경파괴와 무력갈등과 같은 인권침해를 포함한다.
- 여성에 대한 상이한 종류의 폭력이 인지되고 인권침해로 취급되어야 하며 더 이상 합법적인 가정 내의 행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평화문화는 평화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필요로 한다. 인간 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부여된 성 역할의 타파와 기회 평등을 보장하면서 선택의 자유와 책임의 공유에 기반할 때 가장 최선이다.
- 가정은 어떠한 형태의 가정이건 간에 평화문화가 최초로 전달되고 내면화 될 수 있는 첫 번째 환경이다. 따라서 부모, 키워주는 어른들과 그들이 어떻게 가정을 형성하는가가 인간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이다. 가정 내의 폭력은 국제적인 체제에서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평화문화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책결정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적 행동과 결정에 완전하고도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남녀의 완전하고 평등한 시민권과 모든 시민의 책임 있는 참여 없이는 어떠한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

- 평화문화는 지구적 상호의존성, 공통적인 인간의 요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에 바탕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은 현재의 가족간의 또한 가족 내에서의 불공정성을 초월하는 동반자적 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인지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불공정과 정치적인 불공평을 극복해야 하며 경쟁심이 협력의 정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갈등해소와 평화구축을 위한 원주민의 주도적인 행동, 특히 여성에 의한 행동이 지원되고 평화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평화와 안보의 문제를 주로 설명하고 해결해야 한다.
- 지구촌시민권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
- 사회적, 경제적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은 여성의 인권, 평화와 안보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개발은 환경뿐 아니라 인류적,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사회적 분리의 효과, 특히 여성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적 안정을 대가로 경제적 관리를 달성하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빈곤층의 박탈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 평화문화는 이중기준의 철폐와 인간유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개인의 고통도 국제사회의 책임이다. 평화문화에서는 인간은 착취당할 수도 소모될 수도 없는 것이다. 평화문화는 취약집단의 존엄성과 안녕을 보장한다.

#### 다. 평화문화를 향한 여성기여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Women's Contribution to a Culture of Peace)

‘평화문화를 향한 여성의 기여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네스코는 1995년 9월에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 공식문서로서 ‘평화문

화를 향한 여성의 기여에 관한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4)</sup>

-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평화문화를 향한 역동적인 운동은 여성의 비전과 행동으로부터 영감과 희망을 얻고 있다.
- 문화의 다양성에서 힘을 얻고 안보의 개념을 재정의해서 그것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안보를 포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평등한 성 관계를 남녀 간의 진정하고 실질적인 평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 지구는 아직도 무장되어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다. 여성은 계속해서 제도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전쟁과 군사적 점령의 경우 여성은 놀랄만한 정도의 희생자이며 잔학행위와 공격의 대상이다.
- 평화문화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은 가정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공격행위와 후유증, 일상생활에서의 비관용, 매체에서의 폭력성의 일상화, 역사교육에서의 전쟁의 찬양, 무기와 마약의 매매, 기본인권과 민주적 자유의 부정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해야 한다.
- 평화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 사회적 박탈에 의한 폭력을 기본 문제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빈곤, 배제, 차별과 같은 사회적 부정의는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가해진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부와 기회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폭력의 근원을 언급할 때 빼 놓을 수 없다.
- 평등, 발전, 평화는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발전 없이는 영속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남녀의 완전한 평등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

74) <http://www.unesco.org/cpp/uk/declarations/wcpbei.htm>.

- 새천년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수준의 폭력을 지양하고 폭력적인 갈등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타인에 대하여 관용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데 매진해야 한다. 인간사회는 갈등을 처리해서 긍정적인 변화의 역동성을 가져 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
- 평화문화를 향한 노력의 중심은 유네스코 헌장에 천명되어 있는 바 - 전쟁은 인간의 정신에서 시작되므로 평화에 대한 방어를 이룩하는 것도 인간의 정신에 있다 - 와 같이 교육에 있다. 교육은 여성인권, 생활 모든 부문에 있어 여성의 창조적 잠재성의 발현과 활용, 정책결정에서의 남녀의 권력분배와 평등한 참여,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의 재정립과 성 관계의 새롭고 더욱 공평한 형태와 같은 평화문화의 전제조건 실천에 필수적이다.
- 여성의 리더십역량이 평화문화를 향한 진전을 위해서 완전하게, 만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제한된 여성의 참여는 공치의 개념을 왜곡시켜 왔고 과정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갈등예방, 문화 간 대화와 사회경제적 부정의의 시정과 같은 분야에서 여성은 평화구축을 위한 혁신적 접근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여성은 사람과 국가 간 평화에 대하여 독특한 경험, 능력, 관점을 가져다 준다. 생명을 잉태하고 유지시키는 여성의 역할은 그들에게 평화적인 인간관계와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기술과 통찰력을 제공해 왔다. 여성은 폭력의 효력에 대한 신화에 남성보다 덜 동의하고 폭력문화에서 평화문화로의 전환에 대한 공동노력에 새로운 활기, 질, 비전을 가져 올 수 있다.
- 평화문화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에 동참해야 한다.
  - 여성의 힘 증진과 정책결정에의 접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형태의 교육기회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및 국제적 노력을 지원한다.

- 평화문화의 필수적 요소인 남녀인권에 대한 지식, 비폭력적 갈등 해결의 기술,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문명 간 이해와 세계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질적 교육을 증진한다.
- 여성의 우선순위와 관점을 고려하는 발전의 새로운 접근을 장려한다.
- 차별적인 목적을 지닌 종교적, 문화적, 전통적 관습을 반대한다.
-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의 형태, 과도한 군비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소홀과 같은 여성에 대한 전쟁문화의 직·간접적 영향을 줄이도록 추구한다.
- 성 인지적인 언어와 이미지의 사용뿐 아니라 여성의 표현자유와 매체개입을 증가시킨다.
- 소녀와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국제규범문서에 대한 지식과 존중을 증진시키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을 포함해서 만인을 더욱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국제규범문서를 널리 배포하도록 한다.
- 남녀평등에 기초해서 평화문화 발전에 참여하기로 한 여성단체와 비정부기구뿐 아니라 정부·정부간 조직을 지원한다.

#### 라. 평화문화 관점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남성성(Male Roles and Masculinities in the Perspective of a Culture of Peace)에 관한 전문가회의

유네스코는 ‘평화문화 관점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남성성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1997년 9월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개최하였다. 북경대회 준비과정으로서 개최된 1994년의 전문가회의에 이미 폭력적 남성성에 대한 이론이 영향을 미쳤지만 집중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을 통하여 더욱 높아진 폭력문화와 남성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배경으로 유네스코는 평화문화의 관점에서 남성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회의는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남성성의 문화결정론을 평화문화전략에 연결시킴으로써 문화적 접근의 현실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유엔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평화문화에 관한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데 토대를 제공하였다. 평화 및 성 문제 연구자들과 남성 사이에서 반폭력활동의 경험을 가진 운동가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되고 정형화 된 정의, 소년을 강인하고 공격적으로 키우는 관행,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인 조건이 만들어 내는 남성들 사이에서의 폭력 등이 초래하는 해로운 결과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성 인지적인 평화문화전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권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관점과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sup>75)</sup>

- 세계 대부분의 군인은 남성인 것이 사실이다. 국제적인 침공과 내전을 일으키는 결정은 거의 모두가 남성에 의하여 내려진다. 남성은 사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폭력범죄에 책임이 있다. 대중매체, 스포츠, 정치적인 수사에서 폭력을 상징하는 핵심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 지속되는 무력갈등, 종족주의와 인종주의에서 보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양극화된 모델은 전형적으로 남성이 공격성을 보이도록 자극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군사훈련에서 남자다운 것을 잔인함으로 연결짓고 공포와 감수성을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취급한다.
- 남성성과 폭력 사이에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남성성은 사회적 산물이다. 이 점은 모든 남성이 다 폭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 남성성에 대하여 문제를 부각시키는 일은 오해되기 쉽다. 이는 마치 모든 남성을 폭력의 주범으로 비난하고 남성이 사악하거나 아니면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더 나은 인간인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점이 대부분의 남성들을 어떠한 변화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즉시 소외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

75) UNESCO(1997),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Male Roles and Masculinities in the Perspective of a Culture of Peace*.

- 이러한 오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성을 폭력으로 몰아넣는 사회적인 남성성의 특성과 공격적인 남성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폭력적인 태도를 변명하거나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성 형평과 성 평등으로의 전진은 평화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남녀간의 협력과 대화는 새로운 지식과 적극적인 변화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소년과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소녀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기금을 두고 경쟁해서는 안된다.
-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논쟁에 있어 서방의 연구와 개념이 내세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화적인 차이와 지역의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는 글로벌화 하는 세계에서 성 문제에 대한 서방적 관점의 주도와 그것이 비서방문화에 미치는 (때로는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을 인지해야만 한다.
- 지난 10년간 세계의 많은 곳에서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성 관계와 남성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자극하였다. 이론가들은 성 정체성, 남성의 경제적 환경과 남성성의 패턴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남성성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실행적인 주도와 정책논의를 가져 오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 지난 10년 동안 몇몇의 나라들에서 남성의 폭력, 특히 가정폭력과 강간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소년의 교육, 남성의 건강, 도로사고의 남성연관에 대하여 정책논쟁이 있어왔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남성성에 대한 문제가 성 교육의 정책문서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성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이고 사회적 형태의 폭력은 사회적 설명과 해결을 필요로 한다. ‘남성 역할’의 개념은 흔히 ‘사회화’라고 불리는 성의 사회적

학습과 단지 남성성에 대한 협의의 공격적 모델을 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매체와 문화에서의 고정관념에 관심을 돌리는 데 도움을 준다.

- 성 역할에 대한 협의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성 관계와 남성성에 대하여 더 넓은 견해가 필요하다. 남성성에 대한 이해는 경제적 생산, 권력과 권한, 성적 관심과 감정, 그리고 정체성과 의사소통을 포함해야만 한다.
-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곳에서는 폭력을 쓰더라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을 폭력에 무력하게 할 수 있다.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남성의 전통적인 생활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파괴시키는 경제적인 변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폭력이나 군국주의를 택하게 할 수도 있다.
- 남성성은 인종적이거나 세대적인 정체성과 혼성되어 폭력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배적인 남성성은 남성과 맞지도 않고 남성이 바라지도 않는 사회적 명성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심리적 긴장은 폭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창출할 수도 있다. 잠재적인 평화문화가 이 같은 가능성에서 발견된다.
- 폭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진전된다. 그러나 다음이 남성성과 끊임없이 연관되는 것들이다.
  - 사회적인 제도로부터 무기와 전술과 같은 폭력의 수단이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군사적인 무기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무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소년들만의 단체생활, 남성성을 부추기는 군사훈련과 대중매체는 ‘진정한’ 남성과 폭력 간에 직접적인 연계를 갖도록 한다.
  - 남성들이 권력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화가 나고 이러한 무력감에 대한 반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 폭력조직에의 합류, 인종주의적 운동, 군대 혹은 혁명군운동 등으로 나타나게 한다.



- 인종차별주의, 민족주의, 극단주의 운동은 종종 지배력의 요구를 남성의 핵심인 것처럼 표현하고 여성은 지원자나 병사의 어머니로 정해 버린다. 병사나 사냥꾼으로 행동해야 하는 심리적인 압박은 심각할 수 있다.
- 지배적인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남성성이나 여성의 힘 증진이 멸시되도록 요구된다. 많은 경우 성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폭력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 남성성은 폭력성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남성성의 변화를 위한 행동은 평화를 위한 전략과 상관된다. 종종 성을 개혁한다는 것이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어 놓는, 남성을 약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 수단인 것 같이, 그래서 험란한 세상과 경쟁할 수 없게 만들고 자존심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된다.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문화를 건설하려면 물론 남성성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남성을 약하고 무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은 남성성이 폭력을 쉬운 선택,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수단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평화구축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힘들고 복잡한 과업이다. 남성성에서 중요한 어떤 능력은 배제보다 평등에 연결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숙련된 실행자를 필요로 한다.
- 교육은 소년과 남성을 폭력성으로부터 비폭력성으로의 변화를 압박한다는 의미에서의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교육은 다양한 작은 길을 열어 주고 능력의 범위를 넓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는 소년과 남성의 비폭력적 행동역량을 개발하고 평화에 대한 기술을 훈련할 수 있게 한다.
-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은 남성이 다양한 경험을 갖도록 다양한 생활분야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성, 계급과 공적 부문, 매체, 사적 부문, 직장과 제도에서 남성에게 추천하는 사회생활의 범위를 줄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 평화문화를 향한 지역사회활동이나 정부프로그램에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경감하려는 지역사회활동 프로그램으로 다른 국가에도 확대되고 있는 캐나다의 ‘흰색리본’ 캠페인
  - 많은 남성들이 부성휴가나 탁아소에서 일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북유럽국가들의 ‘아버지 할당제’, ‘아버지의 달’
  -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리라’ 캠페인과 같은 도로사망에 대한 지역사회활동
  - 미국의 ‘남녀차별에 반대하는 남성들의 국가적 조직’과 같은 러시아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의 반 남녀차별주의자, 반 인종주의자 남성단체
  - 엘 살바도르와 필리핀에서와 같이 경찰을 위한 봉사근무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업상의 폭력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 문맹에서 인간관계와 폭력에 이르기까지 남성성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도록 하는 호주학교의 소년들을 위한 성 인지 프로그램
-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원칙들이 부상하고 있다.
  - 성 고립화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어떤 활동이 하나의 성 집단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라도 프로그램은 남성과 여성의 협의에 의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 소년이나 남성과 함께 일하는 협동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난과 적대심은 평화구축을 방해하기 쉽다.
  - 폭력에 대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경제적인 혼란이 발생하였다면 생활의 대안적인 토대를 찾을 필요가 있다.
  - 평화와 성에 관한 교육문제가 학교와 성인교육의 교과과정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교과과정분야에만 국한되어서 엄격하게 정의되는 특별사항이어서는 안된다.

- 남성성의 문제에 관한 진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롭고 이러한 연구와 평화의 관계는 더욱 새로운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로서 많은 진술과 제안이 아직도 새로운 환경에서 시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다음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어떤 문제들은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것들로서 향후 논의와 연구를 위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와 기업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도적인 남성성이 정치와 경영에서 리더십지위로의 여성의 등장을 어디까지 부정하고 있는가.
  - 어떤 범위까지 남성적인 정체의 허약성으로부터 폭력이 발생하는가.
  - 남성의 폭력을 근원에서 유발하는 수치와 치욕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 될 수 있을 것인가.
- 남성성과 평화와 관련한 개혁은 주변화 된 집단만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성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은 남녀 모두의 개입으로써 가능하다.
- 남성의 폭력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위협적인 반면 남성성은 이와 상당히 다르고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대목이 있다. 사적인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평등과 비폭력으로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도와 문화가 그들의 길을 막는 한 그들은 멈춘다. 그러나 그 길을 여는 작은 방안이라도 놀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남성이 여성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갈라놓는 것 보다 더 크다. 그들이 나누는 공통의 인간성, 공동의 역량, 나눔의 언어, 나눔의 제도, 나눔의 관심, 어린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은 평화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들이다.
- 폭력과 평화에 대한 남성성의 문제는 성 평등과 비폭력으로의 방대한 진전의 맥락에서만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폭력을 감소하기 위하여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주도를 계속하고 강화하며, 비무장화를 증진하고, 창조성과 평화관련 문화적인 표현과 작품,

그리고 평화문화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배포를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의 역할과 남성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방안이 실행되어야 한다.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주도를 지원하며 감성적인 지원, 공감, 비폭력에 기반을 둔 자녀양육 관례를 장려하라.
  - 출산의 책임이 남녀에게 공유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지원하라.
  - 모성휴가에 추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성휴가제를 채택하고 그러한 정책에 협조하는 노동조합, 전문직협회 및 기업을 장려하라.
  - 다양한 형태의 남성성과 평화문화와 관련한 남성에 대한 교과과정 자료집을 개발하고 차별과 폭력(예를 들면 남녀차별, 동성애공포증 및 인종차별주의)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하라.
  - 학교는 갈등해결기술, 감정표현 및 그룹 간 의사소통에 대하여 소년, 소녀와 교육자를 위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학교는 비폭력과 남성의 비공격적 태도를 묘사하는 교과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 평화문화를 향하여 남성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남성과 소년을 개입시키는 지역사회집단과 활동을 지원하라.
  - 비폭력적이고 협력적인 스포츠와 게임의 조직을 증진하라.
  - 정부, 기업과 조합이 직장에서의 성 희롱을 없애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생활형태를 개발하도록 격려하라.
  - 남녀가 비전통적인 직업을 택하고 직장생활에서 성 장벽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라.
  - 남성지배문화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업과 관료체제가 성 인지적인 경영, 행정문화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라.

-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입안에 있어 성 인지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 군대와 경찰조직은 남녀 모두의 참여를 장려하고 모든 인력의 훈련에 협상기술, 성 인지 및 인권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 군 복무를 대체하거나 대신하는 지역봉사활동을 장려하라.
- 남성성의 폭력적인 이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위한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비디오게임, 인터넷 및 일반적인 대중문화에서의 남성성에 대한 폭력적인 이미지 및 대안마련을 위한 참여 등에 대한 논쟁을 증진하라.
- 정부와 지역사회는 동성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남성성 두 가지를 다 포함하여 비폭력적인 성 관습에 대한 합법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 새로운 남성성을 이룩하는 데 있어 창조적인 예술의 잠재성을 탐구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를 들어 캐나다의 하얀리본 캠페인) 남녀 간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 때리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장려하라.
- 남성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한 범학제적인 연구, 특히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만들어 내는 사회문화적 여건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라.
- 정부, 유엔기구 및 기타 기구는 남성성과 남성의 문제에 대한 전문인력을 성 관련 프로그램과 평화 프로그램에 배치하도록 장려하라.
- 남성역할과 남성성에 대한 진단, 논문과 참고자료의 작성을 후원하고 조합, 군대, 경찰 및 NGO를 통하여 배포하라.

마. 유엔 평화문화에 관한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United Nations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n a Culture of Peace)

유엔총회는 1999년 10월 6일 평화문화에 관한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

(A/RES/53/243)을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중기전략 1996-2001’에 입각하여 유네스코가 실행한 ‘평화문화를 향하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화문화 관점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남성성’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평화문화에 대한 정의와 행동프로그램을 유엔활동의 전 분야와 총체적으로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6)</sup>

### 평화문화에 관한 선언:

- 유엔총회는 유엔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과 기본원칙, “전쟁이 인간의 정신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평화방어가 이루어져야하는 곳도 인간의 정신에 있다”고 언급한 유네스코헌장,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관련 유엔체제의 국제문서를 상기하면서
  - 평화는 전쟁의 부재일 뿐 아니라 대화가 촉구되고 갈등이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에서 해결되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참여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 냉전의 종식이 평화문화의 강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대시켰음을 인지한다.
  -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 갈등의 지속과 확산에 우려를 표명한다.
  - 민족,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국가, 인종 혹은 사회적 기원, 재산, 장애, 출생 혹은 기타 지위에 기초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과 비관용의 철폐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 2000년을 ‘평화문화의 해’로 선포하고 2001-2010기간을 ‘세계어린이를 위한 평화문화와 비폭력10년’으로 천명한 1997년 11월 20일 총회결의 52/15를 상기한다.

76) 유엔총회결의안 A/RES/53/243.

- 유네스코가 평화문화 증진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인지한다.
- 평화문화는 다음에 기초한 가치, 전통과 행동양식 및 생활방식의 총체이다.
  - 삶의 존중, 폭력의 종식, 교육 및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폭력의 증진과 실행
  - 국가의 주권, 영토의 존엄성 및 정치적 독립의 기본원칙에 대한 존중, 그리고 유엔헌장 및 국제법에 상응하는 경우, 어떠한 국가의 국내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에 대한 비간섭
  -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증진
  -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개입
  - 현재와 미래세대의 발전과 환경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
  - 개발권의 존중과 증진
  - 남녀평등권과 평등기회에 대한 존중과 증진
  - 표현, 견해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만인의 권리 존중과 증진
  - 자유, 정의, 민주주의, 관용, 유대, 협력, 다원주의, 문화적 다양성, 사회의 모든 수준과 국가간의 대화와 이해에 대한 기본원칙 준수 및 평화에 이로운 국가적, 국제적 환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촉진
- 평화문화의 더욱 완전한 발전으로의 진전은 개인, 집단, 국가간에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치, 태도, 행동양식과 생활방식을 통하여 일어난다.
- 평화문화의 더욱 완전한 발전은 다음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상호존중과 이해 및 국제협력의 증진
  - 유엔헌장과 국제법 하에서의 국제적 임무의 수행
  - 민주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발전과 존중 및 준수
  - 모든 수준의 사람들에게 대화, 협상, 합의도달과 차이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 기술의 개발 촉진

- 민주적인 제도 강화와 개발과정에서의 완전한 참여 보장
- 빈곤, 문맹의 근절과 국가간, 국내에서의 불평등 감소
- 지속적인 경제사회개발 증진
- 모든 결정수준에서의 여성의 힘 증진과 평등한 대표성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 아동권리의 존중, 증진 및 보호 보장
- 모든 수준의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정보에의 접근 강화 보장
- 공치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
-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증과 같은 비관용 철폐
- 모든 문화 간의 이해, 관용과 유대 진전
- 식민지, 다른 형태의 외국인 통치, 혹은 외국인점령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의 완전 이행
- 모든 수준의 교육은 평화문화를 구축하는 기본적 방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교육이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
- 정부는 평화문화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평화문화의 더욱 완전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 매체의 교육적이고 정보를 주는 역할은 평화문화의 증진에 기여한다.
- 평화문화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은 부모, 교사, 정치인, 언론인, 종교단체와 집단, 보건과 인도주의 활동가, 복지사, 다양한 수준의 경영자와 비정부기구에 의하여 수행된다.
- 유엔은 세계적으로 평화문화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 평화문화에 관한 행동프로그램 :

- 특히 소녀에게 초점을 두고 만인을 위한 교육 증진, 평화문화 고유의 질적인 가치, 태도와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갈등예방



과 해결, 대화, 합의구축과 비폭력을 위한 훈련을 통한 평화문화의 육성과 관련하여

- 인간, 사회 및 경제개발 달성과 평화문화 증진을 목표로 만인을 위한 교육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라.
- 초년부터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하여 가치, 태도, 행동양식과 생활방식에 대하여 알게 하고 어떤 갈등도 평화롭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관용과 비차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
- 어린이들이 그들에게 평화문화의 가치와 목표를 주입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활동에 참여하게 하라.
- 여성, 특히 소녀가 교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 평화문화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개편을 촉구하라.
- 대화와 합의를 증진하는 데 있어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평화문화에 기여하는 가치와 기술의 개발을 강화하라.
- 갈등 후 평화구축뿐 아니라 갈등방지와 위기관리, 평화적인 분쟁 해결 분야에 있어 적절한 곳에 교육과 훈련에 목적을 둔 노력을 강화하라.
- 빈곤근절 목표 작성, 아동과 여성의 특별요구에 대한 초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한 활동, 경제·사회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국내·국제적 협력촉진에 의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개발의 증진과 관련하여
  -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국가·국제적인 노력을 통하여 빈곤을 근절하려는 적절한 전략과 합의된 목표에 기초한 포괄적인 행동을 수행 하라.
  - 특히 국제협력을 포함해서 국가 내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책과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라.
  - 특히 부채경감을 통하여 발전도상국의 외채나 부채정비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공평한 개발중심적이고 영속성 있는 해결책을 증진하라.
  - 국제협력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채경감에서 오는 자원과 같은 모든 자원의 할당과 활용을 최적화 하려는 행동의 개발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수준의 행동을 강화하라.

- 개발과정이 참여적이고 개발사업이 만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라.
- 성 관점과 여성과 소녀의 힘 증진을 개발과정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포함하라.
- 특별한 요구를 가진 집단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에 초점을 두는 개발전략 특별조치를 도입하라.
- 갈등 후 상황에 있어 갈등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개입시키면서 개발 원조를 통하여 복구, 재건과 화해과정을 강화하라.
- 천연자원의 보존과 재생을 포함하여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개발전략과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라.
- 특히 사회경제개발에서 역효과를 가져다 주는 식민지, 기타 외국인 통치나 외국인 점령과 같은 형태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결정 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라.
- 모든 수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배포 및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의 완전한 이행에 의한 모든 인권존중의 증진과 관련하여
  -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완전 이행하라.
  -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장려하라.
  - 국가인권기구를 포함하여 국가기구와 인권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라.
  - 개발권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과 비엔나선언 및 행동프로그램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개발권을 실현하고 이행하라.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10년(1995-2004)(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의 목표를 달성하라.
  - 모든 수준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배포하고 증진하라.

- 1993년 12월 20일 유엔총회결의 48/141에 명시되고 후속 결의와 결정에서 밝히고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라.
- 성 관점을 통합하고 경제, 사회 및 정치적 결정에 남녀평등 증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철폐, 전쟁과 기타 모든 폭력의 형태로 인한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 및 원조를 통한 남녀평등의 보장과 관련하여
  - 모든 관련 국제문서 이행에 성 관점을 통합하라.
  - 남녀평등을 증진하는 국제문서를 이행하라.
  - 적절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로, 특히 국가행동계획의 마련, 이행 및 후속 조치를 통하여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하라.
  - 경제, 사회 및 정치적 결정에 있어 남녀평등을 증진하라.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위한 유엔체제 관련 기구에 의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
  - 가정 내, 직장과 전쟁 갈등 시를 포함하여 폭력에 희생자가 된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 책임있는 시민교육,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을 증진하는 행동의 강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속하는 국가기구와 과정 설립 및 강화에 의한 민주적인 참여의 촉진과 관련하여
  - 민주주의원칙과 실천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범주의 행동을 강화하라.
  - 모든 수준의 정규, 비정규, 비공식교육에서 민주주의원칙과 실천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라.
  - 특히 공공부문종사자의 훈련과 역량구축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속하는 국가기구와 과정을 설립하고 강화하라.
  - 특히 관심 있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선거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해서, 그리고 유엔 지침에 의거해서 민주주의적 참여를 강화하라.

- 테러, 조직범죄, 부패뿐 아니라 불법 마약생산, 매매 및 소비와 금전 세탁이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평화문화의 더욱 완전한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들과 전쟁을 수행하라.
- **문명 간의 대화증진, 취약집단, 이주민, 피난민, 난민, 원주민 및 전통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 차이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통한 이해, 관용 및 유대의 진전과 관련하여**
  - 관용원칙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과 유엔 관용의 해를 위한 후속행동프로그램(Follow-up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Year for Tolerance)(1995)을 이행하라.
  - 2001년 유엔 문명 간 대화의 해(United Nations Year of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관련 활동을 지원하라.
  - 분쟁해결과 관용증진에 대한 지방 혹은 원주민의 관례나 전통을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라.
  - 특히 취약집단과 함께 이해, 관용과 사회전반에 걸친 유대를 육성하려는 행동을 지원하라.
  - 세계원주민10년(International Decad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의 목표달성을 지원하라.
  - 망명인과 난민의 자발적 귀환과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함께 관용과 유대를 육성하는 행동을 지원하라.
  - 이주민과 함께 관용과 유대를 육성하는 행동을 지원하라.
  - 특히 신기술의 적절한 활용과 정보의 배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 간의 이해, 관용과 협력을 증진하라.
  - 사람 간, 국가 내, 국가 간의 이해, 관용, 유대와 협력을 육성하는 행동을 지원하라.
- **평화문화증진에 있어 독립매체의 지원, 매체의 효율적인 활용, 매체의 폭력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방안, 신기술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의한 참여적 의사소통 및 정보·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지원과 관련하여**

- 평화문화 증진에 있어 매체의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라.
- 보도의 자유와 정보와 매체의 자유를 보장하라.
- 유엔과 관련 지역, 국가와 지방기구를 개입시키는 평화문화에 관한 정보의 옹호와 배포를 위하여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 지역사회가 그들의 요구를 표현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매체를 증진하라.
- 신매체기술, 특히 인터넷을 포함하여 매체에서의 폭력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
- 인터넷을 포함하여 신정보기술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증대하라.
- 보편적이고 완전한 무장해제, 갈등예방과 갈등해결 그리고 갈등 후 상황에서 평화문화를 증진하는 데 여성의 참여 확대, 갈등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 평화적인 정주 협상을 위한 자신감 구축방안과 노력 촉진에 의한 국제적인 평화 및 안보의 증진과 관련하여
  - 비무장분야에서 유엔에 의하여 수립된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통제 하에서 보편적이고 완전한 비무장을 증진하라.
  - 몇몇 국가들에서 적절히 증명된 바와 같은 ‘군대변환’이 평화문화의 교훈이 되도록 하라.
  - 전쟁에 의하여 획득한 영토에 대한 불용성과 세계 모든 곳에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라.
  -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신뢰구축조치와 노력을 장려하라.
  - 소형병기와 경무기의 불법생산과 거래를 철폐하는 조치를 마련하라.
  - 국가, 지역 및 국제수준에서 이전 전투병의 사회복원 및 통합뿐 아니라 망명인, 난민, 무기수집프로그램, 정보교류와 신뢰구축과 같이 전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주도행위를 지원하라.
  - 국제법 및 유엔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모두의 생활수준이 건강과 안녕 및 식량, 치료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회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피해를 받은 국가의 인구, 특히 여성과 아동에 의한 경제사회

개발의 완전한 달성과 안녕,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장애를 초래하는 어떠한 단독적인 조치의 채택도 단념하고 억제하라.

- 국제법 및 유엔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보전에 반하는 목적을 둔 군사, 정치, 경제 또는 기타 형태의 강압을 억제하라.
- 제재의 인도주의적,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제재의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견지에서 적합한 고려를 촉구하라.
- 갈등의 예방과 해결, 특히 갈등 후 상황에서 평화문화를 증진하려는 활동에 여성의 더 많은 개입을 증진하라.
- 면역, 의료보급캠페인을 실시하는 평온한 날, 인도주의적 공급을 보장하는 평화의 복도, 병원과 진료소와 같이 건강과 의료기구의 중점적인 역할을 존중하는 평화의 신전과 같은 갈등상황에서의 주도 행위를 증진하라.
- 요구 시 필요한 곳에 유엔의 관련 직원, 관련 지역기구와 회원국을 위하여 갈등에 대한 이해,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술훈련을 장려하라.
- 위의 여덟 가지 행동분야는 유엔창립 이후 계속 유엔의 우선순위에 있어 왔으나 새로운 점은 평화문화와 비폭력을 통하여 이러한 행동분야들의 연계를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총체화 한 데 있다. 연계는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발전과 평화가 함께하는 남녀 간 평등의 예에 서처럼 있어 왔지만 이렇게 모든 분야가 서로 결합되어서 상호보충과 시너지의 총체가 이룩될 수 있다는 사고는 최초이다.

바. 평화문화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와 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문화와 비폭력10년(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2001-2010)

유네스코는 유엔결의 52/15에 따라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로, 그리고 2001-2010년을 ‘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문화와 비폭력10년’으로 선포하였다. 평화문화의 해는 다음의 전략목표를 내걸었다.<sup>77)</sup>

- 평화문화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공공의식의 고양
- 평화문화를 위한 각국, 유엔체제와 시민사회와 같은 광범위한 파트너들에 의한 단기·장기 사업의 추진
- 평화문화를 촉진하는 세계적, 효과적, 장기적 캠페인에 있어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도구의 개발

유네스코는 평화문화10년 간 매년 다른 우선 주제를 정하기로 하였다. 2005년까지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sup>78)</sup>

■ **2001년:** 문명 간의 대화의 해(the Year of Dialogue among Civilizations)로 정하고 대화의 중요성과 문명 간 이해, 관용 및 유대를 증진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1년 11월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보편적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문화가 다양한 형태와 다원적 정체성을 지니며 이러한 점에서 문화적 차이는 공동의 가치로서 존중 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77) [http://www3.unesco.org/iycp/uk/uk\\_sum\\_refdoc.htm](http://www3.unesco.org/iycp/uk/uk_sum_refdoc.htm).

78) Culture of Peace Coordination, Bureau of Strategic Planning UNESCO, [www.unesco.org/cp](http://www.unesco.org/cp).

■ **2002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 (리우+10과정), 환경관광사업의 해 (the 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및 문화유산을 위한 유엔의 해 (the United Nations Year of Cultural Heritage)와 연계 하여 유네스코는 2002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의 분노를 일으킨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부처(Bamiyan Buddhas)의 파괴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켰다. 유네스코는 이 해를 문화와 문명 간의 이해와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공동의 장으로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2003년:**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및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 (세계 정보사회정상회의(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와 연계)

■ **2004년:** 인권의 존중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의 마감과 연계)

■ **2005년:**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베이징+10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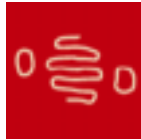
#### 사. 2000년 선언(Manifesto 2000)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2000년 선언’은 2000년 평화문화의 해 동안 약 7400만명(세계인구의 1%)의 서명을 받았다.<sup>79)</sup> 이 선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80)</sup>

79) 평화문화와 세계아동을 위한 비폭력 10년에 대한 유엔사무총장보고서 (A/56/349), p. 4.

80) <http://www.unesco.org/cpp/uk/declarations/wcpbei.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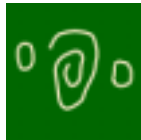
각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차별과 편견 없이 존중하라.



모든 형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 폭력,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과 같이 가장 혜택 받지 못하고 취약한 집단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비폭력을 실행하라.



배제, 부정과 정치·경제적 억압을 종식하기 위하여 관용의 정신으로 시간과 물적 자원을 공유하라.



광신, 비방과 타인에 대한 거부 없이 항상 대화와 청취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옹호하라.



책임있는 소비태도와 모든 형태의 생활을 존중하는 개발 관행을 촉진하고 지구의 자연을 균형 있게 보존하라.



여성의 완전한 참여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대를 창출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라.

#### 아. 평화문화 웹사이트(Culture of Peace Website) 운영

유네스코는 평화문화의 해를 위하여 국가위원회와 조정센타를 설립하고 평화문화10년의 맥락에서 지역과 국제수준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거점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국제차원 :

- 유네스코 본부부서와 프로그램 (ED/ASP, ERC/NGO + NGO-유네스코 연락위원회 등)

- 유엔본부 부서와 프로그램 (DSA/NGO, DPI/NGO 등)
- 기타 기구의 부서와 프로그램 (UNICEF, UNIPeace 등)

**지역차원 :**

- 유네스코 지역현장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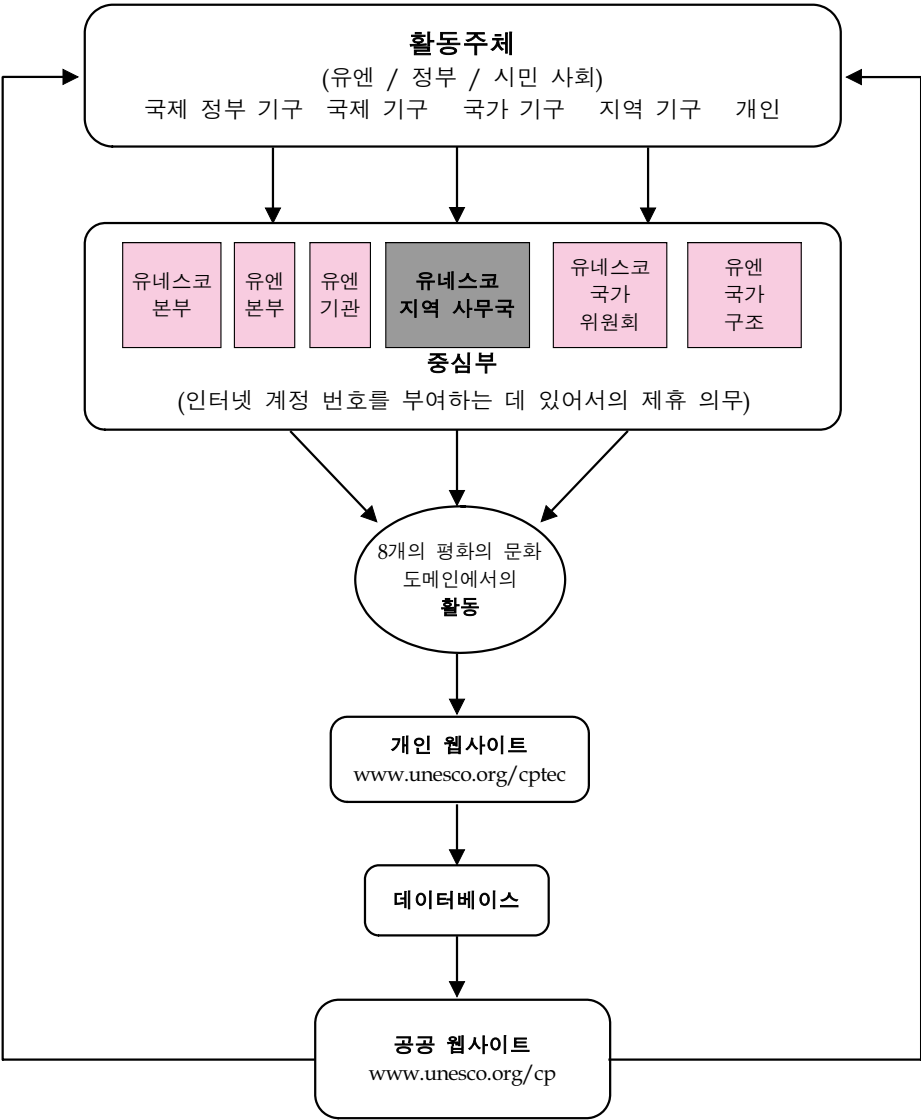
**국가차원:**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 유네스코 국가현장사무소
- 유엔, 유엔기구와 프로그램의 국가사무실 (UNDP, UNICEF 등)

거점기관들의 기능은 (1) 그들이 접촉하고 있는 네트워크로부터 시작하여 세계적인 운동과 평화문화10년을 광범위하게 알리고, (2) 가능하면 많은 수의 활동가들이 평화문화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3) 8개 부문의 평화문화활동을 육성하고 평화문화10년을 위한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웹사이트는 개인인터넷 계좌번호를 통하여 접속 가능한 개인웹사이트([www.unesco.org/cptec](http://www.unesco.org/cptec))와 활동가들이 그들의 평화문화활동을 공지하는 공공 웹사이트([www.unesco.org/cp](http://www.unesco.org/cp))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문화 웹사이트의 목적은 (1) 모든 필요한 정보와 의사전달도구를 배 포함으로서 세계적인 운동을 증진시키고, (2) 평화문화를 위한 활동의 부각을 통해서 활동의 증진을 지원하고, (3) 파트너십의 구축을 장려하는 자원교환지구사회(Planet Society Exchange Market of Resources)를 통하여 활동가들 간 자원의 교류를 장려하는 것이다.

평화문화를 위한 세계운동  
평화문화 웹사이트 기능



## 2.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주도

### 가. 성과 평화의제에 관한 전문가회의(Expert Group Meeting on Gender and the Agenda for Peace)

유엔여성향상국은 1994년 12월 뉴욕에서 ‘성과 평화의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북경대회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나이로비여성발전미래전략 제1차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권고와 결의가 촉구하고 있는 “여성을 평화와 무장해제와 관련한 국제협상에 대표의 일원으로 포함할 것을 포함하여 갈등해결과 평화과정에 있어 모든 정책결정수준에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sup>81)</sup>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방안과 관련하여 이 회의는 유네스코와 협력 하에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회의 후 1995년 4월에는 유네스코가 여성향상국과 협력하여 평화문화전략을 북경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마닐라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2)</sup>

- 국제평화와 안보과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부재가 평화와 안보의 개념을 왜곡시켜 왔다. 어떠한 평화과정이라도 그것이 정당하려면 성 균형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이 정책결정과정과 평화와 안보를 위한 모든 상황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1)평등과 비차별의 기본원칙과 (2)국제평화와 안보분야의 문제해결에 여성이 가져다 줄 명확한 관점 때문이다.
- 그동안 남성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폭력의 효능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점, 여성의 참여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정책의 본

81)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Gender and the Agenda for Peace(Appendix 1),” in Breines 외(1999), 앞의 책, p. 193.

82) 위의 보고서, pp. 193-208.

질과 효율성을 질적으로 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접근을 세계 곳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히 평화에 대한 여성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 진정한 안보와 포괄적인 평화는 전통적으로 시민과 군대의 힘에 의하여 방어되어 왔던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에 우선순위를 둔다. 군대는 진정한 인간안보를 이룩하는 데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인간안보는 의도적으로 전쟁문화를 평화문화로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포괄적 평화는 인간사회에 만연하고 인간안보를 침식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형태의 폭력을 극복하는 통합된 접근의 결과일 것이다.
- 폭력은 광범위하지만 상호연관성이 있는 사회적 환경의 총체로서 다층적인 문제이다.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빈곤, 정치적인 억압, 인간정체성에 대한 존엄성의 손상, 환경악화와 핵무기, 무기거래 및 무력갈등은 모두 상호연관된 특성을 가진 폭력문화이다. 예방외교와 조치, 평화유지, 평화구축은 그것이 무력갈등과 사회적 폭력, 발전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양상의 안보,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 그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미칠 효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정책과 행동은 진정한 평화정책으로 간주될 수 없다.
- 폭력문화에서 평화문화로 나아가려면 포괄적이고, 면밀히 계획되고, 신중하게 감시된 사회각층의 비무장과정과 모든 문화양상의 비무장화를 필요로 한다.
- 사무총장의 '1992 평화의제'는 갈등을 폭력적인 갈등과 동일시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폭력적인 갈등이 파괴적이고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갈등 그 자체는 정의를 향하여 나아가고 변화에 순응할 때는 어쩌면 유용하고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사무총장의 평화의제는 예방외교, 평화중재, 평화유지 및 갈등 후 평화구축의 4가지 개

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제에서 파생된 접근은 두 가지의 명백하고 상반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군사적 위협과 군사력 보다는 포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안보와 환경안보를 이룩하려는 접근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은 유엔이 발전, 인권과 환경을 위한 의제로 임무를 확대시키면서 대폭 수용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 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안보에 대한 정의가 군사적인 방법을 통하고, 더욱 평화를 강요해서 공동안보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평화유지는 선거감시, 인도주의적 구조와 같은 활동으로 확대되었지만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군사력의 동원도 증가되어 왔다. 평화유지와 평화강요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평화유지는 개입된 측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강요는 그렇지 않다. 평화유지에 있어 강요는 최소한이고 자기방어를 위해서만 사용되나 평화강요는 강제적인 힘을 도입한다. 평화유지는 공평하지만 평화강요는 공평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평화중재는 세계법정의 이용, 인도주의지원을 통한 개선, 제3자 중재, 경제제재조치와 군사력과 같은 광범위한 활동으로 묘사되고 있다. 평화중재가 힘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힘의 사용을 내포하고 있다면 어떠한 평화도 최선의 경우에라도 일시적인 것이다.
- ‘1992 평화의제’의 갈등 후 평화구축부문은 교통, 천연자원의 이용과 문화교류, 청소년과 교육사업과 같은 국가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신뢰와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은 위기조치를 장기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계시키는 중요한 조치들이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목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갈등 후 평화구축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구축의 방법을 넓혀서 갈등의 발발을 피해 나가는 것이다. 평화구축은 갈등 후 상황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어떠한 의제도 생산적인 갈등의 단계적 확대와 단계적 축소 두 가지 모두를 위하여 신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갈등 해결 기술의 일환으로 합의에 기초한 제3자 개입의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1989년 필리핀에서의 ‘인간의 힘’, 1989년 동유럽에서의 평화적인 변화, 1992년 러시아 민주화과정에서의 구테타에 대한 저항 등이 보여 준 비폭력투쟁이 좋은 예이다.
- 폭력의 효력에 대한 신화에 여성과 모두가 맞서야 한다. 여성은 폭력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비폭력은 여성적이고 비효율적이며, 폭력은 남성을 위하여 보존해 두어야만 한다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것을 구별하는 가설이 있다. 이러한 가설이 여성이 평화와 안보문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게 하는 신화 중의 하나이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신화는 잠재위지고 비폭력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나. 북경행동강령 평화의제

1995년 9월에 열린 북경대회는 여성향상국과 유네스코 전문가회의, 그리고 유네스코가 공식문서로 제출한 성명서를 반영하여 행동강령의 평화의제에 평화문화전략을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나이로비 미래전략에서 채택된 인간안보의 관점으로부터 세계여성대회 과정은 평화문화로의 전략적 진전을 이룩하였다. 북경행동강령 평화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3)</sup>

-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등, 발전,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고 무력하게 한다. 모든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는 적든 크든 신체적,

83) 정순영 외(1995), 앞의 책, 북경행동강령 12개 관심분야 중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분야.

성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다. 여성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정신적 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혹은 그것을 초래할 수 있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행위를 뜻하며 이에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의 위협, 강압 또는 자유의 일시적 박탈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구타, 가정 내 여자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지참금 관련 폭력, 혼인 시 강간, 여성 생식기 절제 및 기타 여성에게 해로운 전통적 관습, 착취에 관련된 폭력
  -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직장 내, 교육기관 및 그 외 기관에서의 강간, 성적 학대, 성 희롱과 위협,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매춘 등
  - 국가에 의하여 방조되거나 묵인되는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타 행위는 무력분쟁상황에서의 여성의 인권침해 특히 살상,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화와 강제임신 등을 포함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는 강제불임과 강제낙태, 피임제의 강압적 강제적 사용, 여자태아 살해, 태아 성 감별 등도 포함한다.
- 소수민족집단 여성, 토착민 여성, 난민여성, 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여성이주자, 농촌 및 외딴 지역에 사는 빈곤여성과 빈민여성, 감금상태의 여성, 여자어린이, 장애인여성, 노인여성, 피난민여성, 송환된 여성, 빈곤상황하의 여성과 무력분쟁 및 외국인점령, 침략전쟁, 내란, 인질억류를 포함한 테러행위의 상황 하에 있는 여성 등과 같은 여성 집단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강제적으로 종속적 지위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사회적 구조의 하나이다. 많은 경우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가족 내 혹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데 이때의 폭력은



때로는 묵인된다. 배우자 및 비배우자 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집안 내 가족과 기타 인물에 의한 여자아동과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와 강간은 종종 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러한 폭력이 신고 될 때조차도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혹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이르지 못하기도 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남녀간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반영으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와 차별을 초래하였고 여성의 완전한 지위향상을 막아왔다. 생애주기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유형, 특히 전통적 또는 관습적 습관의 유해한 결과이며 가정, 직장, 지역사회 및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낮은 지위를 영속시킨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가중되는데 이는 특히 여성에게 가해져 온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 체면손상으로 여겨지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여성의 법률정보, 원조 혹은 보호에 대한 접근의 부족, 여성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의 결여, 기존의 법 개혁 실패와 기존법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실행하는데 대한 공공당국측의 부적절한 노력,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표명하는 교육적 및 기타수단의 부재 등도 문제가 된다. 미디어에서의 여성폭력의 이미지 특히 포르노를 포함한 여성과 소녀를 성적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간 또는 성적 노예화를 묘사하는 것들은 그러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만연하게 하는 요인이며 지역사회, 특히 아동과 젊은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촉진하는 중대한 과제에 대한 전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안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실현 가능한 것이다. 남녀 간의 평등, 동반자의식,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사회화과정의 모든 단계에 침투해야 한다. 교육체계는 자기존중, 상호존중, 남녀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 폭력사건에 대한 적절한 성별분리자료와 통계의 부재는 프로그램의 구체화와 변화의 모니터링을 어렵게 만든다. 직장 내를 포함한 사적

및 공적 부문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가정폭력에 관한 부적절한 문서 및 연구의 결여는 특정한 개입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한다. 많은 국가에서의 경험은 여성과 남성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극복하는 데 동원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인 공적 조치가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표명하는 데 취해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성 폭력에 반대하여 활동하는 남성단체는 변혁을 위한 필요한 우방이다.

- 여성은 분쟁 및 비분쟁상황에서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자들에 의하여 조장되는 폭력에 취약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사업 및 인권법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관리의 훈련과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자의 처벌은 그러한 폭력이 여성이 신임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경찰, 간수, 보안인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언급할 때, 정부와 기타 주체들은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관점을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주류화 하는 적극적인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남성과 여성의 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유형을 수정하고 또한 일방의 성이 다른 성에 대한 열등성 혹은 우월성을 가진다는 관념과 남녀간의 정형화된 역할에 기반한 편견, 관행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특히 교육분야에서 채택한다.
- 사법, 의료, 사회교육, 경찰, 이민 요원 등에 대한 성 관점의 훈련프로그램을 창안하고 개선, 발전시킨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철폐와 관련한 활동을 위하여 정부예산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지역사회단위의 교육과 훈련 캠페인을 조직, 재정지원하고, 갈등해결에 있어서 지역사회로 하여금 적절한 성 인지적인 전통적 및 혁신적 방법을 동원하게 한다.

-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를 가르치고, 폭력에 대하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훈련을 촉진한다.
- 폭력을 조장하는 매체표현의 패턴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비정형화된 이미지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매체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또한 매체내용에 책임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에 일치하는 전문적 지침과 행동규범을 확립하도록 장려한다.
- 매체로 하여금 성에 기반한 폭력 및 불평등을 조장하는 상업광고에 의하여 자행되는 것을 포함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의 영향과 그러한 것이 생애주기에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검토하게 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유엔헌장에 규정된 대로 영토통합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비협박 또는 무력사용금지 및 주권존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권, 민주주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보호하는 환경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다. 평화는 남녀간의 평등 및 발전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력 및 기타 형태의 분쟁, 테러행위 및 인질억류 등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존재한다. 침략, 외국인 점령, 인종 및 기타 형태의 분쟁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남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심각한 장애를 구성하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침해와 상황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침해와 장애들에는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 또는 처벌, 즉결 및 임의 처형, 실종, 임의감금,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점령 및 외국인 통치, 외세침오, 빈곤, 기아 및 다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거부, 종교적 배타주의, 테러행위, 여성에 대한 차별, 법규칙의 결여 등을 포함한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국제인도주의법은 때로는 체계적으로 간과되고 인권은 무력분쟁상황과 관련하여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종종 침해 받는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 인권의 침해는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법의 기본원칙의 침해이다. 인권의 방대한 침해는 전쟁과 그 결과로서 특히 집단학살, 전쟁상황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 등은 강력히 규탄되고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력분쟁의 어떠한 상황은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지배 또는 식민지화와 국가와 군사적 억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 여성은 전쟁 시 비인격적 대우, 강간, 강제매춘 또는 다른 형태의 비인간적 폭력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살인, 조직적 강간, 성적노예화 및 강제 임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침해는 특히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 전쟁으로 황폐화 하고 점령된 지역에서 방대한 인권침해와 인종청소 정책이 계속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과 기타 난민들과 국내난민들, 그 대다수가 여성, 청소년 및 아이들의 거대한 유동을 만들어 냈다. 거의가 여성과 아동인 민간인 희생자는 때로는 전투병 사상자보다도 훨씬 많다. 게다가 여성은 때로는 부상당한 전투병을 위한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분쟁의 결과로 그들 자신이 예기치 않게 세대의 유일한 관리자, 편모, 노인 친척을 돌보는 이로 전략하게 된다.
- 권력구조에의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와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의 여성의 완전한 개입은 평화와 안보의 유지와 촉진에 필수적이다. 여성이 분쟁해결, 평화유지 및 보호와 외부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정책결정직위에의 참여가 저조하다. 여성이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평등한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력을 결집해야 하고 모든 차원의 정책결정에서 적절히 대표되어야 한다.
- 전체 지역사회가 무력분쟁과 테러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한편, 여성과 소녀는 사회에서의 지위와 그들의 성으로 인하여 특히 영향을

받는다.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여성을 면책으로 강간하기도 하며 때로는 조직적인 강간을 전쟁과 테러행위의 전술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과 여성인권침해의 영향은 모든 연령의 여성이 경험한다. 이들은 주택과 재산의 손실, 가까운 친척의 비자발적 실종, 빈곤과 가족별거와 해체 등을 겪고 또한 이들은 특히 인종 청소정책 및 기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의 결과로서 무장분쟁상황에서의 살인행위, 테러행위, 고문, 실종, 성적노예제, 강간, 성적학대 및 강제임신 등의 피해자들이다. 이것은 전 생애에 걸쳐 무력분쟁, 외국인 침략 및 외국인통치의 사회경제심리적 장애결과로 나타난다.

- 여성과 아동은 국내난민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수백만 난민과 기타 난민의 80%를 차지한다. 이들은 재산, 물품과 서비스의 박탈과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권리의 박탈, 그리고 폭력과 불안정 등의 위협에 놓여 있다. 테러행위와 위협의 체계적인 캠페인을 할 때, 그리고 특정민족, 문화적 또는 종교집단 멤버들에게 강제로 그들의 고향을 떠나게 하는데 있어서 박해의 수단으로 사용된 쫓겨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 폭력에 대하여 특별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 많은 여성비정부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무기의 국제통상, 암거래 및 확산뿐만 아니라 군비에서의 감축을 요청해 왔다. 분쟁과 과도한 군비에 의하여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은 기초서비스에의 투자부족으로 인하여 박탈되어 빈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특히 농촌여성인 이들 빈곤여성은 또한 특히 해를 입히고 무차별한 결과를 낳는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64개국에 1억개 이상의 대인살상용 지뢰가 흩어져 있다. 과도한 군비 개발, 무기통상과 무기생산과 구입에 대한 투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억제되어야 한다.
- 무력분쟁 및 공동사회가 붕괴하는 기간 중에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들은 무력 및 기타 분쟁 가운데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기도 한다. 여성은 그들의 가족과 사회에서 평화교육자로서

중요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공헌을 한다.

-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정의와 관용을 옹호하는 평화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며 초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는 분쟁해결, 중재, 편견의 감소와 다양성의 존중 등에 대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무력 및 기타 분쟁에 관하여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남성과 여성 각자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 관점을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주류화 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무력분쟁상황에서의 강간, 강제임신, 모욕적 폭력에 관한 사건과 테러 행위를 포함하여 무력분쟁에서 여성에 대한 다른 형태의 폭력 등에 관한 사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검사와 판사, 기타 공무원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구들이 성 문제를 적절히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성 관점을 이들의 업무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 군사자원 및 관련 산업을 개발과 평화적 목적으로 전용하고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추가재정의 가능한 할당을 허용할 수 있도록 과도한 군비의 적절한 감소 등을 통하여 새로운 공공 및 민간 재정자원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추진한다.
- 무력분쟁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국제인도주의법 침해와 여성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 보안 및 무장인력 및 기타요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 불법무기통상, 폭력, 범죄, 불법마약의 생산, 사용, 거래,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강간, 강제매춘 등을 퇴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분야에서 핵무기확산금지 및 무장해제에 기여하는 협상을 지지하며 테러행위에 대하여 대응한다.
- 평화중재 및 협상의 모든 단계에의 모든 의사결정차원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평등한 대표성을 도모한다.

- 인권의식에 관련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 인지적 관심을 고려하고,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할 목적으로 인권관련 부문 종사자들에게 그러한 훈련을 권고한다.
- 평화문화에의 여성 기여를 위하여 특히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지역사회 활동과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화적 분쟁 해결과 평화, 화해 및 관용의 문화를 확산시킨다.
- 여성과 아동에 대한 무력분쟁의 영향과 국가적·지역적·국제적 평화운동에의 여성참여의 성격과 공헌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여성의 참여를 포함하는 평화연구의 개발을 더욱 권장하고, 폭력을 포함하여 공공확산 및 남성과 여성에 의한 사용을 위한 분쟁해결을 위한 혁신적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한다.
- 여성, 특히 젊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무력분쟁의 신체, 심리, 경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개발하고 확산한다.
- 특별히 여성이 표적으로 된 학대의 반응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의 개발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지하고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그러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이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한다.

다.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갈등해결: 성 차이의 영향에 관한 전문가회의  
(Expert Group Meeting on Political Decision M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The Impact of Gender Difference)

여성지위위원회는 1996년 10월 산토도밍고에서 표제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전문가회의는 북경행동강령에 명시된 평화의제의 전략목표와 행동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제41차 연례회의(1997)의 주요관심분야를 ‘권력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여성’, 제42차 연례회의(1998)의 주요관심분야를 ‘무력갈등과 여성’으로 채택하였다. 표

제의 전문가회의는 이들 두 회의를 위한 준비회의로서 열렸으며 회의결과는 여성지위위원회회의의 배경문서로 제출되었다. 평화문화와 관련하여 여성의 힘 증진을 강조한 이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sup>84)</sup>

- 정치적인 의사결정, 전쟁행위와 갈등 후의 상황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전쟁의 개입변수는 일상적으로 남성에게 의하여 정의된다.
  - 전쟁행위는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개입시키고 영향을 미친다.
  - 갈등 후의 삶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
- 평화과정은 모니터링,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예방외교, 갈등이 있는 곳에서의 평화중재, 평화유지에 합의했으나 평화가 지속되지 않는 곳에서의 평화유지, 갈등 후의 국면에서 뿐만 아니라 갈등기간이나 갈등이 없는 기간까지에도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서의 평화구축을 포함한 평화의 조건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연속이다.
- 평화중재는 폭력적인 갈등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갈등에 깔려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 없는 평화는 일시적일 뿐이다. 평화중재는 강제적인 권력의 행사보다는 권력이 평화적인 해결의 목적을 지닐 때에 최상일 수 있다.
- 1992 평화의제에서 발생한 서로 상반된 경향은 군사력이나 협박보다는 포괄적인 인간안보의 방법을 통하여 해소된다. 유엔의 임무로 받아들여진 이러한 접근은 평화의제를 발전, 인권과 환경으로 확대시켰다.
- 평화유지와 강요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유지는 개입된 당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나 강요는 그렇지 않다. 전통적인 평화유지에 있어 무력은 최소한으로 자기방어를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나 평

84) UNDAW(1996),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Political Decision M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The Impact of Gender Difference.*



화강요는 강제적인 힘을 사용한다. 평화유지는 한쪽의 편을 들지 않지만 평화강요는 편파적이다.

- 갈등 후 평화구축에 첨가해서 폭력적인 갈등을 회피하게 하는 평화구축에 에너지와 자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갈등 후 평화구축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구축의 접근을 확대해서 폭력을 유발하는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폭력의 발생을 막는 것이다. 평화구축은 폭력적 갈등 후의 상황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증진과 이행이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폭력적인 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경제정의의 증진, 부상하고 있거나 악화하고 있는 폭력의 예방, 경제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수적이다.
-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평화를 지속하는 필수적인 방법이다. 만인을 위한 교육은 민주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열쇠이며 정책결정수준의 직위로 채용되는 광범위한 기반을 보장한다. 공식과 비공식, 학교, 가정, 매체와 사회기구를 통한 교육은 인간이 평화문화의 가치, 태도, 행동양식을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교육은 상이한 사회문화양식을 포함해야 하고 사회문화양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성 인지적인 인간사이의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해야 한다.
-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한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성 관점의 포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풀뿌리단계,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 정부와 국제수준을 포함한 다단계에 대한 훈련과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 성 관점을 반영하고 정책결정과 갈등해결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권력과 안보에 대한 상이하고 변화된 개념화의 증진이 필요하다. 권력에 대한 변화된 시각의 증진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인 성 평등에 대한 원칙의 조속한 이행을 암시한다.

# IV



## 평화문화 실현방안에 대한 권고

1. 평화문화의 지향구조 관련 사항	98
2. 문화적 접근의 구체적 조치	102

유네스코와 여성지위위원회에 의한 전략 전개를 통하여 나타난 평화문화 실현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실행을 통해서 이룩될 규범과 관련한 것이다. 평화문화의 당위적 지향구조로서 포괄적 안보, 인권의 존중, 문화의 다양성,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한 발전, 동반자로의 계약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이러한 지향구조를 향한 문화적 접근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 훈련, 연구, 배포, 매체, 예술분야에서의 구체적 조치가 포함된다. 이 두 가지 범주 중 전자는 문화로부터 변화를 시동하는, 즉 문화를 독립변수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패턴의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구조결정주의적으로, 구조를 바꿈으로써 문화의 변화를 이룩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과거와 다른 정책수단을 도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99년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향구조 관련 사항은 이미 과거로부터 추구되어 왔던 것을 평화문화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종합한 것이다.<sup>85)</sup> 즉 새로운 것은 의식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조개혁을 실현하는 접근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유엔여성협력활동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평화문화전략은 협의의 관점에서는 후자의 범주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범주는 광의의 총체적 관점에 통합되는 것으로서 문화전략과 연계되는 다른 전략적 측면의 전체를 포괄한 것이다. 광의의 관점은 평화문화전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이나 구체적 전략이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타전략부문과 중복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평화문화전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광의적으로 접근하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정책제언에 있어서는 협의의 범주, 즉 문화적 접근의 교육, 훈련, 연구, 배포, 매체, 예술분야에 집중한다. 마찬가지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데 관련되는 한국의 현황 파악도 협의적으로 다룬다. 권고사항을 범주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85) 앞의 책, p. 77.

## 1. 평화문화의 지향구조 관련 사항

### 가. 포괄적 안보

-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안보개념 적극화
- 인간안보 개념에 따른 안보기구의 구조적 변화
- 안보관련 제도의 공치적 성 평등 개혁
- 안보정책의 장기적인 예방 초점
- 모든 수준의 안보활동에 여성의 평등 참여
- 전쟁 시의 강간 등 처벌
- 안보리에 민주화를 위한 지구적공치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설치
- 성 주류화의 증진과 인간안보의 연계
- 무기개발, 생산, 배치와 판매의 등록, 궁극적으로 폐지
- 군비와 군수품 감축
- 무장해제를 위한 협상착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폐지를 위한 협약 협상
- 지뢰개발, 생산, 및 판매의 차단

### 나. 인권 존중

- 인권의 존중과 차별의 종식, 남녀평등권의 실현
-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 환경파괴와 무력갈등과 같은 인권침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회피, 경감 및 철폐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인권침해 취급, 여성 인권의 법적 보장, 경제·사회적 권리의 남녀평등 적용

- 난민여성의 보호, 난민의 경험에 대한 성 인지적인 평가, 갈등해결이나 화해과정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난민의 참여 보장
- 피난민과 난민 귀환 평가 시 여성과 어린이의 경제적, 정치적 및 법적 요구 인지, 잠재적인 귀환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귀환과 재정착과정의 자유선택, 원조기구의 직원 등에 대한 강간, 강제매춘 및 성 노예 충격 인지 훈련
-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대표성에 기반을 둔 정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기구 강화
-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립
- 시민사회의 여성폭력 감시체제 수립
- 피해여성의 관심사를 공식중재자에게 연결시키는 기제로서 지역여성의 평화감시기구 설립
- 피해여성의 역량과 협상기술 강화, 협상과 평화유지단계에서 피해여성의 효율적인 참여를 모니터하기 위한 자원 조성

#### 다. 문화의 다양성

- 개인, 집단간 차이의 공존, 유대 장려, 이를 위한 윤리위원회 창설
- 문화 간 대화 발전, 문화의 생산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세계화 속의 문화다원주의 모색, 지구적 공치의 실현
- 지역사회 간 상호작용 문화활동 장려, 지역사회 간 대화 포럼 창설
- 인간의 다양성 거부하는 일원적 지배주의 철폐
- ‘관용원칙에 대한 선언’과 ‘유엔 관용의 해를 위한 후속행동계획’의 이행
- 분쟁해결, 관용증진에 대한 지역, 원주민 관례 연구
- 취약집단과 함께 관용, 사회적 유대 육성
- 소수집단의 문화권리, 학문적 자유 촉진
- 모국어 교육 강조에 대한 의문 제기
- 타 문화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 정형화 폐지

## 라.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한 발전

- 사회경제적 발전정책과 프로그램이 여성의 인권과 평화와 안보문제에 미칠 영향 검토, 환경뿐 아니라 인류적,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의 추구, 특히 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 이중기준의 철폐와 인간유대의 책임 인정, 개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취약집단의 존엄성과 안녕 보장
- 폭력구조 철폐, 갈등의 해결과 방지에 성 관점 통합
- 군비지출의 감소, 평화구축 활동과 사회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
- 비폭력 갈등해결을 위한 예산과 제도적 역량 증가, 각국 군비의 매년 GDP의 5%씩 5년간 감소, 저축된 기금의 성 인지훈련, 갈등해결훈련, 변화를 위한 여성의 비폭력전략, 인간의 욕구를 위한 지출을 포함하는 평화활동에 사용
- 국가 GDP의 1%이상 군비지출 억제, 인구에 대한 군인비율의 0.5% 이내 제한
- 개발전략에의 성 관점 통합, 특히 빈곤여성가장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상 조치 도입
- 특히 여성에 편견적인 경제적, 사회적 박탈의 폭력, 빈곤, 배제, 차별과 같은 사회적 불공평 철폐
- 원조, 교역과 경제정책에서 재건과 예방의 필요 고려
- 폭력적 갈등 유발요인으로서 빈곤의 영향 조사
- 전쟁과 복구의 맥락에서 구조조정프로그램 자원의 사회개발 목적 사용, 인권보호, 사회부문 투자(특히 보건과 교육)와 경제개혁과 전쟁의 결과로 증가되는 취약, 빈곤그룹 특히 여성극빈자에 중점
- 사회개발, 신용투자, 농촌지도와 경제 하부구조, 여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해체그룹의 사회·경제로의 복귀를 위한 원조의 사용

#### 마. 동반자로서의 계약

- 평화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 가부장적 성 역할의 타파와 기회균등 보장, 선택의 자유와 책임의 공유
- 가정과 가사의 책임 공유, 교육의 기회, 경제적·공적문제에의 참여, 남녀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성 계약 특별계획 도입
- 평화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원
- 경제, 정치, 사회개발에서 여성을 주변화 하거나 제외시키는 억압적 관행과 구조 제거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책결정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적 행동과 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 남녀의 평등한 시민권과 민주적 참여
- 지구적 상호의존성, 공통적인 인간의 요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동책임의 현실에 대한 인식 제고
- 가족 간 및 가족 내 불공정성을 초월하는 동반자적 계약에 대한 인지
- 경제적 불공정과 정치적 불공평 극복
- 경쟁심의 협력정신으로의 대체
- 지구촌시민권의 남녀 공유, 인종, 국적 등을 초월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 형성
- 갈등해결과 평화과정에 풀뿌리단계 여성의 개입 확대, 성 관심사 반영 보장
- 지역사회여성의 평화문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개입
- 토착민, 특히 원주민 여성에 의하여 주도되는 갈등해결 과정 지원
-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및 기타 시민사회기구에서의 여성의 힘 증진

## 2. 문화적 접근의 구체적 조치

### 가. 교육 및 훈련

- 평화문화를 향한 장기적인 공공교육프로그램 도입
- 지식과 기술만을 강조하고 가치와 태도를 소홀히 하는 정규교육 교과과정의 개혁
- 평화를 향한 가능성과 장애요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모든 수준과 범위의 교육에 통합
- 초기 유아교육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평화교육의 수행
- 인권교육에서 여성의 인권과 평화간의 통합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와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특별한 강조 필요
-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위한, 특히 여성에 의하여 개발되고 실시된 주도행위 증진
- 교사교육과 기술개발을 위한 교과과정개발을 포함한 평화문화 교육의 계획 이행
- 소녀와 여성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평화문화적 표현의 학교교육 반영
- 어린이 교육에서 자아, 타아와 그들 간 내적 관계에 대한 이해 개발
- 평화교육에 성 사회화와 평화문화의 관계 주제 포함
- 소녀에 대한 교육에서는 협조를 강조하고 소년에 대한 교육에서는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인지 제고
- 성 평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기준의 목적과 요구, 정책의 투명성과 성에 관한 개인적인 결정의 필요에 대한 교육 규칙적 제공
- 전쟁장난감과 폭력적인 놀이에 반대하는 공공교육 캠페인 조직, 평화문화에 도움이 되는 대체장난감과 놀이방법 개발, 소년의 놀이방법에서 폭력문화 제거



- 무기가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합법적인 무기를 개인적·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거절
- 권력과 국가안보에 대한 변화된 개념에 대하여 더욱 충분하게 토의할 수 있도록 지역, 국가 및 국제차원에서 회의 개최, 토의의 결과 반영, 배포
- 군복무의 양심적인 거부자에 대한 평화구축기술 훈련
-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인원 에 대한 성 인지 훈련의 의무적 제공
- 평화활동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남녀 포함
- 법적 문제 담당 행정부 및 사법부 공무원에 대한 성 의식고양 훈련세미나 조직
- 여성의 전문직 경력개발, 특히 기업경영 훈련 참여 권장
- 군대의 비인간적인 훈련기술과 교련, 군대내의 문화를 만드는 데 여성의 부정적인 이미지 사용 예방, 금지
- 개인의 능력개발과 문화 간의 대화, 특히 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같은 주제에 대하여 교육할 잠재적인 훈련가를 위한 다문화훈련과정 수립
- 교사훈련과 교과과정개발에서 비폭력적 갈등해결과 평화중재를 위한 여성의 역할 및 기여와 관련된 요구 반영
- 인권의 중요성, 특히 여성의 인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수행, 인권교육프로그램에 성 인지 훈련 포함
- 모든 수준의 교육제도에 평화, 갈등해결 및 성 인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행
- 학교체제에서 ‘유네스코선언’과 ‘평화, 인권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통합체계’(제네바 1994) 이행, 성 관점 강화
- 성 인지적 갈등해결 훈련과 역량강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평화구축활동인력(남성과 여성 포함)에 대한 성과 문화 인지적 훈련 실시
- 잔인한 측면을 제거하기 위한 기초 군사훈련방법 개혁
- 사회정책결정수준에 성 인지훈련 포함

#### 나. 매체 및 예술

- 성 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문화적 관행에서 평화문화 장애요소 제거, 특히 문화의 강력한 매개체인 매체와 예술에서의 폭력 문화에 대한 조사
- 평화문화 창출에 있어 예술의 창조적, 교훈적, 변혁적 기능을 통한 평화문화의 비전 제시
-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활동, 교사, 예술인, 신문인, 작가의 평화문화 역할 증진
-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인간개인을 축복하는 예술의 장려
- 여성의 매체기술 활용 장려, 훈련
- 여성 비디오그룹, 지방라디오방송국, 지역라디오방송국의 활동과 프로그램 지원
- 임시방안으로 여성의 견해와 관심을 표명하기 위한 매체 필요
- 주류 및 대체 매체에 의한 여성의 관심과 흥미 증진, 성을 초월한 대화 장려
- 시민사회조직의 공영방송체제 방어, 강화
- 평화문화를 육성할 진일보된 공영방송매체 가능성 탐구
- 매체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성 관점 통합
- 미래의 저널리스트에게 성과 문화적 고정관념 및 타국과 타문화에서 보고 할 때 발생하는 오해에 대한 인지 필요
- 여성기업인협회나 광고기관의 광고 분야 활동가를 위한 성 인지 프로

#### 그램 고안 추진

- 여성소비자조직에 의한 정규적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 발행, 폭력문화의 특성인 고정화, 성 차별 감소 추진

#### 다. 연구 및 배포

- 평화연구에 성 관점 통합
- (1) 국제, 국가와 지역의 평화과정과 운동에 여성의 참여에 대한 범위, 본질과 효과성, (2) 폭력억제와 갈등해결을 위한 전통적인 기제, (3) 평화와 안보에 대한 풀뿌리 층의 개념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 수행
- 개발사업에 다문화적, 성인지적 접근을 통합하는 연구 증진
- 갈등상황에서의 매체역할에 대한 연구 수행, 학교, 대학, 성인교육과 매체 자체를 통한 매체교육프로그램의 일부분이 되도록 연구결과 발간
- 포괄적인 안보와 평화문화에 관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연구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 제공
- 공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모델 및 다양한 형태의 갈등해결 및 공동체주의적 정의에 대한 상이한 개념에 대하여 연구 수행



## 주요 지역활동과 한국의 현황

---

1. 주요 지역활동	109
2. 한국의 현황	129



## 1. 주요 지역활동

1999년 10월 평화문화에 대한 유엔총회결의안 채택과 2000년 평화문화의 해를 계기로 평화문화 확산 운동은 세계적 인식을 넓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차원에서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조직되고 연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활발한 전개를 보였다.

주요 국제회의로서는 1999년 아프리카지역, 2000년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국제회의, 2001년 남아시아 지역의 여성과 분쟁해결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연구보고서로는 2001년 카리브 지역의 '성, 평화, 발전에 관한 지역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들 지역활동을 보면 아프리카와 같이 내전 등이 빈발하는 경우 무력분쟁으로 인한 폭력에 초점이 있었고 카리브 지역의 경우 평화교육 등에 강조점이 두어졌던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역별 조건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엔의 평화문화전략의 지역수준 확산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보적 확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들 지역수준 활동에서도 모범적 진전을 이룩한 선진사례 등이 주목할만한 정도로 등장하지 못하였다.

### 가. 평화문화에 관한 아시아여성회의 (Regional Conference on Asian Women for A Culture of Peace)

‘평화문화에 관한 아시아여성회의’는 2000년 12월 6-9일 베트남 하노이에 서 2000년 세계 평화문화의 해 및 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문화와 비폭력 유엔10년(2001-2010)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네스코와 협력, 베트남 정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 세계 35개국 15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2000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여성특별총회에서 주요쟁점사안의 하나로 다루어진 갈등예방과 평화구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이어 10월에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후속조치를 개발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6)</sup>

#### 1) 주요 논의사항

- 평화문화를 향한 주도적 활동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평화문화의 전제조건으로 폭력의 철폐, 인권을 위한 대화와 존중의 형성, 적의 이미지 불식, 문화 간 이해와 연대의 형성, 비밀성의 철폐,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 남성 지배의 철폐, 평등한 파트너십과 여성의 힘 증진이 요구된다. 평화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전쟁과 폭력의 코드를 버리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활동에 대비해야 하며 모든 학제 차원에서 평화교육이 필요하며 평화분쟁 해결 기술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 모든 학교 교과과정에서 평화와 갈등해소 기술과 연구가 의무화 되는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함해야 하며, 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 사이에, 문화 사이에,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 여성의 평화 주도활동은 전쟁과 분쟁의 결과로 많은 여성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의사결정 기회는 많지 않은 데서 오는 좌절과 분노에서 일어나며 이들의 행동은 분쟁관리에서의 전통적 역할과 기술에 의지하며 전통적 관습을 부활시키기도 한다.
- 평화문화와 관련하여 남성의 역할과 남성성은 가정폭력, 학교 및 전체 사회에서의 폭력을 포함하여 신체적 폭력의 90%가 남성에게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통계에 비추어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86)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n and the Pacific(2001), *Report of the Regional Conference: Asian Women for a Culture of Peace*, 6-9 December 2000 Hanoi.

- 인간이 전쟁과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평화 문화를 위한 네트워킹 및 공약이 필요하다.
- 장기적인 분쟁예방은 균형된 개발 및 빈곤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구성원 간에 평등한 이익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여성은 인신매매, 성 착취, 이주, 폭력과 불안정 등의 문제에서 피해자가 되어 왔다.
- 평화와 관련하여 아태지역에서는 (1) 성에 기반한 잔인성과 학대의 종식과 사회의 재건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 (2) 평화와 발전을 위한 여성평화 행동주의 및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행동전략 (3) 인간안보 추진에 있어 여성시민사회 조직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여성에 의한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 그러나 아태지역 통계를 보면 정책결정 차원에서 성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국가 및 국제적 발전 과정에서 갈등예방 및 평화구축을 위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 평화문화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비전은 남성 의사결정자와 다르다. 많은 여성들의 평화활동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바깥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평화로운 가정에는 남녀 간, 노소 간에 평화가 있고,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평화를 배울 수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존경하며, 양 부모는 자신과 언어, 종교 혹은 문화가 다른 이들을 존중한다. 그러나 가족은 고립해서 살지 않는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가족은 안전, 경제적 안녕, 존경, 폭력으로부터 자유, 학대 예방법을 필요로 한다.
- 여성은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활동적이어야 한다. 정부부처에 평등한 참여가 부족하므로 여성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통로를 통하여 함께 일해야 한다. 교육, 훈련, 사회화 및 연구 부문에서 가족 내에서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구를 배워야 한다. 여성이 평화를 위한 보다 넓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여성의 힘이 필요하다.

- 무력분쟁 상황 하에서 주류매체는 피해자와 침략자를 구분하여 지원해야 할 자와 반대해야 할 자에 대한 공공여론을 형성한다. 주류매체는 분쟁상황의 이면에 놓여 있는 역사적, 지정학적 및 사회문화적 이유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 TV와 영화산업에서 범람하는 폭력적 이미지, 게임과 장난감 등에서 표출되는 폭력, 공포, 피는 폭력문화를 조장한다. 차이에 대한 정형화된 메시지, 즉 우리만의 사회문화적 이해의 틀을 배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류매체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 주류매체에 의하여 정형화되고, 대표되지 못하며 가시화되지 못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 여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류매체의 이러한 경향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여성은 가부장적이고 남성주도적인 사회에서 배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성 매체종사자와 언론인, 그리고 여성행동가는 정형화, 폭력적 이미지로부터 평등, 정의, 관용, 평화의 가치를 도모하고 옹호하는 정보자원으로 매체를 변형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 여성은 모든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성 평등, 사회정의 및 평화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바꾸어 가야 하는 이해 당사자들이다.
- 전 세계 빈곤계층의 70%가 여성이다. 빈곤감소 전략은 빈곤여성을 위한 소득수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흡수적 경제성장을 요구한다. 빈곤계층으로 하여금 교육, 건강 및 사회서비스에의 접근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 여성은 평화를 전쟁의 부재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선택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본다. 아시아 각국에서 전쟁과 분쟁을 지속시키는 것은 군사적 가치를 추구하고 무력의 사용을 합리화 하는 군사주의 이념이다.
- 평화문화를 향한 인간안보 접근은 평화구축의 근원적, 장기적 해결을 제공한다.



2) 평화문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하노이선언 및 아시아 여성행동 계획(Hanoi Declaration and Asian Women's Plan of Action for a Culture of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지난 세기에 이루어진 많은 성과와 성 평등, 발전, 평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무력분쟁이 존속하고 있으며,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수많은 인명의 피해와 범죄와 폭력이 증가하고 빈곤과 사회적 편견이 아시아 여성의 짐으로 남겨져 있다.
-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체계적인 침해를 겪으면서 여성은 전쟁과 갈등상황에서 참상과 침략의 피해자이자 대상이 되고 또한 정치·경제·사회발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 인간안보와 평화문화는 폭력의 근본원인인 경제적 박탈, 사회적 부정의, 비관용, 소외와 차별을 철폐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방향이 요구된다.
  - 교육은 인권, 존엄성, 문화적 다양성 존중,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사회경제적 정책 및 구조의 재조정과 함께 인간개발과 평화에의 주요열쇠가 되어야 한다.
  - 매체는 대중의식을 형성하고, 남녀 간의 정형화 이미지를 제거하고, 전쟁과 무장 폭력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문화에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에의 균등한 참여, 취업훈련 및 생활자립 사업을 통한 여성의 힘 증진, 빈곤근절, 가족 및 공동체의 경제적 발전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잠재력 증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갈등해결 및 관리, 무력 사용 반대, 폭력예방, 치료 및 화해에 있어서 여성의 리더십 발휘능력뿐만 아니라 여성 특유의 경험, 관점, 기술과 능력이 인정되고 고양되어야 한다.

- 행동조치로서 교육, 훈련, 사회화 및 연구와 관련해서는
  - 교육정책결정자, 행정가, 그리고 성 인지력을 배양하는 교재, 교육방법, 교과서, 교사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 전문가를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에 참여시키고 비폭력적 갈등해결 방법을 배우게 한다.
  - 폭력적 장난감, 만화와 게임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권장하고, 또한 창의성과 평화문화 가치를 촉진하는 장난감 고안을 장려한다.
  - 학교 및 가정에서 폭력추방을 위한 법 제정을 장려한다.
  - 남성과 여성, 특히 부모, 교육자, 보건 관련 종사자, 경찰, 군대인력 등을 위한 평화적 분쟁해결 및 성인지 훈련을 도입한다.
  - 여성에게 리더십훈련을 제공한다.
  -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유대를 공유하며 분쟁상황에 있는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여성네트웍을 지원한다.
  - 폭력예방, 성 관계, 평화촉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한다.
- 평화구축을 위한 대중매체 및 커뮤니케이션에의 여성참여와 관련한 행동으로는
  - 장학금과 훈련기회를 통하여 매체, 언론, 새로운 정보기술 부문에 여성의 진입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 매체 여성네트웍을 강화한다.
  -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 매체학의 중점교과목으로서 성 분석 및 인권훈련 도입을 추진한다.
  - 평화문화 및 매체의 분석(매체문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자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 매체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아시아지역 매체소유자를 위한 포럼을 개발한다.
  - 매체기관, 국가 및 지역차원의 언론인 및 편집자 협회는 매체제도 내에 성 인지적이며 비폭력적인 윤리강령을 추진한다.
  - 여성 NGO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책개발에 여성과 모든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한다.

- 여성매체 종사자와 행동가는 북경행동강령 이행 검토 유엔여성특충(2000. 뉴욕)에 명시된 이행공약과 모든 권고안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매체를 활용한다.
- 성 불평등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폭력에 반대하기 위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혁신조치를 지원한다.
- 여성과 남성의 변화하는 역할을 중점으로 하여 매년 다른 주제로 여성사진가들을 위한 국제사진경연대회를 조직한다.
- 평화문화를 촉진하는 저술, 전략, 사진의 문서화, 기록화 및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고양시킨다.
- 평화구축 및 정치의사결정에의 성 관점 통합과 관련한 행동조치로는
  - 인간안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지역의 성별 인간안보지표를 개발한다.
  - 성 인지, 지구적 공치 및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 및 남성 지도자, 정책결정자를 훈련하는 아시아지역의 네트워크와 기관을 지원한다.
  - 기업지도자, 산업, 노동조합 및 소비자권익옹호자와 파트너십 및 대화를 구축한다.
  - 국가의 방위예산을 감축하여 평화배당금을 사회문화 교육부문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 평화문화를 향한 아시아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나. 평화문화에 관한 범 아프리카여성대회 (Pan African Women's Conference on a Culture of Peace)

‘평화문화에 관한 범아프리카여성대회’는 1999년 5월 17- 20일 탄자니아 잔지바에서 개최되어 아프리카 50개국을 비롯하여 비아프리카 10개국을 합한 총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아프리카 여성과 평화문화에 관한 유네스코 특별프로젝트(1998-1999)의 일부분으로 수행된 이 회의는 무력분쟁과 폭력의 증가에 직면하여 평화 촉진을 위한 아프리카 여성들의 행동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탄자니아 정부, 아프리카연대기구(OAU),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평화·개발 아프리카여성위원회(African Women Committee for Peace and Development : AWCPD) 등의 여러 기구와 협력하여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이 회의에서 채택된 평화문화를 위한 선언 및 아프리카여성 의제(Declaration and the African Women's Agenda for a Culture of Peace)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7)</sup>

- 식민주의로 인하여 초래된 사회, 경제, 문화 파괴의 결과, 아프리카는 독립 후 경제사회적 박탈, 부와 기회의 불균등 분배, 폭력적 갈등, 정치적 불안정, 독재 등을 경험해 왔다. 극심한 빈곤, 성 불평등, 배제적 정책, 문맹, 사회·경제·종교·정치적 안정의 결여와 민주화 과정에의 여성참여 빈곤은 여성을 주변화 시키고 여성의 능력과 경험·기술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과의 커다란 격차를 초래해 왔던 비우호적인 경제구조를 통하여 자원을 잃어 왔다. 그 결과 아프리카가 전 세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륙은 방향을 잃고 세계화와 시장개방경제의 현 추세에서 주변화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국제사회에 채무변제를 요구한다.
- 합의 구축과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여성의 노력과 혁신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화협상은 남성주도적이다.
- 아래의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분쟁예방의 비폭력적 수단과 인권을 촉진한다.
  - 조기경보체제에 의한 간파 및 대응
  - 전통적 아프리카 중재전략과 조화를 이룬 분쟁해결
  -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

87) UNESCO(2000), *Women Organize for Peace and Non-violence in Africa : Zanzibar Declaration Women of Africa for a Culture of Peace, The Women's Agenda for a Culture of Peace in Africa*,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11/121137eo.pdf>.

-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 정부, 아프리카연대기구, 평화와 발전 아프리카여성 위원회와 같은 지역 및 소지역 기구, 유엔 등의 국제사회에 특히 분쟁예방, 관리, 해결 및 평화협상 부문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균등한 참여를 시행하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
- 국민의 안보는 국가와 군사안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계 및 전반적 안녕의 문제임을 인식한다.
- 분쟁과 전쟁을 촉발하고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기확산을 비난하며 아프리카국가의 정부는 무기거래 감소 및 통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설치해야 한다.
- 아프리카 아동을 군사적으로로 이용하는 것을 비난하며 이들 아동을 풀어 주고 재사회화 하고 보호하여 건설적인 발전과정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무장해제, 마약통제에 관한 소지역차원의 혁신적 조치를 지원한다.
- 무장해제는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임을 재확인하며 모든 불법무기를 수거하고 또한 아프리카가 모든 종류의 무기가 없는 구역이 되게 하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에 헌신한다
-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 정부에 군사비용 감축 및 감축자원의 국민의 기본적 발전요구로의 재배치를 호소한다.
- 평화문화를 교육 및 사회화의 축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에 분쟁해결 및 평화협상에서의 상담 및 특별 프로그램과 훈련모듈을 포함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제사회가 아프리카의 평화운동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전 대륙이 분쟁예방, 해결 및 변화의 평화로운 수단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만든다.
- 평화교육을 위한 매체도구로서 성과 평화에 관한 범 아프리카 라디오 프로그램이 설립되어야 한다.

- 분쟁 예방, 관리 및 해결의 종합적이고도 성 인지적 관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 간의 협의, 연구 및 네트워킹에 참여한다.
- 소외 및 차별, 빈곤, 사회적 부정의는 폭력,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다. 폭력, 분쟁과 전쟁 상황에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국제인권법의 무법성은 특히 여성에게 큰 압박이다. 여성은 수많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에서 인권침해, 체계적 성 폭력 및 사회경제적 복지의 결여를 경험한다.
- 폭력적 갈등은 불안정, 이탈, 하부구조의 파괴를 수반하며 성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 성의 부정의, 성 특정한 범죄, 인적 자원의 손실은 정확히 평가되어야 한다.
- 평화, 갈등 및 성 쟁점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기획, 정책 및 행동에 필수적이다. 정보 수집은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갈등 후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 농촌사회에서 아프리카 여성은 정보자원으로부터 특히 단절되어있다.
- 기존의 대중매체는 사회정의, 성 평등, 평화의 메시지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분쟁 상황에서 매체가 평화, 관용, 비폭력의 성 인지적인 메시지를 조장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갈등예방, 관리 및 해결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 제도화 된 성 차별은 범죄이자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가족 및 다른 구조 내에서 갈등의 주 요인이다. 이것은 공공제도 및 모든 인간관계 측면에 침투한다.
- 안보는 개인,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것은 경제, 사회, 문화, 정신적 안녕과, 특히 폭력 갈등 시에 성에 기반한 폭력의 금지를 뜻한다.
-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인권과 평화문제에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며, 갈등해결 및 예방에서 기술습득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평화활동을 하는 이들 지역사회 기

반 조직, 네트워크, 제도적 메카니즘의 행동계획 이행을 제한하고 있는 예산상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아프리카 평화문화 여성의제는 빈곤, 소외, 경제·사회·정치적 부정의, 불완전한 민주화, 인권 침해, 법치의 부재를 포함하는 폭력의 근본원인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평화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성 인지적 연구,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아프리카 평화문화 여성의제는 평화문화와 여성의 완전한 힘의 증진 및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전략목표를 추구한다.
  - 분쟁예방, 분쟁조정 및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역할 촉진
  - 의사결정과정, 민주적 과정에 여성의 참여: 여성이 없는 민주화에서 여성이 있는 민주화로 변화
  - 주류 안보쟁점에 성 관점 통합
  - 여성단체를 평화문화의 배양근거지로 강화
  - 매체를 통한 성 정형화와 태도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주도적 조치 추진
  - 조기경보체제 강화 등 평화구축 과정에 적극적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의 여성 정보서비스 참여
  - 평화문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 갈등해결,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혁신적 방법에 관한 모범사례 연구 및 문서화 촉진

#### 다. 카리브지역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연구 보고서(Report on Gender,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Caribbean)

‘카리브지역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유네스코의 지역연구프로젝트로 수행되어 2001년 9월 유네스코와 서인도 대학교의 성 및 발전연구센터(Centre for Gender and Development Studies ; CGDS) 공동으로 발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 성, 평화 및 발전 관련 연구 및 개발사업의 문서화 (2) 성, 평화 및 발전에 대한 요구영역의 규명과 전략 프로그램의 제안 (3) 연구기관, 대중, 민간 및 NGO 부문의 잠재적 협력파트너 규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착수되었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8)</sup>

-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카리브지역 프로그램(2001-2003)의 중심전략은 평화와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 계획, 사업, 프로젝트 및 행동에 성과 평화의 관점을 통합하는 데 있다.
-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촉매그룹(Catalyst group)을 제도화 한다. 이 그룹에는 유네스코, 유니세프, 성 및 발전연구센터,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소재 범종교기구(IRO) 등이 포함된다. 이 그룹은 아래의 활동을 지원한다.
  - 성, 평화 및 발전의 개념, 상호관계 규명
  - 현장 연구결과 활용
  -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대중적 담론 확대 촉진, 정치차원의 캠페인
 주도기관 : 성 및 발전연구센터(CGDS)
- 카리브지역의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정보와 사업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주도기관 : 유네스코 본부
-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평화센터'를 설립한다.
 주도기관 : YMCA 등
- 평화문화에 관한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유네스코 발간 베티 리어튼이 지은 『성 관점에서 본 평화문화교육 : 교사준비용 연구교재』를 활용한다.
 배포 주도기관 : 유네스코

88) <http://www.unesco.org/cpp/uk/projects/projectfinalreport.pdf>.



연수 주도기관 : 서인도 대학교 교육학부

- 국회의원의 정치의제에 성과 평화 관점을 통합하도록 캠페인을 벌인다.

주도기관 : 인적사회개발협회 사무국

- 성과 평화에 관한 워킹숍을 조직한다.
- 교육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진한다.
  - 교육체계 및 과정에 평화교육 및 성 인지적 프로그램의 통합
  - 학교에서 건강과 가족생활 교과목 채택을 위한 로비 운동
  -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 문화, 성 및 평화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워킹숍 개발
  - 자마이카의 학교의 평화·사랑 프로그램, 유네스코의 학교프로그램 문화바꾸기, 교육혁신 및 발전을 위한 카리브지역 네트워크 등 유네스코를 통한 성공적 평화교육 사례의 벤치마킹
  - 카리브 지역의 평화문화 구축을 위한 파트너로서, 또한 과정의 일부로서 아동 포함
  - 교육에서 예술작품·예술을 통한 성 및 평화 사회화
  - 평화교육 정보 확산, 성, 평화 및 발전의 개념에 관한 공공여론의 개발, 성, 평화 및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매체 프로그램의 개발
  - 역할 모델에 의한 지역사회 모임, 공공포럼 등의 개발
  - 평화구축 및 비폭력적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에 관한 과정과 캠페인의 개발
  - 자마이카의 매체감시(Media Watch), 트리니다드의 성 매체 모니터(Gender Media Monitor)와 같은 성공적 프로그램 벤치마킹
  - 기업, 잠재적 재정후원기관, 지역사회 집단 등에게 평화구축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에 있어 카리브지역에서 인종, 지역사회, 국가간의 다양성 고려

- 연구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진한다.
  - 카리브 지역에 적합한 평화의 정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카리브 지역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실험적 연구사업의 확장
  - 카리브 지역 프로그램의 각 국가별, 도시 및 농촌 지역별, 각 인종 집단의 남녀별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기존 프로그램의 목표가 충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연구
  - 아래의 주제 관련 연구 : 카리브 지역에서의 평화, 성 및 발전을 위한 혁신조치에 미치는 세계적 영향, 특히 정치 및 경제적 영향; 학교와 가정에서 사회화와 폭력;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의 형벌체계; 인종 및 외국인 혐오증;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교에서의 현행 및 바람직한 평화문화; 카리브 지역에서의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서지 및 연구보고서의 배포
- 참여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진한다.
  - 정책입안 및 사업기획에의 지역사회, 국가, 지역 집단(NGOs, 대학교, 종교 단체 등)의 참여 촉진
  - 카리브지역 이외에서의 지역사회, 국가, 지역 집단의 기타조치에 참여 촉진, 경험의 교류
  - 평화, 성 및 발전 촉진 과정에 민간부문, 노동조합 및 정부의 참여
  - 라틴아메리카 내 단체 등과 연대 형성
  - 평화 의제 관련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연대 개발
  - 유네스코를 통하여 연구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을 위한 모범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 유네스코 웹사이트, 교육혁신개발 카리브지역 네트워크, NGO 등을 통하여 지역 및 국제적으로 우수실천사례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 남성들로 구성된 단체 및 평화기구의 지역 네트워크 개발
  - 카리브지역에서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지역 네트워크의 창출
- 카리브지역 성, 평화 및 발전 사업 관련단체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lt;표 V-1&gt; 카리브지역 성, 평화 및 발전관련 단체의 전략

주요전략, 갈등영역	단체명	전략
1. 평화증진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예술가협회</li> <li>· 바하이 공동체</li> <li>· 학교 프로그램의 평화와사랑</li> <li>· YMCA</li> <li>· YWCA</li> <li>· 국제평화요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평화교육</li> <li>· 감옥 수감자를 위한 평화교육과정 개발</li> <li>· 평화촉진교육에 미술활용</li> <li>· 평화촉진에 의사소통 활용</li> <li>· 또래집단 압력 및 관용 훈련 등 갈등협상훈련 청소년 개발프로그램</li> <li>· 공공교육 세미나, 워크숍</li> <li>· 개인간 폭력감소를 위한 의식증진 훈련</li> <li>· 폭력대안 촉진</li> </ul>
2. 인권존중 및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사회진보협회</li> <li>· 가내노동자 국가연맹</li> <li>· 운택한 생활재단</li> <li>· 정의 자마이카</li> <li>· 정의,평화 카리브 프로젝트</li> <li>· Peace Corps</li> <li>· WILPF</li> <li>· YMCA</li> <li>· YWCA</li> <li>· 국제사면위원회</li> <li>· 미국친우봉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로비</li> <li>·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li> <li>· 국제적, 국가적 공공의식</li> <li>· 대정부 설득을 위한 로비</li> <li>· 교육캠페인</li> <li>· 대중 시위</li> <li>·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사업</li> <li>· 난민 지원사업</li> <li>· 아동의 권리 촉진</li> <li>· 지역사회 힘의 증진</li> <li>· 자조, 자기개발 프로그램</li> <li>· 평화의식 증진</li> <li>· 인권,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의식 증진</li> </ul>

주요전략, 갈등영역	단체명	전략
3. 국가의 폭력에 대한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마이카 정의협회</li> <li>· 평화파트너협회</li> <li>· 미국친우봉사회</li> <li>· 국제사면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국가적 공공인식</li> <li>· 대정부 설득을 위한 로비</li> <li>· 공공 시위</li> <li>·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사업</li> <li>· 지역사회 기반 회의 및 토론</li> <li>·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li> <li>· 갈등개입 및 협상</li> <li>· 범죄와 폭력에 관한 정부 정책, 입법에서의 변화를 위한 로비</li> <li>· 억압적 경제·사회·정치 체계 철폐를 위한 로비</li> </ul>
4. 민주주의, 민주주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연구촉진협회</li> <li>· 국제평화요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억압적 경제·사회·정치체계 철폐를 위한 로비</li> <li>· 공공교육</li> <li>· 지역사회 힘의 증진</li> <li>· 성 관계 프로그램</li> </ul>
5. 사회경제적, 정치적 불평등 및 억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택한생활재단</li> <li>· 사회변화여성협회</li> <li>· 여성 매체감시</li> <li>· 변화를 위한 여성</li> <li>· 아버지협회</li> <li>· 교육연구촉진협회</li> <li>· WILPF</li> <li>· YMCA</li> <li>· YWC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문제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킹, 협력</li> <li>· 억압적 경제·사회·정치체계 철폐를 위한 로비</li> <li>· 평화교육 및 시위</li> <li>· 지역사회 힘의 증진</li> <li>· 성 관계 프로그램</li> <li>· 경제·사회체계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로비</li> <li>· 젊은이를 위한 구직, 기업정신 훈련</li> <li>·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li> <li>· 폭력 철폐 프로그램</li> <li>· 아동의 권리 촉진</li> <li>· 젊은이를 위한 기술 및 태도 훈련</li> </ul>

주요전략, 갈등영역	단체명	전략
6. 민주주의 및 발전에서의 여성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변화 여성협회</li> <li>· 여성 매체감시</li> <li>· 변화를 위한 여성</li> <li>· 페미니스트 연구 및 행동</li> <li>· 카리브협회</li> <li>· WILPF</li> <li>· YMCA</li> <li>· YWC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문제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킹, 협력</li> <li>· 억압적 경제·사회·정치체제 철폐를 위한 로비</li> <li>· 공공교육</li> <li>· 지역사회 힘의 증진</li> <li>· 성 관계 프로그램</li> <li>· 경제·사회·정치체제 철폐를 위한 로비</li> <li>· 공공 시위</li> <li>·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li> <li>· 여성개발과정 참여에 대한 젊은 남성과 여성의 의식 증진</li> </ul>
7. 가정, 성폭력 및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하이 공동체</li> <li>· 남성과 여성에 대한폭력협회</li> <li>· 사회진보 여성</li> <li>· 자마이카 가족계획협회</li> <li>· 국제평화요새</li> <li>· YMCA</li> <li>· YWC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재생산, 건강 및 책임에 관한 교육</li> <li>· 피해자와 구타가해자를 위한 교육 훈련</li> <li>· 억압적 경제·사회·정치체제 철폐를 위한 로비</li> <li>· 공공교육</li> <li>· 지역사회 힘의 증진</li> <li>· 성 관계 프로그램</li> <li>· 성에 기반한 폭력 종식을 위한 남성의 역할 교육</li> <li>· 학대피해자 지원</li> <li>·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li> <li>·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성 관계 프로그램</li> <li>·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li> </ul>
8. 무기실험 및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친우 봉사회</li> <li>· CPJ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군사화 종식을 위한 로비</li> <li>· 공공 교육</li> <li>· 공공 시위</li> <li>· 인권 및 기본자유를 위한 로비</li> </ul>

주요전략, 갈등영역	단체명	전략
9. 갈등중재 및 갭 전쟁 감소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서비스 지역팀</li> <li>· 평화 파트너</li> <li>· CPJP</li> <li>· YMCA</li> <li>· YWCA</li> <li>· 국제평화요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 범죄예방전략 이행</li> <li>· 범죄감소를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 연대</li> <li>· 공공의식, 교육</li> <li>· 지역사회 힘의 증진</li> <li>· 폭력피해자 지원</li> <li>· 또래집단 압력 및 관용 포함 갈등협상훈련 등의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li> <li>· 폭력대안의 촉진</li> <li>· 청소년 관련 갈등 개입</li> <li>· 폭력종식에서의 남성의 역할</li> <li>· 시민갈등, 국가갈등 등과 관련하여 정부정책, 입법에서의 변화를 위한 로비</li> </ul>
10. 청소년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예술가협회</li> <li>· Peace Coprs</li> <li>· CPJP</li> <li>· 국제평화요새</li> <li>· YMCA</li> <li>· YWC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이를 위한 구직, 기업정신 훈련</li> <li>· 아동의 권리 촉진</li> <li>· 젊은이를 위한 기술 및 태도 훈련</li> <li>· 갈등협상훈련을 포함한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li> <li>· 폭력대안의 촉진</li> </ul>
11.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JP</li> <li>· UNINSTRAW</li> <li>· UNHCR</li> <li>· 미국친우봉사회</li> <li>· WILPF</li> <li>· YMCA</li> <li>· YWC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억압적 사회·경제·정치체계의 철폐를 위한 로비</li> <li>· 지역사회 힘의 증진</li> <li>· 교육 캠페인</li> <li>·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li> <li>· 피난민 지원 프로그램</li> <li>· 인권의 증진</li> <li>· 성 관계 프로그램</li> <li>· 성에 기반한 폭력 철폐 프로그램</li> <li>· 폭력대안의 촉진</li> <li>· 폭력피해자 지원</li> </ul>

- 성, 평화 및 발전에 관한 간행물 서지 목록(1965-2000)은 아래의 10개 인덱스로 분류하여 인덱스별로 종합적으로 서지 목록을 작성한다.
  - 평화증진 교육활동
  - 인권존중 및 촉진
  - 민주주의와 관용
  - 지속가능한 발전
  - 정보의 자유
  - 민주주의와 발전에 여성의 참여
  - 갈등중재 및 예방
  - 경제사회 정의의 촉진
  - 비폭력 및 폭력대안조치의 촉진
  - 국제협력
  - 참고문헌, 인덱스, 인명록

라. 남아시아의 평화와 갈등 해결에 관한 세미나 및 훈련 워크숍 (Seminar & Training Workshop on Peace & Conflict Resolution in South Asia with Gender Perspective)

‘남아시아의 평화와 갈등 해결에 관한 세미나 및 훈련 워크숍’은 2002년 10월 28-30일 유네스코 후원으로 파키스탄 파티마 지나 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 및 워크숍에는 외교관, 학자, 학생 등 약 200명이 참가하였다. 성 관점에서 본 남아시아의 갈등해결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89)</sup>

- 평화는 그 성격상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다. 인간존엄성의 부정이 폭력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89) Fatima Jinnah Women University(2002), *Proceedings of the Seminar & Training Workshop on Peace & Conflict Resolution in South Asia with Gender Perspective*, Islamabad: Pan Graphic(Pvt.) Ltd.

- 체제와 문화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결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비폭력적 반체제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식·비공식 평화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
- 대학교는 리더십 훈련의 책임이 있다. 평화교육의 장으로서 중요성을 지닌 대학은 대학생들이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갈등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화지식의 네 가지 영역, 즉 평화연구, 평화학, 평화교육, 평화시민권 분쟁에서의 평화와 성 관점에 대하여 교육 방법론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파키스탄에서는 여성이 합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차별적 주류 속에서 여성들은 이를 그들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인다. 이슬람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이 없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명령은 여성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사회에 의하여 왜곡되고 경전을 벗어나 적용되었다.
- 분쟁은 언제나 정치적, 사회적 불공평에서 발생한다.
- 테러리즘이 스리랑카에서 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속되든 말든, 테러리즘의 행동은 언제나 남성들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점이다. 테러리즘은 해를 의도하거나, 특정인들을 강제할 수 있는 공포의 환경 조성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성 관점에서 테러리즘이 남성에게 의하여 지배되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전쟁은 단지 평화를 선언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본질적인 변화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지속적인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
- 국제기구들은 점차적으로 평화 유지에서의 여성의 긍정적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평화유지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다.
- 이 지역과 세계전역에서 평화 웨방의 여러 측면이 있으며, 정부가 건강이나 교육에 투자하기 보다는 군사기술에 더 많이 지출해 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장화된 지역이다. 핵무기는 무한 권력을 소지할 수 있다는 교만과 함께 정신을 오염시킨다.



- 환경에서의 국제화는 세계 전역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새롭고 심각한 도전을 야기시켰다. 평화 문화로의 가치, 태도, 행동 패턴변화는 교육에 의하여 증진될 수 있다.

## 2. 한국의 현황

유럽 등 선진권과는 달리 후진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우 평화운동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평화운동은 선진화에 수반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 속에서 등장한다.<sup>90)</sup> 우리사회에서 90년대 들어서 단체활동이 본격화 한 것은 기본적으로 수 십년의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렇게 시민단체가 활성화한 데에는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sup>91)</sup> 그리고 특히 평화운동에 있어서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한국 내 여성단체들은 80년대 말 이후 반전·반핵, 방위비 삭감, 북한여성 돕기, 일본군위안부 해결, 남북여성교류, 군사주의 반대 등 여러 쟁점분야에 걸쳐 평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00년 평화문화의 해를 계기로 평화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하였다. 정부수준에서는 평화문화의 해로부터 영향을 받아 정책연구 분야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이 2000년에 평화의식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평화문화를 주요주제로 다루었다. 사업으로는 여성부 주최로 2001년 5월 7-9일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평화구축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평화에 있어 한반도의 중요성을 천명한 서울여성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여성부는 또한 2001년부터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세계 한민족

90) 이삼열(2000), "세계 평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방향," 「21세기 평화운동과 여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교육집 참조.

91) Soon-Young Chung(1998), "National Machineries and Exemplary Cases Strategy: Lessons Learned from Experi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Expert Group Meeting on National Machineries for Gender Equality, Chile.

여성네트워크' 대회의 2002년도 제2차 대회의 대주제 중 하나로 '생활속에서의 평화문화'를 다루었으며 이 대회는 분야별 네트워크 중 하나로 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 반전·반핵 평화운동<sup>92)</sup>

##### ■ 1970년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가족조사와 원호사업 지원 활동;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를 사회문제로 제기, 일본의 전후처리 미결문제로서 여론화, 피폭자에 대한 치료와 생계지원, 자녀 교육비 보조 등 활동

##### ■ 1987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민족통일, 민족자주화와 민족생존구원운동을 표방하는 <반전반핵 평화마당> 행사, 6회

##### ■ 1988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통일문제 세미나 개최,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여신학자 선언' 발표

##### ■ 1989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반핵평화위원회를 통하여 핵발전소 건설 저지운동, 군사기지 철수운동, 핵무기 철수운동 전개; '여성평화 한마당'을 전국교직원노

92) 반전·반핵운동, 방위비 삭감운동, 북한여성 돕기, 일본군위안부 해결운동, 남북여성교류, 군사주의 반대운동에 관한 부분은 정현백·윤덕희·이금순·김귀옥·강남식(1999),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 - 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정현백(2000), "한국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여성평화」 제1호, 서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정현백(2003), "평화운동과 민족주의," 「2003 평화회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 대안담론과 대안정책」, 서울: 한국인권재단; 김양희(2000), 앞의 책; 김숙임(2002), "한국여성평화운동 - 1990년 이후의 한국여성평화운동을 중심으로 -," 「2002 서울국제회의 -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 2002. 8. 16 지역보고서 한국 2, 서울: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http://safe.jinbo.net/South\\_Korea.hwp](http://safe.jinbo.net/South_Korea.hwp)로부터 취합하였다.

동조합과 공동으로 개최, 성인 및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평화운동의 의미를 배우는 장 마련

기독교민회: '여성평화 알뜰장'을 통하여 '군축과 여성복지' 기금 조성 운동 전개

#### ■ 1991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미국과 유엔다국적군에 의한 대이라크 전쟁에의 한국군 파병요구에 대응, '페르시아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발표; '결프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모임' 결성, 전쟁중지와 파병반대를 호소하는 운동 전개

#### ■ 199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단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여성모임' 결성

평화를 기원하는 14개 여성단체: '평화를만드는여성연대' 결성,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해결방식에 우려 표명,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 남·북·미 3자 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북미수교,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북한핵사찰 재개 등을 일괄 타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 ■ 2001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9.11 테러참사 이후의 보복전쟁 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쪽지 이어날리기' 사이버캠페인 전개; 40여개 여성단체들과 '반전평화여성행동'<sup>93)</sup> 연대결성,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과 여성들의 평화 실천을 위한 토론회, 캠페인 전개

93) 주요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민회, 대한YWCA연합회, 대구여성회, 두레방, 부산여성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전국여성노동조합,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군사주의를반대하는여성평화네트워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2002년

반전평화여성행동: 민족자주 반전평화 여성행동의 날 '평화의 빛, 춤... 그리고 여성' 행사를 갖고 "여성들이 앞장서 전쟁에 대한 불감증을 없애고 반전 평화를 이루자"며 이라크공격 반대와 한국군 파병 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주장

■ 2003년

반전평화여성행동: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외침' 퍼포먼스, '반전평화캠프여성행동 1일 농성',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 촉구와 이라크 여성·어린이 돕기' 평화명상 및 모금 캠페인 전개

나. 방위비 삭감운동

■ 1992년

기독교민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990년 전후 세계냉전질서 해체,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 당국의 불가침선언 채택 등 맥락 속에서 '방위비 삭감 캠페인 설명회' 개최, 1천명 서명운동 전개,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 결성

■ 199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sup>94)</sup> 행사, 연례행사로 시작

■ 1998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군축의 날' 사업 전개

---

94) 1981년 유럽 11개국 49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정하고 1982년부터 행동을 시작하였다. 1983년에는 약 백만명의 여성들이 모여 핵무기 제거를 위한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다. 5.24모임은 80년대 후반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여성평화운동단체들이 모여 5.24 모임을 재활성화 시키기로 결의하였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실련 통일협회 등 5개 단체 : 남북 상호 군비감축 선언문 발표

#### ■ 1999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결성, 국방위원회 감시활동의 필요성 여론화 활동 전개

#### ■ 2003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확대, '한반도 평화, 지구촌의 평화까지'를 주제로 '무기장난감을 꽃으로 바꾸어주기', '평화그림판 함께 꾸미기', '전쟁과 여성, 어린이-이라크 어린이 사진전', '평화감수성 체크리스트' '평화를 얼굴에 그리는 페이스 페인팅' 등 일상 속에서의 평화문화 실현을 위한 갖가지 행사 진행, '여성평화선언문' 채택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군비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 ▶한반도 평화 실현과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로부터 일상적인 삶에서 평화를 실천할 것 등 권고)

### 다. 북한여성돕기

#### ■ 199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단체연합, 한국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 '밥나누기사랑나누기운동' 북한여성돕기 가두캠페인 모금운동 전개, 분유 26억t을 북측의 민주여성동맹 등 앞으로 전달

#### ■ 1999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원불교여성회, YWCA 등: 분유와 미역, 옷감, 옥수수, 내복 등 북측에 지원

■ 2001년

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내북 지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북한임산모와 아동돕기 바자회 개최, 물자 제공

라. 일본군위안부해결운동

■ 1980년대 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 식민지배 당시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행해진 '종군위안부 동원'의 진상과 전쟁 시 범죄행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위안부해결운동 시작

■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조직: 아시아지역의 피해국 여성들이 참여하는 연대운동으로 발전

■ 1991년

정대협: 제1차 남·북·일 여성에 의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동경)' 개최, 11월 제2차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토론회'(서울) 개최

■ 1992년

정대협: 제3차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평양) 개최

■ 1993년

정대협: 제4차 '일본의 식민지 지배·전쟁책임과 전 후 보상-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토론회(동경) 개최

■ 1998년

남·북·일 등 여성대표자들 3자회담 개최(북경), 일본정부와 유엔인권위에 보내는 공동합의문 채택

■ 2000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동경)에서 남북한 공동 공동기소장 제출

마. 남북여성교류

■ 1991-1993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동경, 서울, 평양 4회)

■ 2001년

6.15 공동선언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 2001년, 2002년

6.15 남북간 민족공동행사(금강산 2회), 8.15 남북공동행사(평양, 서울 2회)

■ 2002년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남북여성통일대회, 10.15-17 금강산) 개최, 남과 북, 해외여성대표 360명 참가, “6.15공동선언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 공동결의문” 채택(공동결의문은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여성의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것 ▶새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여성들 사이의 연대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 ▶남녀가 평등한 통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바. 군사주의 반대운동

### ■ 2000년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설립 (1997년부터 3회에 걸쳐 미국과 오키나와에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여성 평화회의'는 군사주의,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주제로 하여 열렸다. 한국여성네트워크는 2000년 제3차 오키나와 회의에 참가했던 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여성의 관점에서 군사주의를 비판하고 미군기지와 군사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 환경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활동 전개,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군사주의, 군사화, 군사문화의 해체, 군사주의적 폭력으로부터 기지촌 여성과 국제아동의 인권 보호 및 여성경제력 향상을 위한 활동, 미군기지로 인하여 파괴되는 생태계 보전 운동, 기지전환과 지역자치 경제대책 활동, 불평등한 SOFA 개정 운동, 군비축소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비 확충 활동, 국내외 연대활동 등 전개, 현재 6개 사회단체(두레방,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개인으로 구성

### ■ 2002년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제4차 군사주의 반대 2002 서울 국제회의 주최,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 (Struggling for Peace : In My Life, In All of Our Lives) - 군사주의와 여성인권'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미국 등 5개국의 여성평화단체들이 참석, '지구화와 군사주의', '지구화와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 '기지 반환운동과 인종차별' 등 발제, 한반도 상황 등 논의, ▶미국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타국에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불평등한 행정협정 개정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과 복구비용 지급 ▶성매매된 여성들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책임과 정책 입안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의 새로운 기지건설 중단 등 6개항의 이행을 미국 정부에 요구



## 사. 평화교육

### 1) 여성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 가) 여성평화아카데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여성평화아카데미는 통일과 연계시킨 평화교육을 1999년부터 매년 2회, 2003년까지 총 10회 실시해 왔다.

#### 교육목적

- 새로운 전환기에 필요한 평화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여성지도력을 갖춘다. 평화문화정착을 실천하는 여성전문인력, 여성주의 관점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반평화적인 폭력구조의 현실을 변화시켜 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훈련, 연습한다.
- 여성평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평화의식 확산과 타 단체의 평화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도모한다.

#### 교육대상

평화, 통일운동에 참가하거나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여성, 북한사회, 북한 여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 교육내용

- 갈등해결, 의사소통, 명상, 다른 너와 나의 만남
- 평화개념, 평화철학, 세계평화운동, 한국여성평화운동, 전쟁, 군사화, 군사주의와 여성, 일상의 폭력과 여성의 삶, 우리 안의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속도와 평화
- 북한인(여성)의 삶, 남북한 화해, 민족공동체 형성의 방안,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

여성평화아카데미 ‘2002년 평화감수성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95)</sup>

<표 V-2> 여성평화아카데미: 2002 평화감수성 훈련

프로그램명	여성평화아카데미 : 2002 평화감수성 훈련
교육기간, 교육강의수	2002.10.10-11.28 (매주 목요일) 총 10강
교육목적	1.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통하여 일상의 반평화 형성구조와 평화감수성 형성에 대한 장애를 이해한다. 2.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등 경험적 구체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여성들의 평화감수성을 키운다. 3. 일상에서의 평화실천과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의식을 시민들에게 확대시켜 가면서 경험적 대화마당을 통하여 여성들이 평화세상을 향한 사회행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다.
교육내용	1. 여중생 죽음과 불평등한 SOFA 2. 전쟁, 그 숨겨진 이데올로기 3. 부끄러운 역사를 평화와 화해로 꺼안은 여성들 4. 아프간의 땅, 여성이기를 거부해야 하는가? 5. 여성평화의 눈으로 대중문화 틈새 가기 6. 적, 여성, 섹슈얼리티 7. 최근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8. 우리안의 반공주의를 돌아 보다 9. 평화를 위한 대화 10.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여성평화운동
교육방법	강의, 질의응답 명상, 영화보고 토론, 자발적 참여, 역할놀이, 모듈별 창조시간
기대효과	▪ 평화교육의 새로운 시도와 활성화 ▪ 평화운동의 정보교류 ▪ 평화운동의 전문성 강화

95) <http://www.peacewomen.or.kr>.

#### 나) 통일여성아카데미

한국여성사회교육원은 2001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통일여성아카데미’를 열어 평화통일의 관점을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sup>96)</sup>

#### 교육목적

평화통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 반 평화적인 폭력구조의 현실을 변화시켜 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 양성

#### 교육내용

- 북한여성과 아이들이 사는 이야기 슬라이드 전
- 통일을 위한 갈등중재와 협상하는 능력 키우기
- 남북한 차이를 넘어 공통점 찾아내기
- 북한문화 익히기
- 남북한의 여성정책 알아보기
- 독일통일에서 배울 점 찾아보기
- 다함께 통일사회 그려보기

#### 2) 갈등해결 및 관용프로그램

##### 가) 갈등해결 전문가훈련프로그램

1999년 9월 2-4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각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갈등해결과 관용에 대한 워크숍’이 열려 갈등해결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기초기술에 대한 소개와 실습이 진행되었다. 이 후 각 단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친우봉사회의 후원 아래 ‘갈등해결 전문가훈련프로그램’을 약 11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97)</sup>

96) 한국여성사회교육원 사업보고서 참조.

<표 V-3> 갈등해결 전문가훈련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갈등해결 전문가훈련프로그램
교육기간	2000. 6.9 - 2001. 7. 14 (10회 워크숍, 1회에 2일-6일 소요)
교육목적	1. 갈등해결 원리와 방법을 공부하고 훈련 2. 갈등해결 방법의 한국상황 적용 모색
교육내용	1. 협상과 중재의 개념 및 방법, 국제분쟁의 갈등해결 2. 갈등해결 훈련을 위한 유용한 도구와 방법들 3. 평화교육 사례 4. 과제별 토론: 독일통일과 갈등해소, 성과 갈등해결, 노사관계와 갈등해결 등 5. 한국사회 적용을 위한 갈등해결 훈련 매뉴얼 개발 6. 미국연수: 갈등해결 이론과 방법, 갈등해결 단체 방문, 현장방문
교육방법	강의, 토론, 역할놀이, 비디오, 실습
기대효과	1.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관용 체득 2. 상이한 욕구를 쌍방이 함께 만족시키는 갈등해결 방법 구현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민주성의 체화 4. 한국상황에 맞는 갈등해결 매뉴얼 개발

97) 정현백 외(2002),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울: 통일부, pp. 84-85.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또한 '갈등해결을 통한 민주적 조직운영' 워크숍을 조직하여 2003년 9월 26~28일 3일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98)</sup>

<표 V-4> 갈등해결을 통한 민주적 조직운영 워크숍

프로그램명	갈등해결을 통한 민주적 조직운영 워크숍
교육기간	2003. 9. 26 - 28
교육목적	1. 갈등해결 원리와 방법을 공부하고 훈련 2.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평화중재자로서의 역할 모색
교육내용	1. 갈등해결 이해하기 1-조직갈등의 현실진단 모듈별 작업 2. 갈등해결 이해하기 2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3. 갈등분석 : 갈등의 원인분석의 필요성과 여러 방법 4.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 대화(의사소통)/듣기, 말하기, 관찰하기 5.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 대화, 문제해결, 의사결정방법 6.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 중재실습 7. 내가 이해한 갈등, 갈등해결- 팀워크 발표 및 토론 8. 갈등해결을 통한 민주적 조직 운영 모색- 나는 어떻게?
교육방법	강의, 토론, 실습

98) <http://www.peacewomen.or.kr/news/view.php>.

## 나) 갈등중재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숍

한국여성사회교육원은 갈등중재 능력 습득을 통한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2000년 ‘갈등중재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99)</sup>

&lt;표 V-5&gt; 갈등중재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명	갈등중재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숍
교육기간	2000. 8. 24 - 8. 26(1차) 2000. 10. 28 (2차)
교육목적	갈등중재 능력 습득 통한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내용	1. 협상과 갈등중재의 이론적 배경 2. 협상형태 3. 리더의 협상력 개발 4. 자가진단, 갈등의 원인 찾아내기 5. 협상 및 갈등중재를 위한 의사소통훈련 6. 공동의 이해관계 찾아내기 7. 협상 및 갈등중재 당사자 간의 벽 허물기 8. 협상과 갈등중재 실습
교육방법	강의, 질의응답, 발제, 그룹별 토론, 그룹별 발표, 자가진단 질문지 사용
기대효과	갈등해결 능력 습득, 자신의 성찰

99) 정현백 외(2002), 앞의 책, p.86.

## 3) 평화심성 훈련 프로그램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2002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평화심성훈련’을 실시하였다. 2002년도 훈련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sup>100)</sup>

&lt;표 V-6&gt; 2002년 평화심성 훈련 프로그램

교 육 명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후 원	행정자치부
일 자	2002. 5. 23 - 7. 4
목 적	일상 속에서의 평화감수성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평화문화를 형성
주 제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내 용	1강. 수행의 세계와 평화만들기 2강. 뜰레랑스와 평화만들기 3강. 명상을 위한 입문과정 4강. 예술치료 : 춤, 음악, 미술치료, 글쓰기명상 등 5강. 티벳인의 삶, 수행, 내적 평화 6강. 평화주의자, 그 삶과 운동 7강. 몸을 평화롭게 토론 및 평가: 일상에서 평화만들기

## 4) 평화문화 구축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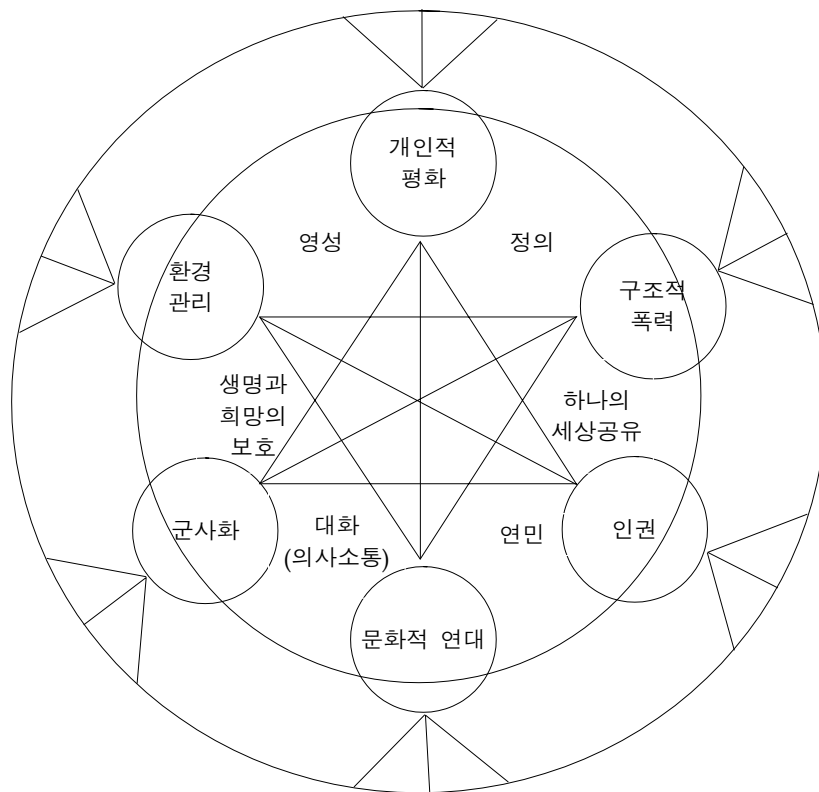
## 가) 평화문화를 향한 국제이해 확산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1999년 유네스코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아태지역에서 평화문화와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이

100) 평화를만드는여성회(2002), 평화심성훈련 자료집.

해교육을 증진, 발전시키고자 2000년 8월에 아태지역의 총 45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의 협력 하에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아태지역 14개 유네스코 회원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도 하에 설립되었다.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은 2002년 7월 9일 서울에서 “평화문화를 향한 국제 이해교육웍숍”을 열고 군사화와 인권침해 문제, 구조적 폭력과 지구적 부정의의 문제 등 평화교육의 주요쟁점들에 관한 학습활동을 실시하였다. 평화교육으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 앨버타대의 토 스워헌, 버지니아 카와가스 교수부부가 초빙되었고 교육자, 시민단체활동가, 전문가 등 약 50명이 참가하였다.



<그림 V-1> 평화교육의 전체적 구조



웁샵에서 스위힌교수는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6개의 주요 고리로 구조화한 도표를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그림 V-1>. 그에 따르면 (1)전쟁문화 탈피, (2)구조적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 (3)인권 증진, (4)지구와 평화롭게 사는 일, (5)대화, 존경, 화해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 (6)평화심성,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일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이들을 상호간 연결시키는 총체적 접근으로서 평화문화교육은 첫째, 개인 간, 상호 간, 공동체 간, 지역과 국가 간에 존재하는 갈등, 폭력과 비평화의 근본원인을 일깨우는 데 기여, 둘째, 평화로운 자신과 가족, 공동체, 사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개별적 혹은 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데 기여할 가치와 사고를 동시에 길러낸다.<sup>101)</sup>

#### 나) 분단사회에서의 평화교육

국제평화교육연구학회(International Institute on Peace Education : IIPE)<sup>102)</sup>는 평화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1982년 콜럼비아대학교 평화교육센터가 창설한 기구로서, 그 동안 세계 각 지역의 학술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을 통하여 평화 교육자와 운동가들을 위한 배움과 훈련의 장을 제공해 왔다. IIPE는 연례적으로 아태지역에서 개최하는 평화웁샵을 2003년 8월 4-10일 서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03)</sup>

101) 박상용(2002), “평화문화를 향한 국제이해교육 웁샵 참관기,” 「국제이해교육」, 2002 여름, 서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p. 138.

102) 국제평화교육학회(International Institute on Peace Education: IIPE)는 1982년 콜럼비아대학교 평화교육센터가 창설한 학회로서, 세계 각 지역의 학술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을 통하여 평화 교육자와 운동가들을 위한 배움과 훈련의 장을 제공해 왔다.

103) <http://www.unescoapceiu.or.kr/asia/business/main.asp>.

&lt;표 V-7&gt; 분단사회에서의 평화교육

일시 및 장소	주제	내 용
2003.8.4~10, 서울 크리스찬 아카데미	분단사회에서의 평화 교육 (Educating for Peace in Divided Societies)	분단/분열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민 중민족지역이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평 화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평 화교육 경험 교환 “분단된 한반도의 갈 등과 평화의 전망”에 관한 특별 포럼, 생태정의·종교 간의 갈등과 대화, 여 성과 평화운동 등에 대한 토론 참가자 :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미국, 한국 등 약 17개국의 세계 전역의 평화 교육자와 운동가 60여명

#### 아. 정부수준 사업과 정책연구

##### 1) 여성부 사업

##### 가)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

여성부는 2001년 5월 7-9일 서울에서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를 주최하였다.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 178명이 참가하였으며, 회의는 3주제 중 하나로 ‘동북아 평화구축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을 다루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여성선언’은 평화구축을 향한 여성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천명하였다.

2.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기반임을 인식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책임과 역할을 증대할 것과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남북화해에 협력하고 평화 통일을 완영할 것을 결의한다.

3. 여성의 관점에서 왜곡됨이 없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구축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신하고 최근 아시아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후세에 올바르게 교육시키도록 노력한다.<sup>104)</sup>

#### 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여성부는 2002년 7월 1-4일 제2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서울)를 개최하고 평화부문에서 대주제로 '생활 속의 평화문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네트워크'를 다루었다. 대회는 또한 세계한민족여성 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 2) 한국여성개발원 정책연구

#### 가) 평화의식 기초조사

한국여성개발원은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가부장적 폭력문화를 평화문화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 평화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화의식에 대한 기초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 중에 성 평등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한 평화의식도 높았다는 사실이다.<sup>105)</sup>

#### 나) 국제심포지움

한국여성개발원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여성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여성정책의 새로운 비전: 평등, 발전, 평화'를 주제로 2003년 4월 17-18일 국제심포지움을 열었다. 유엔여성향상국, 유네스코, UNDP, UNESCAP,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국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심포지움은 4개 주제 중 하나로 '평화문화와 인간안보'를 다루었다.

104) 여성부(2001), 『동북아시아 여성지도자 회의』 결과보고서, p. 52.

105) 김양희 외(2000), 앞의 책, p. 116.

## VI

# 정책제언

---

1. 여성정책 3대 전략의 보완적 종합	151
2. 정책평가에의 평화문화 통합	157
3. 여성단체 주도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 지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과정에 평화문화 통합	165
4. 매체 및 예술분야 위원회에의 여성위원 참여와 평화문화 전문성 제고	169
5. 연구 및 배포	170
6. 동북아 평화문화공동체	171

---

---

유엔의 평화문화전략(Ⅲ과 Ⅳ장)을 보면 평화이론의 맥락을 반영하여 지향해야 할 구조, 즉 당위적 목표로서 폭력에서 평화로 전환된 구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향한 교육 및 훈련, 예술 및 매체, 연구 및 배포 등 분야에서 추진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본 정책제언에서는 전략적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평화문화가 WID 및 GAD적 전략과 보완성을 지님을 적시하고 구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현황(V장) 파악에 바탕하여 기존의 평화문화 활동과 연관 짓거나 여성정책에 평화문화를 통합시킬 수 있는 구상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정책도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향에서 유엔의 권고를 선별적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유엔의 권고 중 한국의 현실과 관련 없는 부분 뿐 아니라 적실한 다른 경우에도 단지 적실하다는 사실만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 1. 여성정책 3대 전략의 보완적 종합<sup>106)</sup>

한국의 여성정책이 본격화 한 것은 여성개발(Women in Development: HID)전략에 입각하여 추진한 1980년대 이후의 법적 개혁을 통해서였다.<sup>107)</sup> 여성을 발전으로부터 소외시켜 온 전통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법적 시정이 일차적인 과제였던 것이다. 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정책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별프로그램의

106) 아래 나오는 HID, GAD 등의 개념은 이미 학계에서 오래 다루어져 왔다. 이들에 대한 정의는 본 연구팀의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를 통한 여성협력방안에 관한 연구』(2001), pp. 13-22참조. 그리고 이들의 한국어 번역은 본 연구의 논리적 맥락에 부합되게 이루어졌다. 다른 맥락에서는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HID는 ‘개발에의 여성참여’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에 초점을 둔 개발의 관점인 GAD에 대칭되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여성’개발로 번역한 것이다. 즉 문맥에 맞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7)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 모자보건법 제정(1989), 가족법 개정(1989), 성폭력가해자 처벌및구제에관한법 제정(1994),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가정폭력가해자처벌특별법 제정(199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정(199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제정(1999), 여성기업인지원법 제정(1999).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서 WID적 접근은 여성정책이 정책일반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주변화 된다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만약 정책의 주류에서 성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다면 정책의 주변에서 여성정책이 아무리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sup>108)</sup>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북경대회를 기점으로 세계여성대회 과정에서 성 주류화 전략이 등장한 것이고<sup>109)</sup> 한국의 여성정책도 WID적 주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의 관점(Gender and Development: GAD)에서 보완책을 도입하였다. 정부의 주요 6개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여성부에 성 분석 업무기능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성 관점을 정책의 주류에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성 분석은 정책의 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기본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금년도부터 정부의 예산지원 하에 여성정책에 대한 효과적 분석메카니즘을 갖추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여성정책은 여성에 국한한 특별프로그램적 WID전략과 이를 성 관점에서 보완하는 GAD적 주류화전략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는데 평화문화는 이 두 가지 정책방향을 모두 보완하는 전략적 효과를 지닌다. WID전략에 대한 보완은 법과 현실 간 괴리문제와 연관된다. WID에 입각한 법적 개혁의 추진이 낳은 문제점은 법과 현실 간 괴리이다. 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시도는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풍토 속에서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적 문화에 연원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도입하였지만 UNDP가 측정한 여성의 힘 증진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 한국은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는 한 여성이 제대로 의사결정수준의 지위로 향상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

108) Soon-Young Chung(1998), 앞의 논문, p. 7.

109) 정순영 외(2001), 앞의 책, pp. 15-22.

하지 않은 일인 것이다. 즉 문화적 조건이 변화함으로써만 법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평화문화의 실현은 양성적 통합의 정신을 가져오므로 가부장적 차별의 의식을 폐기한다. 따라서 평화문화전략은 한국의 여성정책이 당면한 최대 장애인 ‘법 따로 사람들의 의식 따로’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sup>110)</sup>

평화문화는 또한 성 주류화를 보완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여성대회과정 초기의 여성발전전략인 WID가 주변적 한계에 부딪힌 것은 가부장적 문화가 발전의 주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가부장적 문화는 인간관계의 전체를 지배하는 폭력문화의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전체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즉 갈등에 대응하는 사고방식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력적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적일 수 없다. 사회의 주류가 쟁점화 하는 사고체계는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축으로 형성된 일원적 전체의 유기성을 지닌다. 따라서 다른 부분에서는 폭력문화가 지배하는데 성 부분에서만 평화문화가 실현될 수 없다. 전체가 변하지 않는데 한 부분만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논리에서 보면 성 주류화는 평화문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폭력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가부장적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정책의 주류에 성 편견이 개입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 성 주류화가 정책에 초점이 있다면 평화문화는 문화 쪽에서 접근한다. 사회구조 및 문화와 정책은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 성 주류화는 성 분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정책을 성 중립화 함으로써 정책 쪽에서부터 성 불평등의 철폐를 시동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생각보다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성 주류화의 목적은 정책의 성 중립성에 있는데 이를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성 분석을 통하는 길 외에 정책결정자의 성 의식화나 정책결정에 대한 여성의 힘 증진이 있다. 만약 정책결정자가 성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정책결정 과정에의 성 편견 작용이란 있을 수

110) 법과 현실간 괴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United Nations(1996), 앞의 책, p. 7 참조.

없다. 그러나 정책결정자의 대다수가 남성인 현실에서 정책결정자의 성 의식화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수준에의 여성참여, 즉 힘의 증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북유럽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별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sup>111)</sup> 북경대회에서 성 주류화가 성 분석적 접근으로 규정된 것은 성 분석 없이는 성 효과를 알 수 없고 성 효과를 모르면서는 정책의 성 중립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성 분석은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정책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결정자의 의식이나 지위에 있어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은 지난한 과제일 수 있으나 정책의 분석에 초점을 두어 성 편견을 제거하는 일은 보다 용이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에 비하여 저항이 적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는 하나 성 분석의 경우에도 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성 분석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여성과 남성 각각의 삶의 조건, 어떻게 여성과 남성이 상이한 수준에서 사회에 참여하는가, 그들 각각의 특수한 필요와 이해관계, 어떻게 자원과 권력이 배분되고 사용되는가를 포함하여 어떻게 그들 각각이 정책과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가를 보여주는 각종 성별분리통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sup>112)</sup> 이러한 성 규정적인 남녀의 삶에 대한 총체적 성별분리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작업인 것이다. 더욱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하의 사회에서는 민간적 자율성으로 인하여 정책결정의 많은 부분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즉 정부부문의 경우에만 국한시킨다면 모르나 민간주체로서 기업뿐 아니라 시민사회, 가정까지를 포함시킨다면 성 분석 대상의 규모는 감당불능의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민간 자율성이 큰 사회에서 정부의 의사결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효과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이 평화문화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게 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게 한다. 사실 자유주의 또는 그 반대편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모두에 있어서 정책이나 문화가 구조의 종속변수라는 생

111) Breines(1999), 앞의 논문, p. 41.

112) 위의 논문, p. 39.



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1960년대 후반 이후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의식과 성 문화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문화 쪽에서부터 구조 및 문화와 정책의 상호작용 체계에 대하여 변화를 시동하는 전략을 회의 시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실천적 사고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이었다.<sup>113)</sup> 이로 인하여 정책이나 문화로부터의 접근이라는 발상 자체가 억제된 점이 없지 않았다. 정책 쪽에서 접근하는 성 주류화는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 온 계기가 되었으며 평화문화가 전략적 실천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전통시대와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21세기 지식기반 문명에서는 지적 능력이 힘의 주 원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적 능력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보면 새로운 문명 하에서는 구조를 결정하는 힘에 있어서 성 중립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구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는 문화적 접근은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성 중립으로의 구조변화는 평화문화의 확산과 상호 상승적 관계에 있다. 평화문화전략은 이 같은 실천성에 바탕하여 사회 전반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특히 비정부부문에까지는 미치기 어려운 성 주류화의 현실적 제한성을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성 관점은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한 역할에 대한 견지에서 문제를 보게 한다. 그리하여 성 역할의 기존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통합적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건설적 파트너십의 필요를 인식하게 만든다. 성 관점은 따라서 양성 간 동반의 관용정신을 형성시킨다. 그럼으로써 폭력문화에서 평화문화로의 전환에 동참하는 정치적 의지를 추동한다.<sup>114)</sup> 그런데 이러한 성 관점에 의한 관용의 동반의지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조건의 심화로 말미암아 더욱 촉진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관용이 주요 전제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성에 있어 비관용의 문화는 폭력

113) Imelada Whelehan(1995), *Modern Feminist Though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 73.

114) UNESCO(1995), *Statement on Women's Contribution to a Culture of Peace*.

적인 가부장제와 남성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평화문화는 세계화가 요구하는 함께 사는 법과 상호촉진적 관계에 있다.<sup>115)</sup> 관용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세계화로 말미암아 평화문화가 독립변수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속에서 진전되고 있는 관용의 파트너십 정치, 즉 지구적 공치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지양시킴으로써 평화문화의 촉진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세계화는 정보화와 함께 평화문화의 전략적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성 주류화에 대한 전략적 보완책으로서 평화문화의 적실성을 제고한다.

만약 성 주류화가 아무런 난점도 지니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책의 성 중립성이 단시일 내에 실현된다면, 이는 곧 성 불평등적 사회구조와 문화의 해체를 의미한다. 사회구조 및 문화와 정책은 상호작용 하는데 양자가 조화적일 때는 제도화이나 갈등적일 때는 해체화이다. 즉 양자가 모두 성 불평등적일 때에는 제도화된 성 불평등의 (재)생산이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러한 메카니즘의 해체를 가져온다. 정책은 행동의 계획이므로 정책이 성 평등적으로 결정나면 성 불평등적 사회구조와 문화는 이들에 반하는 행동에 의하여 폐기된다. 따라서 성 주류화는 궁극적으로 성 평등을 실현한다.<sup>116)</sup> 그러나 성 주류화의 기본도구인 성 분석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행에 있어 제약과 난관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성 주류화는 새로운 문명적 조건 하에서 효과성이 증대하고 있는 평화문화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문화는 이와 같이 여성개발 및 성 주류화와 전략적 보완관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성 주류화와 WID적 특별프로그램 방식도 상호보완적이므로 여성정책의 세가지 전략은 총체적 접근으로 종합될 수 있다.<sup>117)</sup> 성 주류화는 WID적 특별프로그램을 보완할 뿐 아니라 후자에 의하여 보완되기

115) Breines(2000), 앞의 서문, p. 12.

116) 정순영 외(2001), 앞의 책, p. 21.

117) Final Report of Activities of the Group of Specialists on Mainstreaming (EG-S-MS) (May, 1998), *Gender Mainstreaming: Conceptual Framework, Methodology and Presentation of Good Practices*, Strasbourg, p. 18.

도 한다. 예를 들어 정책의 성 중립성이라는 성 주류화의 목표와 관련하여 특별프로그램으로서 정책결정자의 성 의식화나 여성의 힘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할당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후자가 전자와 함께 똑같은 목표로 가는 두 길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양자는 하나의 쌍둥이 길 전략(twin tract strategy)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118)</sup>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상호보완에 의하여 특별프로그램으로서의 여성정책을 통해서 과거 정책의 산물인 성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고 성 주류화를 통해서 현재 정책에서 발생하는 성 불평등의 (재)생산을 방지함으로써 성 평등 속에 여성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sup>119)</sup> 평화문화전략은 궁극적 목표를 향한 이 같은 양대 전략의 제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여성정책의 총체적 효과성을 증대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WID적 특별프로그램에 이어 GAD적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에 평화문화를 추가함으로써 3대 상호보완적 전략의 종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정책평가에의 평화문화 통합

여성정책의 추진을 유인하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는 평가제이다. 유엔차원에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이 4년에 한번씩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매년 2회에 걸쳐 심의하고 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매년 연례회의 시 각국의 배경행동강령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0년에는 유엔특총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우리의 경우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이행을 평가하였고 행정자치부는 1999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여성정책 평가제를 도입하여 실시해

118) DFEE(1966), *One Year On: Implementing the Global Platform for Action from the UN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Government Progress and Plans*,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119) Soon-Young Chung(1998), 앞의 논문, p. 6.

오고 있다. 격년제로 실시중인 행정자치부의 지자체에 대한 여성정책 평가제는 ‘여성정책 종합평가’라는 명칭으로 불려 오다 2003년부터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으로 바뀌었다. 행자부의 평가제는 유인책으로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49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sup>120)</sup>

행정자치부의 평가제는 ‘종합’이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합은 2003년도 평가제의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양성평등시책 추진실태, 지방행정 여성참여 확대, 여성보호 및 여성능력개발 실태, 단체장 의지 및 관심도, 교육훈련, 차별사례, 복지시책 추진여부 등 10개 분야 23개 항목에 걸쳐 다면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도 전 단계와 2003년도 평가제의 분야 및 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sup>121)</sup>

120) 대한매일, 2003년 10월 2일, p. 6.

121)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정책 종합 평가표(1999-2002) 및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2003) 채점표.

## 1999~2002 여성정책 종합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총 410점)
1.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120
① 승진	60
• 근무성적평정 실태	30
• 직급별, 남녀별 승진기간	20
• 6급 이상 여성간부직 비율	10
② 보직	30
• 핵심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현황	20
• 순환보직제 또는 희망보직제 운영 여부	10
③ 인사관련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20
④ 여성공무원 비율	10
2.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운영	40
① 장기교육과정 여성공무원 참여	20
② 외국 장·단기훈련 여성공무원 참여	20
3. 공무원 포상(전 공무원 대상)	15
4.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	30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	10
② 육아휴직제도 이용	10
③ 출산휴가제도 이용	10
5.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15
6.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확대 추진	40
① 여성사회교육	20
② 여성보호 및 자립지원	20

평가항목	배점 (총 410점)
7. 기관장의 관심도	70
① 여성정책 담당기구 조정	20
② 부 단체장,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여성임용	10
③ 여성공무원 고충상담창구 운영	10
• 고충상담자 지정운영 여부	2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실천방안임	
• 여성공무원과의 기관장 등 간담회 실시	5
• 건의사항 접수 및 반영	3
④ 기타 여성정책 협조 지원	30
• 여성정책추진부서 공무원 우대	5
•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	15
-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발탁	
- 승진할당제 실시 등	
• 여성단체 행·재정 지원	5
- 간담회 장소제공 및 간담회비 지원(분기별 20만원)	
- 각종 여성단체 행사시 행·재정 지원	
•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영	5
- 자체조례제정 기금 조성	
- 도에서 조성 배분 등	
8. 여성공무원 문제점 해결(적극적 노력 내용)	30
• 근무시간외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10
- 컴퓨터,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이수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훈련	
• 업무연찬 등 적극적인 참여	5
• 기관장 초청 대화시간 마련	5
• 업무관련 새로운 시책 발굴	5
• 별도 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5

평가항목	배점 (총 410점)
9. 기타	50
① 여성정책 관련 자료의 정보화율	20
• 해당 자치단체 여성인구에 대한 기본정보의 수집 및 체계화	10
• 자치단체가 생산하는 백서 등 각종 문서자료 및 전산자료에서 주요정보의 성별분리 제시 정도	5
• 지방자치단체 고유전산망내 여성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등	5
② 공무원의 기본예절 준수	20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10
• 기관내 성희롱 접수 및 처리절차 마련 시행 여부	10
- 접수창구 부서지정, 고충상담실(2인 이상)지정, 상담 및 조사, 사실확인 및 조치 절차 등	
③ 기타 수범사례(해당기관의 정책적 노력)	10
• 주부대상 전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여성 실업대책 추진	
• 저소득 모자가정 여름캠프 실시	
• 여성문화사업 행사 지원(백일장, 작품전시회 등)	
• 여성교실 및 교양대학 운영 등	
10. 구체적 차별사례	30
•	
•	
•	

## 2003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채점표

평가항목	배점 (총 500점)
1.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130
① 승진	60
• 계급별 여성공무원 승진 실태	30
• 계급별, 남·녀별 승진기간	20
• 6급 이상 여성간부직 비율	10
② 보직	30
• 핵심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현황	20
• 순환보직제 또는 희망보직제 운영 여부	5
• 민원부서(실·과) 여성공무원 비율(%)	5
③ 인사관련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20
④ 여성공무원 비율	5
⑤ 시·도 및 연고지 전출공무원 비율	5
⑥ 읍·면·동에서 시·군·구 전입공무원 비율	10
2.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운영	30
① 장기교육과정 여성공무원 참여	15
② 외국 장·단기훈련 여성공무원 참여	15
3. 공무원 포상(전 공무원 대상)	15
4.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	30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	10
② 육아휴직제도 이용	10
③ 출산휴가제도 이용	10
5. 기관장의 관심도	120
① 여성정책 담당조직 조정	10
② 부단체장, 본청 실·국·과장 및 소속기관장 여성임용	55
③ 여성공무원 고충상담창구 운영	10
• 고충상담자 지정운영 여부	2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실천방안임	
• 여성공무원과의 기관장 등 간담회 실시	5
• 건의사항 접수 및 반영	3



평가항목	배점 (총 500점)
④ 여성정책 협조 지원	45
•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	20
-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발탁	
- 승진시 여성배려 정책	
•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지원(여직원회)	5
• 여성정책추진부서 공무원우대	5
• 여성단체 행·재정 지원	5
•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영	5
- 자체조례제정 기금 조성	
- 자체조례만 제정	
• 여성관련 자치법령, 지침 개선	5
6. 여성공무원 자기능력 개발(적극적 노력 내용)	25
•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10
- 컴퓨터,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이수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훈련	
• 업무연찬 등 적극적인 참여	5
• 업무관련 새로운 시책 발굴	5
• 별도 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5
7.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40
8.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자립지원	40
① 여성사회참여	20
•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 문화사업행사	5
• 여성문화행사의 예산지원여부	5
• 국제교류활동(회의참석, 세미나 등)	5
② 여성자립지원	20
• 저소득여성 자체실업대책 추진	5
• 모자가정 지원(자체 특수시책)	10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5

평가항목	배점 (총 500점)
9. 기타	70
① 여성관련 정보서비스	25
• 자치단체가 생산하는 백서 등 각종 문서자료 및 전산자료에서 주요정보의 성별분리 제시 정도	10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내 여성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등	5
• 해당 자치단체 여성인구에 대한 기본정보의 수집 및 체계화	5
② 양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30
•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여부	25
• 기관내 성희롱 접수 및 처리절차 마련 시행 여부	5
- 접수창구부서지정, 고충상담원(2인이상)지정, 상담 및 조사, 사실확인 및 조치 절차 등	
③ 기타 수범사례(해당기관의 정책적 노력)	15
• ※ 구체적 사례 적시 (기평가사항과 중복사례 제외)	
10. 구체적 차별사례	30
•	
•	
•	

이들 분야 및 항목을 보면 모두가 WID적 여성정책에 국한되어 있다. 즉 여성정책의 3대 전략 중 성 주류화와 평화문화와 관련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2003년도 평가제의 기타 분야의 기타 수범사례 항목에 정책적 노력으로서 성 주류화나 평화문화의 전략적 주도사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의 배점은 총 500점 중 15점에 불과하다. 즉 행자부의 평가제에서 말하는 종합은 WID적 전략 내에서의 다면적 평가를 의미할 뿐이다. 앞으로 여성정책 평가제가 지자체에서 정부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까지를 상정하여 여성정책 평가제는 3대 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평가에 평화문화를 통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분야 및 평가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평화문화 프로그램 추진

-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의 실시
- 평화문화 관련 연구, 배포, 홍보
- 매체 및 예술에서의 폭력문화 추방과 평화문화 창조 조치

### 3. 여성단체 주도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 지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과정에 평화문화 통합

평화문화전략 이행과 관련한 유엔 권고사항의 분류에서 나온 바와 같이 문화적 접근의 구체적 실행분야로서는 교육, 훈련, 연구 및 배포, 매체, 예술 등이 있다. 평화문화는 폭력적 구조를 철폐함으로써, 즉 구조의 전환에 수반하여 형성될 수도 있고, 교육, 훈련, 연구 및 배포, 매체, 예술 등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 속에 직접적으로 주입될 수도 있다. 후자는 평화문화가 먼저 생성되고 변화된 의식에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조가 바뀌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유엔의 권고방안 중 지향구조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무장해제나 공치적 참여의 증진은 군사력이나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조변화를 일차적 표적으로 하는 전략은 문화자체로부터 시동하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즉 문화를 독립변수로 하는 접근과는 다른 것이다. 군비축소, 여성의 힘 증진과 같은 분야에서 구조개혁이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구조에 대한 정면 돌파는 구조에 얽혀 있는 사회주류의 이해관계 때문에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문화전략은 구조적 접근에 대한 보완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협의의 평화문화전략은 구조가 아니라 문화를 독립변수로 하는 우회적 접근에서 찾아져야 한다. 특히 교육 및 훈련은 사회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또 정부의 통제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화적 접근에서 정책상의 우선순위를 점한다.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은 다음과 같은 콘텐츠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sup>122)</sup>

<표 VI-1>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에서의 콘텐츠 전환

전환 전	전환 후
분리주의 권위주의적 배제 군사훈련 편견화된 적 이미지의 선동 폭력적 갈등 군사주의적 개념, 신화 및 이미지 가부장적 남성성 성 차별 복종, 전일성 인종주의, 민족주의	관용의 통합정신 공치적 참여 무장해제 교육 편견 제거 동반적 대화 대안적 개념, 신화 및 이미지 인간성의 실현 남녀평등 자율, 인권 다문화주의, 지구적 유대

2000년 평화문화의 해가 선포되고 평화문화10년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실시된 평화문화교육 및 훈련은 일부 여성단체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전부이다.<sup>123)</sup> 유네스코와 IIPE에 의한 워킹숍은 국가수준이 아니라 지역수준의 활동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국내활동으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국내에서 평화문화 훈련프로그램이 여성단체에 의하여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떠한 프로젝트든지 실질적 추동력을 얻으려면 그것과 정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 남성성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평화문화 프로젝트의 중심적 추동

122) Ritta Wahlstrom, "The Challenge of Peace Education: Replacing Cultures of Militarism," in Elise Boulding, ed., *New Agendas for Peace Research: Conflict and Security Reexamined*,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1992, p. 181 참조.

123) 김정수(2002),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평화교육』, 2002년 여성평화아카데미 교육자료.

력이 남성으로부터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여성은 폭력문화의 주된 희생자임으로 해서 그것을 철폐하는 데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즉 평화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은 여성에 의하여 담당되어야 한다. 이 같은 논리에서 볼 때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여성부 산하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의 힘이 커져 있으므로 여성발전기금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당장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sup>124)</sup> 한국의 여성단체는 국제연대를 진전시켜 왔으므로 재정적 뒷받침만 된다면 유네스코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의 경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sup>125)</sup>

- 성 인지 정책 분석과정
  - 성 인지 정책(예산) 분석. 실무과정
  - 성별분리 통계교육. 실습과정
-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 여성리더십 개발과정
  - (최고)여성지도자 리더십과정
- 전문강사 양성과정
  - 양성평등의식 교수요원 교육과정
  -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과정
  -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
- 맞춤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과정
  -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 교원 교육과정
  - 여성직업의식 개발과정

124) 정현백(2000), “한국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평화」 제1호 참조.

125) <http://www.kigpe.or.kr/htm/2-program/page001-004.asp>.

- 성 인지력 향상과정
  - 성 인지력 향상과정
  - 성 감수성 훈련과정

이들 과정을 여성정책의 3대 전략과 관련지어 분류해 보면 성 인지 정책 분석과정과 성 인지력 향상과정은 성 주류화, 여성리더십 향상과정과 성희롱, 폭력, 자원봉사, 직업의식 등에 관한 과정은 WID적 여성향상 특별프로그램, 양성평등의식이나 교원에 대한 과정은 문화적 접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평화문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은 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관련되는 세 번째 부분 과정에 보다 집중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성 주류화 과정에서도 성 분석을 전략적으로 보완하는 평화문화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WID적 여성개발 특별프로그램, GAD적 성 주류화 및 평화문화는 성 평등을 향한 3대 보완적 전략을 구성하므로 이들에 대한 이해는 양성평등교육에 토대적 개념체계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ID적 여성향상을 위한 특정 분야라 할지라도 평화문화가 통합된 3대 전략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과정에 통합시키는 이 같은 방안과 함께 평화문화과정을 맞춤형교육의 하나로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및 훈련에의 평화문화 통합은 과정뿐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및 훈련대상자는 여성단체의 여성정책담당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실무 담당 및 관련 공무원, 각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회관장, 성희롱예방 교육 강사로 여성부에서 위촉을 받은 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자원봉사자, 교원 등으로 되어 있다. 평화문화가 과정에 통합되는 경우 이 과정의 대상에는 평화문화 관련 종사자, 예를 들어 교과서 편찬, 매체 및 예술 담당 공무원, 신문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실무자, 군사, 경찰 및 사회교육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4. 매체 및 예술분야 위원회에서의 여성위원 참여와 평화문화 전문성 제고

여성부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참여율은 1998년 6월 말 10%에서 2002년에는 30.1%로 증가하였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은 4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sup>126)</sup> 일반적으로 최소한 30%는 되어야 의사결정에 여성의 관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율 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산하 주요 매체 및 예술분야 위원회에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보면 공연윤리위원회 15명 중 8명(53.5%), 방송평가위원회 9명 중 3명(30%)의 경우에는 30% 이상인데 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4명 중 2명(14.3%)에 불과하다. 정부 산하 위원회는 아니지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11명 중 2명(18.1%)에 그치고 있다.

평화문화를 의사결정과정에 통합하는 세력은 남성보다는 통합과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여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매체 및 예술분야에서 폭력문화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3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있지는 않으나 사회의 공기인 신문과 관련되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와 함께 또한 특히 여성위원에게 평화문화관련 연구결과를 배포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여성위원이라고 하여 모두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위원이 평화문화의 관점을 가지도록 여성부는 평화문화전략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특히 신입위원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통하여 평화문화의 관점을 포함한 여성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126) <http://www.moge.go.kr/maincommittee.html>.

## 5. 연구 및 배포

2003년 9월 현재까지의 한국여성개발원 간행물 목록을 보면 평화문화와 관련되는 연구로는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방향』이 유일하다. 1989년에 평화문화의 전략개념이 탄생하고 90년대 들어서 평화문화가 세계여성대회 과정에 주요 의제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 평화문화가 전략과제의 하나로 천명되었는데도, 2000년 평화문화의 해가 선포된 시점에 와서야 평화운동에 대한 의식조사가 겨우 이루어졌을 뿐이다.

평화문화전략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교과서, 교재 등에 평화문화의 관점을 통합하려면 교과서, 교재 등이 폭력문화에 오염되어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떻게 평화문화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매체 및 예술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남성성이 폭력문화를 부추기는 측면을 분석해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 편견은 근원적으로 가부장적 남성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교과서 등의 성 효과를 판별해 내는 이 같은 분석은 성 분석의 한 형태로서 교육정책에 성 관점을 통합하는 주류화전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연구결과는 정책제언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육자, 언론인, 방송작가, 감독을 포함하는 예술인, 교육, 매체 등 관련 위원회, 사회교육 기관, NGO, 지역사회 등에 배포되어 평화문화의 전략적 조치 및 홍보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 6. 동북아 평화문화공동체

여성부는 2001년에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의제의 하나로 평화구축을 다룸으로써 동북아 평화를 향한 여성의 노력을 주도해 왔다. 이 회의는 연례행사로서 기획되었으나 1회에 그치고 말았다. 여성부는 또한 같은 해에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2002년도 연례회의에서는 평화네트워크를 주요 전략과제로 채택하였다. 이들 동북아 여성지도자 회의와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를 ‘동북아 평화문화공동체’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부 지원 하에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여성단체와 평화단체가 주도하고 평화문화의 유엔주도기구인 유네스코와 연대하여 북한 및 재외동포, 중국, 일본의 여성단체와 평화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여성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엔이 권고한 각종 평화문화사업을 소지역 수준에서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가능하면 창립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의 평화운동을 보면 대부분 통일운동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화가 적대적 분단의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즉 평화문화전략의 추진은 냉전적 대결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동북아 평화문화공동체’는 평화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지역 수준의 활동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臼井久和(1987), “분쟁이론과 분쟁의 해결,”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편, 『평화학 - 이론과 과제』, 이경희 역, 서울: 문우사.
- 김명섭(2002),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 김숙임(2002), “한국여성평화운동-1990년 이후의 한국여성평화운동을 중심으로,” 「2002 서울국제회의 -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 2002. 8. 16 지역보고서 한국 2, 서울: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 김양희 외(2000),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 방향』,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엘리(2002), “한국의 군사주의와 성,” 『여성과 평화』 제2호, 서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김정수(2000), “평화문화를 위한 아시아여성회의(Asian Women for a Culture of Peace Conference)에 다녀와서(2000.12.6-9., 베트남 하노이),” 『여성과 평화』 1호, 서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_\_\_\_\_(2001), “'차이를 넘어선 '연대' :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1』, 서울: 한국인권재단.
- \_\_\_\_\_(2002),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평화교육,”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2 갈등 해결 워크숍 자료.
- 박상용(2002), “평화문화를 향한 국제이해교육 워크숍 참관기,” 『국제이해교육』, 통권 8호, 서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박주식(1996), “탈현실주의 평화학,” 『평화연구: 이론과 실제』(학술회의자료집), 한국정치학회.
- 정순영 외(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1), 『『동북아 여성지도자회의』를 통한 여성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부.
- \_\_\_\_\_ (2002),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부.
- 정현백(2000), “한국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평화』 제1 호, 서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_\_\_\_\_ (2003), “평화운동과 민족주의,” 『2003 평화회의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 대안담론과 대안정책』, 서울: 한국인권재단.
- 정현백 외(2002),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울: 통일부.
- 정현백 · 윤덕희 · 이금순 · 김귀옥 · 강남식(1999),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 - 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 서울: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조민(2000), 『한국사회의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1986), 『유엔여성10년관련자료집』,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준상(2002), 『국제이해교육 2002』여름 통권8호, 서울: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국외문헌>

- Barrett, Frank J.(1996), "The Organizational Construc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The Case of the U.S. Navy,"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Vol. 3, No. 3.
- Breines, Ingeborg. Robert Connell and Ingrid Eide, ed. (2000), *Male Roles, Masculinities and Violence: A Culture of Peace Perspective*, Paris: UNESCO Publishing.
- Breines, Ingeborg et. al(1999), "Introduction," in Ingeborg Breines et. al., ed., *Towards a Women's Agenda for a Culture of Peace*, Paris: UNESCO Publishing.
- Brownmiller, Susan(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Penguin Books.

- Chung, Soon-Young (1998), "National Machineries and Exemplary Cases Strategy: Lessons Learned from Experi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Expert Group Meeting on National Machineries for Gender Equality, Chile.
- DEFE(1996), *One Year On: Implementing the Global Platform for Action from the UN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Government Progress and Plans*,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 Enloe, Cynthia(1993), *The Morning After: Sexual Politic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atima Jinnah Women University(2002), *Proceedings of the Seminar & Training Workshop on Peace & Conflict Resolution in South Asia with Gender Perspective*, 28-30 October, 2002, Islamabad: Pan Graphic(Pvt.) Ltd.
- Ferrece, Myra Marx, Judith Lorber, and Beth B. Hess (ed.)(1998), *Revisioning Gender*, Thousand Oaks: Saga.
- Final Report of Activities of the Group of Specialists on Mainstreaming (EG-S-MS)(May, 1998), *Gender Mainstreaming: Conceptual Framework, Methodology and Presentation of Good Practices*, Strasbourg, p.18.
- Friedman, Anny R.(1992), "Rape and Domestic Violence: The Experience of Refugee Women?" *Women and Therapy*, vol. 13, no. 1/2
- Galtung, J.(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3.(1971).
- \_\_\_\_\_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reprinted in (1980), *Essays in Peace Research*, Volume IV, Copenhagen: Christian Eaglers.
- Giddens, Anthony(1989),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Kant, Immanuel(1999), "Toward Perpetual Peace(1795)," in Kant, *Practical Philosophy*, Mary J. Gregor,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mper, Theodore(1990), *Social Structure and Testosteron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Nicholson, Linda J.(1986), *Gender and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rrell, Robert(1994), "Boys, Gangs, and the Making of Masculinity in the White Secondary Schools of Natal, 1880-1930," *Masculinities*, Vol. 2, No. 2.
- Reardon, Betty A. (1985), *Sexism and the War Syste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_\_\_\_\_(1993), *Women and Peace: Feminist Visions of Global Security*,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eport of the U. N. Secretary General on the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A/56/349.*
- Seifert, Ruth(1993), "War and Peace: A Preliminary Analysis?" in Alexandria Stiglmeier, ed., *Mass Rape: The War Against Women in Bosnia-Herzegovina*, Lincoln, N. 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ivard, Ruth L.(1995). *Women: a World Survey* [2nd Edition] , Washington, D. C.: World Priorities.
- Smith, Dan(1997), "Women, War and Peace," a briefing paper for the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PRIO).
- Spretnak, C.(1983), "Naming the Cultural Forces That Push Us Toward War,"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Summer).
- Stern, Maria(1991), *Security Policy in Transition*, Stockholm: Padrigger.
- UNDP(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1995),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2003),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1996), *The United Nations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6*, New York: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n and the Pacific(2001), *Report of the Regional Conference ; Asian Women for a Culture of Peace*, 6-9 December 2000 Hanoi.
- UNESCO(1996), *UNESCO Mid-Term Strategy 1996-2001*, Paris: UNESCO Publishing.
- \_\_\_\_\_(2000), *Women Organize for Peace and Non-violence in Africa : Zanzibar Declaration : Women of Africa for a Culture of Peace The Women's Agenda for a Culture of Peace in Africa*, Bangkok.
- U. 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52/13.
- U. 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53/243.
- Wahlstrom, Ritta(1992), "The Challenge of Peace Education: Replacing Cultures of Militarism," in Elise Boulding, ed., *New Agendas for Peace Research: Conflict and Security Reexamined*,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 Whelehan, Imelada(1995), *Modern Feminist Though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 <http://safe.jinbo.net/2002statement.htm>.
- [http://safe.jinbo.net/South\\_Korea.hwp](http://safe.jinbo.net/South_Korea.hwp).
- <http://www.peacewomen.or.kr/news/view.php>.
- <http://www.un.org/aboutun/charter/preamble.htm>.
- <http://www.unesco.org/cp>.
- <http://www.unesco.org/cpp/uk/declarations/seville.pdf>.
- <http://www.unesco.org/cpp/uk/declarations/wcpbei.htm>.

<http://www.unesco.org/cpp/uk/projects/projectfinalreport.pdf>.

<http://www.unescoapceiu.or.kr/asia/business/main.asp>.

<http://www.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55/125590e.pdf>.

[http://www3.unesco.org/iycp/uk/uk\\_sum\\_refdoc.htm](http://www3.unesco.org/iycp/uk/uk_sum_refdoc.htm).

2003 연구보고서 260-4

국제여성발전전략으로서의 평화문화에 관한 연구

---

2003년 12월 27일 인쇄  
200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정가 5,500원>

ISBN 89-8491-066-X 93330